

비전2020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곽선희 목사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

- 약력 : •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선교신학 박사(D. Miss.)
 • (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 소망교회 원로목사

나눔께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21세기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미 기존해 있는 교회들은 수와 질에 있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라파나 미국 교회들도 통계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세계교회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도 구라파나 미국 교회들이 지나온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18세기 말 영국은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타락하였으며 경제 또한 어려워 강도, 강간, 살인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존 웨슬리를 비롯한 많은 부흥사들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검소하게 바뀌어 그 결과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경제, 정치, 문화에 모든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살게 되니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GNP 1만 달러를 넘어가면 교회 성장은 둔화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식이 높아지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못살고 무식하고, 삼팔선이 있는 어려운 지역에 있기에 선교의 여건이 가장 좋은 옥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되면 교회는 불황입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살 만해지니까 통계학적으로 성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산이 줄어 재편성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교역자도 줄이고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천 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 요인과 구라파 교회의 몰락의 이유를 분명히 생각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교회의 전략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휴무인 직장인 많습니

다. 구라파 교회를 분석하면 1주일에 2일 휴무하면서부터 신자 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4달만 교회에 안 나오면 생각이 비기독교인이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중말론적 의식으로 바뀌지요. 18세기 구라파의 신학

이 자유롭다 보니 이렇게 자유화되다 보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성경이 휴지가 된다는 글도 있어요. 모두 편하니까 성경을 믿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점점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교회를 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신전통주의가 나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전쟁을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이 만든 작품이 고작 이것인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다시 가지고 나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전통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순수하고 성서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편안해지면 자유주의와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선교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복음적 시각이요 선교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계화라고 젊은 사람들이 세계로 빠져나가고 신세대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자의 문제지요. 교역자가 가지는 신앙의 구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이 구원을 받고 이성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내 마음, 성품, 인격 속에 구원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생, 즉 행복한 세계에 산다는 뜻입니다. 지성이,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성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의 신학화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도,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성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와 만난 시간은 많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지성이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 구원받은 지성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연구했던 구약성경, 율법, 헬라 철학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당대 최고 높은 지성인이자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성이 변하여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이 되어 성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았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신학화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문제를 놓고 그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 하였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기독교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학과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만났지만 구약성경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어떻게 철학의 세계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옳은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예수 믿는 거고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는 믿지만 요건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생각이 휘청거리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도 없고 그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철학자 가운데 파스칼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못박으면 바보가 됩니다.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지요.

창조학회로 활동하는 분들이 약 2백여 명 되는 세계적인 석학이고 소위 자연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믿습니다. 한마디도 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창조론이 맞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과학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보고 알쏭달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구원받고 감성이 구원을 받아야 성경의 어디를 봐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너무 좋다는 기쁨과 감사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점점 잘살게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유물사관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즉 기복사상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잘살고,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는 예수를 쉽게 버립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를 가지고는 21세기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와 잘살고 못사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순수한 복

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역사할 때 여기에 생명력이 있고 구원을 이룹니다.

지금 아이들의 마약과 술 담배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데 주체사상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온 세계가 복음과 함께 있을 때 잘살고 안정되었습니다. 구라파 교회가 공산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에 빠지다가 망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뭐든 해결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산당 50년 피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송을 듣다가 목사님께 졌습니다. 요새는 새벽마다 목사님 방송 듣는 재미로 삽니다”고 해서 너무너무 반가워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했더니 “나 천당갈꺼유”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도, 선교사가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고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를 떠났거든요. 헬라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가 두려워했던 아픈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솔직합니다. 복음적 신앙을 가질 때 담대했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나약해지고 비겁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복음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 복잡하고 물질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

히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는 복음에서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 구하는 능력도 복음에서 얻을 수 있었고 복음은 만족이고, 생명의 근원이요,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복음화 운동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군인은 젊은이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송 한 번 듣고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군복음화 후원회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군종목사님들은 윤리강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두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통계학적으로 주일학교에 나왔던 아이들은 85%가 예수 믿습니다. 언어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감수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으로 집을 떠나 교회에 갔을 때의 감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하면 벽에 박아놓은 못과 같아 빠질 수 없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언제 그런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귀한 시간에 귀한 사명을 맡은 줄 아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에서 이성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계상으로 20 만이 세례받는다고 하니까 20 만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결혼하면 40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0 만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

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생리학적 성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고 확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이 20 만이 진짜 예수만 믿어주면 확실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해 이 중요한 일들을 성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만 들어도 중요합니다. 참 복음을 참 전도자가 전하기만 하면 복음 자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는 능력이요 권능이요 지혜입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군복음화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 일로 인하여 2020 년 더 큰 역사가 있어 한국을 복음화하고 잠 들어가는 세계의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활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조강연



이종윤 목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4지역이 언급되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이다. 이것을 NIV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세 지역으로 읽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 사마리아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이다.

사도행전 8-12장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말씀이다.

- 약력 :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학
• 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 실천운동 위원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사도행전 13-28장은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간 기록이다.

이 본문은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 전도 계획을 선언하고 있다. 복음 전도의 대명령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요 17:18, 현대인의성경).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어 그 증거의 성격을 강조했다. 즉 예수가 전도자의 모델이 되신 것이다. 마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기초로 예수의 권세를 강조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들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 7-8절에 와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을 발견한다.

첫째,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업을 받았다는 것과 둘째, 그들은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즉 지리적 확장을 시키는 전도사가 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갈 것이라’ 하셨다. 그들의 증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갔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가 행한 전도사역을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 모든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의 복음 내용을 알고 있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급속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었는지 역사가들도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다. 그것은 비공식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데 주

저할 필요가 없다고 19세기 독일 교회사가인 하르낙(Adolf Harnack)은 지적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비장의 무기였다.

I. 깊은 오해

사도행전 1장 7-8절은 제자들에 의해 오해된 주님의 계책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에 영적인 것을 생각지 않았다. 사도행전 1장을 연구해 보면 이때에 제자들은 지상의 나라를 생각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나라는 무엇인가?

1. 그들은 정치적인 나라를 찾고 있다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나라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다. 아마도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다윗이 왕좌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2. 그들은 민족적으로 제한된 나라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라고 주님께 물었다(6절). 그들은 이방나라엔 관심이 없었고 이방인을 무시했다. 물론 겉으로는 이방인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3. 그들은 지리적으로 제한된 나라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를 원했다.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린 곳이고 메시아가 다스릴 곳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II.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

1. 영적인 나라(A Spiritual Kingdom)

그 나라가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강조했다.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영적인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는 이가 많지 않다. 주님이 영적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나 현대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

를 세운다면 누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마도 그래서 예수는 영적인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나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제삼위이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다. 영적인 것은 만져지지 아니하고 구름 속에서 사는 이에게나 해당될 것이다. 영적이란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을 믿고 영생도 보이지 않는다. 구원, 중생, 칭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믿는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우리는 믿는다. 영적인 나라는 지나가 버릴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국토와 국권은 회복했는지 모르나 영적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 영적인 나라의 회복을 도모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고 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가 영적인 나라다.

2. 능력있는 나라(A Powerful Kingdom)

8절에서 예수께서 사용한 ‘권능’(δυναμις)은 ‘Power’로 번역되었다. 7절의 ‘권한’은 ‘Authority’로 번역한다.

헬라어 ‘두나미스’는 스웨덴의 화학자요 엔지니어인 노벨

(Alfred Bernhard Nobel, 1833-96)이 그 당시 알려진 것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견함으로 영어 세계에 알려진 단어다. 폭발적인 힘을 가진 단어를 찾으려고 그의 친구이자 헬라어 학자에게 문의하자 그는 두나미스라고 대답했다. 노벨은 그 폭발적 힘을 다이내마이트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말씀한 권세나 힘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 권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 권세는 제자들이 원한 바이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을 의미한다.

권력은 신비한 것 같다. 사람들은 한 번 권력을 쥐면 좀처럼 놓으려 하지 않는다.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무지한 자를 보호케 하시고 범법자를 벌하게 하시며 시민을 옹호케 하셨다. 그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정치적 힘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여론엔 민감하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갖지 못했다. 정치적 환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세상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이 참으로 바뀌지 않는다. 돈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법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다.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면 음주 운전자가 없어져야 하는데 날로 그 수가 증가된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성령이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하도록 복음을 사용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 큰 변화가 삶에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회개,

사회적으로는 개혁이, 정치적으로는 혁명이 일어난다.

3. 진리의 나라(A Kingdom of Truth)

빌라도 앞에 재판 받기 위해 서신 예수는 진리라는 말로 나라를 설명하셨다. 예수가 왕인지 묻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개역개정, 요 18:36)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이 말씀의 뜻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의심없이 질문하는 어조로 “그러면 네가 왕이로다”라고 했다. 이때 예수는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개역개정, 요 18:37).

물론 빌라도는 이 말을 이해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진리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것은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려고 말씀했다.

증인이란 영어로 witness 즉 to wit는 to know, 그리고 a wit는 알 만한 사람이다. 증인이란 어떤 것을 알 만한 사람이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해 증인이 되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도 우연이

아니고 진리의 증거로 말씀했다.

어떤 이는 돈을 모금하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사는 데 편리하다. 어떤 이는 법으로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과정을 거쳐 복음에 유익한 법이 생기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마귀를 이기는 성도의 승리가 나온다. 그것은 어린양의 피와 증인들의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진리의 나라를 세울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족한 것의 반대 개념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진리의 나라를 세우자.

4. 국제적인 나라(A Worldwide Kingdom)

사도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나라를 꿈꾸고 있다. 겉으로는 이방인을 말하지만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 대답을 해주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든 말씀이다. 기독교는 좁은 국수주의가 아니다. 종족, 계급, 언어, 성의 차별을 넘어선 세계적 종교다.

5. 점진적 발전이 있는 나라(A Kingdom in its Gradual Extension)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와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눅 19:11).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실망했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뵈자 그 나라가 지금 회복될 것인가를 물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다.

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7절)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다. 역사의 순간, 발전의 신기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사도들의 질문은 호기심에서 한 것이거나 또는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다.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다. 아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막 13:32). 그래서 예수는 그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다.

② 때와 시기는 모를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8절).

그래서 예수 재림하시기 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 강림사건과 재림사건 사이에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땅 끝까지(행 1:8)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마 28:20)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상의 모든 곳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

지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처럼 국가의 비전과 과업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완성의 때와 시기는 모르나 계속 영적인 나라, 권능 있는 나라, 진리의 나라, 국제적인 나라로 발전하고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를 참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자.

결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인가 아니면 명령(네가 나의 증인이 되라)인가? 대답은 정확히 둘 다가 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므로 예언이다. 복음은 세상 모든 곳에 침투될 것이다. 동시에 이 말씀은 명령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을 모든 곳에 전해야 한다.

전도 명령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순종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해야 한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의 죽음과 구원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당신과 나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원고는 제3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2003년 5월 22일 - 장로회신학대학교)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비전2020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이종윤 목사

들어가는 말

군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에 둔다.

- 1) 주님의 대명을 따라 A.D.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한다.
- 2) 진중 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 이상의 장병이 복음화 되도록 한다.

- 약력 :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학
• 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남자 20 여만 명이 세례를 받게 되면 25년 동안 500 만 명이 신자화됨으로 그들이 가정을 가질 경우(고넬료 가정처럼) 효과적으로 가정복음화가 되어질 것이다.

3)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한다. 1996년 현재 1,200 만 신자(인구 4,500만의 25%)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2020년에는 3,700 만 신자(인구 5,000 만의 75% 이상)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될 것이므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 즉 현 기독교인 수의 0.04%에 해당하는 선교사 3,000명에서 2020년에는 0.1%에 해당하는 선교사 30,000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한다.

4)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인민군 100만 장병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군선교를 통해 이룩하게 된다.

이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 실천해야 한다.

I. 통일 신학을 정립하는 일.

II. 복음화된 통일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 전체가 사명으로 받도록 하는 일(느헤미야 전략).

III. 비전2020운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일.

I. 성경적 통일신학 정립을 제안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같이 단일 민족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의 제1차 민족 분단이 빚어졌다.

그리고 B.C. 926년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제2차 민족 분단이 생겼다. 이들의 통일 노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봄으로 민족 분단 반세기를 넘긴 우리 민족의 통일 원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1. 두 왕국의 실패한 무력 통일

남북이 분단된 직후 유다의 르호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려고 18만의 군사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만류하셨다(왕상 12:21-24, 대하 11:1-4). 그 후에도 르호보암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다(왕상 14:30).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 베냐민 지역을 회복했다(왕상 12:21, 대하 11:1). 이들 사이엔 빼앗고 빼앗기는 일뿐 아니라 아람 왕까지 전쟁에 끌어들여 혼전을 했다.

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합 사이엔 한때 화해가 이루어져 양가의 혼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왕상 22:44, 대하 18:1). 그러나 이 같은 화해 분위기는 잠깐, 그후 남북은 극한 대립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의 베가(B.C. 740-732) 왕은 아람 왕 르신을 끌어들여 유다를 공격했다(왕하 16:5-6).

그러나 위기를 느낀 유다의 아하스 왕은 예언자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앗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사 7:1-17, 왕하 6:6-17). 앗시리아는 아람을 점령하여 르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지역도 점령하여 그들 지배하에 두었다(B.C. 733).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앗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B.C. 722년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밋고 앗시리아에 조공 바치기를 거절하다가 앗시리아 침략으로 완전히 망했다. 결국 집안 싸움에 외세를 끌어들이므로 통제로 망한 격이 되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앗시리아 정책을 쓰고 조공을 바침으로 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주 독립 국가라기보다 유다도 앗시리아의 속국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단 후 약 200년간 공존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으로 저들은 서로 힘의 우위만을 찾는 무력통일 정책을 썼다. 그러나 이 같은 무력통일 정책은 국력 소모만 될 뿐 완전 통일엔 도움을 주지 못했다. 더구나 외세를 끌어들이므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외세에게 차례로 먹히는 결과만 가져왔다.

결국 무력통일은 성경이 제시하는 통일 방안이 아님을 확증시켜 준 셈이다.

2. 포로기 전후의 통일사상(역대기를 중심으로)

A. 온 이스라엘 사상

역대기의 저자는 온 이스라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족보를 말할 때도(대상 1-9장)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외시키지 않고 12지파를 다 소개하고, 다윗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

로 등장시킨다(대상 11:18).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실(삼하 2:8 이하)을 역대상 11장 이하에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포로 후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통일 이스라엘의 이상적 왕의 모델로 다윗을 내세우기 위한 역대기 기자의 신학적 표현이다.

이것은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통성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인구 면에서는 12지파를 다 포함하고 지리적으로는 이집트 시홀에서부터 르보하맛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다(대상 13:5).

이 같은 통일신학은 역대하에서도 나타난다. 르호보암 이후의 남북 분단 시대에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이라 부른 것은(대하 11:3, 24:5, 28:23, 31:1) 유다가 참 이스라엘(민족 정통성)이라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직후 북왕국에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왕국으로 내려왔다(대하 11:13).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그들을 폐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도 북쪽의 우상 숭배 강요를 피해 하나님께 예배키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대하 11:16).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당수가 남쪽으로 피난와서 정착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12지파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왕국 유다는 비록 국토는 유다와 베냐민에 국한되어 있으나(대하 11:3) 인구 구성 면에

서는 온 이스라엘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온 이스라엘 사상은 타당성을 갖게 된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거행키 위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에 파발꾼을 보내 그들을 초청하였다(대하 30:1-10). 이것은 역대기의 특수 자료로 여기서도 역대기서의 통일신학을 찾을 수 있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유다 지역뿐 아니라 북왕국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온 이스라엘 땅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대하 34:6-33).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도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도 거두게 하였다(대하 34:9). 유월절도 함께 지켰다(대하 35:18).

B. 한 형제 사상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그들은 서로 싸우려고 군사를 동원했다.

이때 예언자 스마야가 이를 만류했다. “여호와와 말씀이……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대하 11:4). 나라는 둘로 나뉘었으나 한 형제 사상을 보여주었다(대하 28:8, 11:15). 나라는 집권자들로 인해 나누어졌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한 형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C. 한 하나님 사상

유다의 하나님은 아직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기도 하다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사상이다(대하 13:12, 28:10,

30:8). 하나님은 북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대하 22:7). 이스라엘에도 미가야 같은 예언자가 활동하는 것은 인정했다(대하 18장). 북왕국은 결코 하나님 없는 이방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형제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자세를 반성해야 한다.

역대기엔 북왕국 역사가 실려 있지 않다. 그것은 남북 분리 사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족통일의 표현이다. 즉, 한 민족 두 왕국 체제가 아닌 한 민족 한 왕국 체제(다윗 왕국)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비합법적이라 생각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거시킨 것이다.

포로 이전의 역사를 다룬 역대기 상하와 마찬가지로 포로 이후를 다룬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온 이스라엘 사상은 나타난다. B.C. 515년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속죄제 때 남쪽 두 지파만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숫염소 12마리로 제사를 드렸다(스 6:17). 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를 드렸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것이다(스 8:35). 이처럼 역대기는 남북 분리주의가 아닌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온 이스라엘 사상을 계속 강조한다.

다만 다윗 언약을 어긴 사마리아 집권자들과 종교혼합주의자들은 거부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비록 사마리아인이더라도 구별치 않고 받아들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온 이스라엘 사상이 다윗 왕조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다윗은 남유

다의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상화된 다윗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즉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우리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

3. 예언자들에게 나타난 통일신학

A. 이사야 11장 11-16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그 남은 백성을……돌아오게 하시며……모으시며…….” 그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말한다. 그 날엔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서로 싸우고 다투던 이들이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B. 호세아 1장 10-11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영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 날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이다. 이 같은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

C. 레위기 3장 18절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예레미야는 통일된 새 나라의 비전을 본 것이다. 이러한 통일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분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

D. 에스겔 37장 15-28절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언자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16-17절).

흥미있는 것은 이 두 막대기에 쓰인 글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온 백성(족속)”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이나 다름 바가 없는 민초요 뿌리다. 이 같은 공통의 뿌리에 의하여 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지배층을 말한다. 지배권력의 이질성 때문에 민족이 둘로 나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된 나라의 왕은 다윗이다(24절). 그 다윗은 흠이 많고 실정을 많이 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아니고 상징으로 이상화된 다윗, 즉 메시아를 의미한다.

예언자들의 통일 신학에서 우리는 공통점 셋을 찾을 수 있다.

1)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선 통일 성취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미래 사건 혹은 종말론적 사건을 기대하고 있다.

2) 따라서 남북화해, 민족통일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권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3) 민족통일의 시기는 한 영도자 곧 메시아의 도래 시기와

결부되어 있다. 민족통일을 가져다 줄 메시아는 다윗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다윗이 아닌 이상화된 다윗이다.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며, 통일이 되었다 해도 무의미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일 노력과 통일 신학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자.

1)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은 지배계급(권력자)들의 집권욕에서 기인된다. 한국의 남북 분열도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분히 미·소 양진영의 패권주의와 당시 민족 지도자들의 사욕이 없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다윗을 이상형으로 제시한 역대기 신학이 있지만 사무엘서에 의하면 다윗의 역할은 훨씬 축소되고 대신 백성의 역할이 증대된다. 통일을 이룩하는데 백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 무력 통일 정책은 서로에게 상처만 더했을 뿐 통일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3) 역대기에서 온 이스라엘 사상이 강조되었다. 종족이나 지리적 면에서 민족 동질성이 강조되었다. 한 민족, 한 형제성이 강조되므로 서로 비방하고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4) 히스기야 요시아 왕 때엔 북쪽 동포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가 독일 통일을 앞당겼음을 기억하자.

5) 역대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심을 인정하자.

6) 통일을 위해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에스겔의 경우처럼)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7)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통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로 통일을 기다렸다.

8) 결국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군선교를 구체화해야 한다.

II. 복음화된 통일 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가 사명으로 받고 이를 실천케 하는 일 : 느헤미야 작전을 실천함으로

B.C. 445부터 B.C. 432년까지 예루살렘 총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전략을 우리의 군선교 작전 지침으로 삼기로 하자.

1. 우선권 선정을 바로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민심을 모으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다.

용기와 행동이 요청되는 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했듯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먼저 했다(느 1:4). 그는 주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고(1:5-6)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6-7절). 그리고 감사와 애원의 기도를 지구력 있게 드렸다(느 1:8-11, 2:1).

비전2020운동의 성패는 전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있음을 알자.

2. 중간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선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백성에게 바르게 전달할 사명과 그 비전이 제시한 길로 백성을 끌고 갈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중간 지도자의 역할은 결코 쉽지가 않다. 창의성 발휘가 어렵고 권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며 책임은 과다하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중도 하차하고 만다.

느헤미야는 아직도 파사의 속국으로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수산궁과 교통이나 통신망도 없는 먼 곳에 있으면서 상하 관계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당시 파사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다.

왕이 곧 법이다. 짐승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이 이미 거절된 바 있는 예루살렘 재건을 건의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

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성취시켰다.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나?

3. 느헤미아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충성은 틀린 것을 옳다 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항상 반대만 해서도 안 된다. 충성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 일하는 한 그것이 충성이다.

느헤미야는 “왕은 만세수를 하읍소서”(2:3) 한 것은 위선적 말이나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의 마음엔 항상 왕과 나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국을 위하여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 그렇다면 민주적이 못 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 해도 하나님 섬김을 하려는 일은 할 수 없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상이며 비전이다.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고 나라 사랑의 길임을 믿어야 한다.

4. 기지(Tact)를 바르게 발휘하라

느헤미야는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는 왕의 질문에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말을 하여 왕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2:3)이라 말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냈다.

“당신이 끝을 얻기 원한다면 벌통을 발로 걷어차지 말라”

는 카네기(Dale Carnegie)의 말은 명언이다. 범사를 지혜롭게 하되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5. 정직하게 하라

기지를 발휘하다 보면 신실성을 상실할 경우가 많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조상의 무너진 성을 중건하기를 원한다(2:5)고 했다.

잘못된 통계보고로 숫자 놀음만 하지 말고 정직한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물질 관리에서 정직성은 이 운동이 장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6.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하기 전 먼저 기도를 했다(1장). 기도의 사람인 그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전2020은 우리의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7.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라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구체적 목표(goal) 설정을 한 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 ① 당시 산림감독 아삽의 이름까지 알고 그에게 조서를 내려 재목을 구하라 했으니 정

보 수집을 철저히 했다. ② 성을 수축기 위한 기간을 알아보고, 예루살렘 가는 길의 안전보장을 위해 유브라데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냈으며(2:6-7) ③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청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비전2020의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8.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도했다. 그의 소원으로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그는 그 결과가 자신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2:8)라고 했다. 인간이 100%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헛수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엡 3:20-21).

성경 비평학자들은 느헤미야서는 너무 영적이고 비실제적인 책이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 같은 생각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의 말이다. 느헤미야서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교리적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자.

그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했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는가를 이미 공부했다. 왕이 이미 선포한 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으며 그 슬한 역경과 방해물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그가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느헤미야는 너무 큰 과업 앞에 서 있었다.

파괴된 성의 부분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다양한 기술자가 동원되고 무거운 돌을 옮겨야 했다. 거기에 그들은 이미 지난날 실패한 역사가 있었다.

B.C. 538년 고레스 왕 2년에 즉 93년 전 유대인들은 성을 쌓으려 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바 있었다. 13년 전 왕이 중단시킨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부터가 부담이 되었지만 주변국가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마저 있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먼저 떨쳐 버려야 했다.

2) 일을 저지하려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미 실패한 경험뿐 아니라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경험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과중한 부담 그 자체가 지도자에게겐 기회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① 동기 부여를 바르게 해줌으로 무관심자들과 불평자들의 노를 잠재울 수 있었고 ②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맞추어 백성으로 하여금 호기심과 열심을 갖게 했으며 ③ 그 과업을 백성들과 함께 뚫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갖게 했다.

3) 그는 내부의 적도 외부의 반대자와 함께 물리칠 수 있는 목적의식과 분별력 그리고 담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 새 힘을 공급받았다.

4) 그는 성공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으며(6:16) 계속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해결할 능력과 경계

심을 갖고 앞으로 될 일을 준비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새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국가적 갱신을 계속 촉구했다. 결국 갱신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했으며(8장) 죄를 슬퍼하고 회개케 했고(9장) 그 결과 삶에 변화를 일으켜 국가 재건의 기틀을 놓았다(10장).

누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느껴 미야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

III. 비전2020운동의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비전2020운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시해 본다.

1. 일반 및 군인 교회를 중심으로한 비전2020운동 지회를 각각 조직 운영한다.
2. 비전2020운동의 조직을 위한 세부 계획 지침서를 작성 발표하여 지회 창설을 돕는다.
3. 전군 기독장병을 전산 관리하고 군인교회와 일반교회가 지매 결연을 하도록 하며 기독장병들을 위한 기도 동역자를 찾아 연결시켜 준다.
4. 기독장병 영성 훈련을 강화하여 복음 확산의 전초병이 되게 한다.
5. 일반교회의 비전2020운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리고 기도 협력을 고취키 위한 전략 수립을 한다.
6.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반드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

설에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한다.

7. 성장이 둔화된 한국교회를 회생시키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비전2020을 통해 일으킨다.

맺는 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 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심이로다”(시 60:10-12).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삼하 8:14),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삼하 5:1-5),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삼하 5:10).

“그 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삼하 5:17-25).

군선교의 목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 민족 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비전2020운동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자!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이종윤 목사

한국교회는 풍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는 민족호를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보아야 한다. 조국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속히 실현해야 한다. “민족 75%를 그리스도께로” 2020년까지 인도하자는 새 비전은 한국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2020년까지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모든 사람(Whole People)에게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힘을 다하여 전함

- 약력: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학
• 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목표다. 우리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 충격을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복음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복음화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한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요청된다.

그 첫째는 받은 과업 앞에서 연합(unity)하는 일이다.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전 사명자들의 연합이 먼저 필요하다. 연합은 우리의 증거를 강하게 한다.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를 참회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피해야 한다. 진리와 예배, 거룩과 선교에서 깊은 연합을 찾도록 힘써야 한다.

선교와 전도를 효과 있게 하려면 권역별, 지역별 연합을 해야 한다. 개인전도 전략이나 미전도 종족 전략도 이 같은 연합 운동을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자국민 선교나 선교사들의 활동도 협력을 통해 선교훈련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선교를 벗어난 개인주의나 제국주의적 독립 선교가 최근 동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선교에서 보여 준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케 된다는 사례를 간파해서는 안 된다.

자국교회 지도자들과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협력을 하되 극단적 신비주의자들과 잘못된 자유주의자들과의 연합은 복음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타종교는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의 연합 또한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연합 운동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기 교단 소속 교회들의 연합과 타교단 소속 교회들과의 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같은 협력을 통해 북한 선교 또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과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군복음화를 위해 매년 22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지속게 하는 일은 군목과 일반교회 목사, 군중병과 교회 모두가 협력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21세기 지도자는 연합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 둘째는 세상 앞에 내어놓을 가견적인 것(visibility)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떤 허례적인 것이나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에게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거나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권능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복음의 신뢰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복음은 들려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지게 해야 한다. 귀머거리의 귀를 낮게 하신 주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가견적인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는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한다.

복음의 가견성은 개인적이고 지역적이며 사회적이어야 한다. 복음을 외치는 사람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말한 것을 몸으로 체현하는 것이

다. 말과 생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

복음의 가견적 체현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개교회들로 하여금 천국의 사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사회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음은 사회적 섬김을 통해서도 보여진다. 주님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회적 활동 즉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일들을 항상 병행하셨음을 잊지 말자. 복음은 선한 사업을 통해서도 전해진다.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즉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난 소외된 곳에서도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군복음화에 크게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계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듯 교회와 기독교장병들은 개인과 단체를 통해 계급을 존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 겸손, 성실성, 근면성, 희생정신, 정직성, 용서, 화평과 같은 복음의 내용을 유감없이 나타내야 한다.

그 셋째는 복음 앞에서 명료성(clarity)이 필요하다. 복음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는 이 복음 진리가 종종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지식적으로 혼란

에 빠져 믿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쇠잔해져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 진리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거나 갱신하려는 운동이 있었다.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도록 복음을 재해석하거나 변경시켜 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문화적 마찰이나 종교적 갈등을 피해 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변증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았다. 우리는 바울이 베스도에게 한 말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reasonable)을 하나이다”라고 해야 한다. 모든 종교가 독립적으로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인정하지는 종교 다원주의(pluralism)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기준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분만이 최종 권위임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의 명료성만이 복음증거를 분명케 한다. 우리는 방법론에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심리적 압박이나 물질적 유혹으로 해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부끄럽거나 숨겨질 것이 아니요 속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당당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 군 내부에는 다원 종교체제로 자칫 타종교와의 마찰 내지는 경쟁 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타협이나 야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며 개인과 부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

그 넷째는 그리스도 앞에서 일관성(consistency)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교 모델을 보여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듯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은 선교는 모두 성육신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사회적 실존에 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비운 것이지 그 본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 속에 사랑과 동정심을 갖고 들어야 한다. 질문자들의 질문 속에, 그리고 갈 길을 잃은 이들의 고독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동일성을 상실치 않으면서 그들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과 가치관, 기존 원리를 좇는 삶의 양식과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군중을 향해 종종 뺨과리 소리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그 말씀이 그런 세계에 침투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중 집회나 집단 전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군중을 향해 전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 같은 방법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말씀선포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전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노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일관성 있게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빛을 가져오고 공의를 심기 위해 핏박과 죽음을 당하신 고난의 종으로 끝까지 사셨다.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죽음으로 사는 비결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셨다. 마침내 그가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다.

오늘날도 고난받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고난을 통해 세우시게 하셨다. 우리는 복음이 원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이 있다. 2020년까지 매년 군인 신자 25만 명을 배출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행정과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만 민족 75%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다섯째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겸손(humility)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의 모델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겸손보다 더 아름다운 덕성은 없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 된다. 겸손한 메신저 즉 복음 증거자는 문화적 우월감이나 제왕적 생각을 단념할 필요가 있다. 전도자의 겸손이란 성령께 의존하는 삶을 말한다. 성령이 사회적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과 지적 결론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는 성령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의존하고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증거는 헛되다”고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은 고백한다. 성령은 최고 증인일 뿐 아니라 소경의 눈을 여시고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최고 전달자이다.

오늘날 복음을 방해하는 지역감정 또는 계층간 대립은 무너뜨려져야 한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겐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변해야 산다는 소용돌이 속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퇴출운동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는 교회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4만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 그리고 실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1천 군인 교회들이 사력을 다하는 전도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됨으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전2020운동이야말로 애국애족 운동이요 신앙전력화 운동이며 한국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국교회는 이제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비전 2020을 제창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종윤 목사

들어가는 말

타종교와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입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것은 배타주의(exclusivism), 포용주의(inclusivism), 그리고 다원주의(pluralism) 입장이다. 물론 이 같은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있다.

가령, 복음주의자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벗어나서는 어떤 인간도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을 그의 은혜로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시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포용주의자들 사이에는 타종교에도 어느 정도 신적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으로 구원 받는다고는 하지 않는다. 반면에 타종교 안에도 숨겨진 의명의 방법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서양의 유니테리언교회(Unitarian Church)에서는 인도의 석가와 중국의 공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수를 찬양합시다라는 찬송가를 불러 포용주의를 넘어선 혼합주의까지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다원주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완전 포기 또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철저한 재정의의를 요구한다. 오늘날 다원주의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도 쓰이지만 사회학적 다원성과 혼돈해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변하는 사회 유형과 타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 계시의 객관적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어떤 종교적 전통이라 할지라도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의 접촉은 한 가지 영역에서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도 다양한 문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용

- 약력 :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학
• 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 실천운동 위원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답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다원주의자들은 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여러 종교는 각각의 특성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원 종교론자들은 태양이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듯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 사회가 그러하듯 군 내부에도 타종교인들이 있다. 군복음화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는 다원주의 종교신학을 극복해야 한다.

I. 기독교 선교신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의 종교다원주의

일찍이 1927년 파울 알트하우스(P. Althaus)는 앞으로 ‘종교들의 신학(Theologie der Religionen)’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¹⁾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타종교와의 만남 혹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는 선교현장에서, 알트하우스의 예견대로 실제로 비기독교인들의 종교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다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선교현장에서 내적으로는 온갖 기독교 이단 종파들과 그리고 외적으로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1) P. Althaus, "Mission und Religionsgeschichte", ZSTh 5(1927/28), 550-590; 722-736 (= Theologische Aufsätze I, 1929, 153-205).

심지어는 샤머니즘(shamanism)과의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선교현장에서 기독교 신학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신앙적 정체성을 증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대상자의 신앙과 종교의 특성에 대하여 청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선교현장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는 ‘종교신학’ 혹은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는 기독교 선교신학이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신학적 과제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다.

본래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을 대화의 무대에 올린 사람은 동방학과 이슬람학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종교학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이다. 그는 1963년에 출판한 「*New Approach to the Great Religious Traditions*」(거대한 종교적 전통에로의 새로운 접근)이란 책의 부제를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종교의 의미와 끝)”이라고 붙이고 있다.²⁾ 이러한 과제는 그 후 1970년부터 버밍햄 출신이며 은퇴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의 클레몬트에서 가르쳤던 종교철학자 존 힉(J. Hick, 1922-)에게로 넘어갔다.³⁾ 힉은 스미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슬라이어마허 신학 전통에도 서 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2) Wilfred Cantwell Smith, *New Approach to the Great Religious Traditions*, New York 1963. 우리 나라에서는 그의 책, *The Faith of Other Men*이 김승혜, 이기중에 의해서 「地球村의 信仰-타인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1989년 분도출판사에 의해서 번역 출판되었다.

3) 존 힉의 *The Second Christianity*는 김승철 교수에 의해서 「새로운 기독교」(도서출판 나단, 1991)란 책명으로 번역되었다(이하 「새로운 기독교」로 약칭함).

더 나아가 슬라이어마허의 신학 전통에 자신이 직접 접한 불교적인 영성과 자기 고향에서 경험한 다종교의 특성을 덧붙인다.⁴⁾

이에 상응하게 독일의 조직신학자 판넨베르크(W. Pannenberg)도 1987년 “Religion und Religionen(종교와 종교들)”⁵⁾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고대로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개념은 ‘종교’이었다고 역설한다. 그에 의하면 ‘종교’란, 인간이 외적인 그 어느 초월적 존재에 의한 종교 경험에서 유래한 인간의 신(神) 의식이외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자연과의 관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우월감 속에서 흄(David Hume), 슬라이어마허, 헤겔로 이어지는 기독교적 종교철학은 신 경험 내

4) 그 후 그는 그때까지의 ‘종교 신학적’ 속고를 종합하여 1986/87년 기포드 강연에서 소개하였다. 그 강연은 1989년 *An Interpretation of Religion: Human Responses to the Transcendent*란 이름 아래 출판되었다. 이 강연으로 인하여 존 흄은 일약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란 말의 창시자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종교다원주의’는 G. Kafmann, J. Hick, W. C. Smith, S. J. Samartha, R. Panikker, R. Panikkar, S. Yagi, R. Radford-Ruether, M. H. Suchocki, A. Pieris, P. Knitter, 그리고 T. E. Driver의 한 구분을 형성한다. 특히 존 흄의 ‘종교다원주의’는 Paul F. Knitter에 의해서 확산된다. Paul F. Knitter,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s the World Religions*, New York, 1985.

5) W. Pannenberg, “Religion und Religionen. Theologische Erwägungen zu den Prinzipien eines Dialoges mit den Weltreligionen”, in *Philosophie, Religion, Offenbarung* 1999, 145-159.

지 신 인식을 인간의 종교적 심리나 이성적 속고로 기술하고자 시도하였다고 한다. 예컨대 슬라이어마허는 자신의 「종교 담화」(1799)와 「신앙론」에서, 기독교는 단지 유한자(有限者) 안에 현존하는 지존자(至尊者)에 대한 인간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⁶⁾ 이러한 시도 때문에 다른 종교, 곧 자연 계시적 종교에 비하여 기독교만이 신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 내지 정신이 속고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 종교(absolute Religion)’라고 자처하게 되었다고 그는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우위 사상은 결국 인간 이성의 우상화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판넨베르크는 지적하고 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의 태도는 다른 종교를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선교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류로 생각하여,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같은 차원에서 종교적 혹은 인간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해한 종교는, 곧 한 분 초월자에 대한 인간들의 서로 다른 양태의 신앙적 표현양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⁷⁾ 왜냐하면 스미스는 1962년에 출간된 「*The Faith of Other Man*(다른 사람의 신앙)」이란 책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제 종교들 사이의 관계 규정을 위한

6) 그에 의하면, 신은 무공간적, 무시간적 통일성이며, 세계는 공간적, 시간적 복수성이라고 한다(Frank Thilly, *A History of Philosophy*, 3. ed. revised by Ledger Wood, New York, 김기찬 역, 「서양철학사」 현대지성사, 1998, 596).

7) 판넨베르크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본다. 이 점에 관하여 W. Pannenberg, “Das Christentum-eine Religion unter anderen?”, in *Philosophie, Religion, Offenbarung*, 1999, 174.

‘우주적 경험의 신학적’ 발단이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도 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축적된 종교적 전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낡은 자기 확증, 즉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 사건을 다른 종교에 대립시키고자 하였던 것은.....포기되어져야만 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비기독교적 종교를 인정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구원의 길로서 밟아야 한다.⁸⁾ 왜냐하면 기독교는 타종교와 더불어 하나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다원주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증은 마땅히 신학적으로 작업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⁹⁾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스미스는 개개의 종교사를 분리시켜서 관찰하지 않고, 오히려 개개의 종교사를 총체적으로 연관시켜 인간적 종교성으로 본다. 즉 제 종교 안에서 계시되고 있는 인간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술하는 보편사는 모두 신학의 내용적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스미스를 비롯한 학은, 모든 신학은 ‘포괄적 신학(global theology)’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¹⁰⁾ 스미스는 “세계신학(World-

8) W. C. Smith,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the Future of Missions”, in G. Johnston/W. Roth(ed.), *The Church in the Modern World: Essays in Honour of James Sutherland Thomson*, Toronto 1967, 160f.

9) 1986년 카우프만, 힉, 길케이, 스미스, 자마르타, 파니카아, 야기, 라드포드-류터, 수콕카, 피에리스, 크니터, 그리고 드라이버가 학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즉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몬트 대학원에 나타났다. 이들의 수정 보완된 연구보고서는 1987년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s*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0) L. Swidler(Hg.),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New York 1987; 그의 *After the Absolute: The Dialogical Future of Religious Reflection*, Philadelphia, 1990.

Theology)¹¹⁾을 선언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에서 소위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신(神) 개념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기독교 신학, 특히 복음주의 신학(Evangelical Theology)이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이라는 도전 앞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신학적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II장에서는 ‘종교다원주의’의 신(神) 개념에 대하여, 제III장에서는 ‘초월 신’ 개념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정치·사회적 봉사 구조로서의 윤리종교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의 방법론적 모순에 대하여, 제IV장에서는 계시개념과 종교개념을 종합하고 있는 판넬베르크의 계시개념, 즉 ‘다양한 신앙양식’으로서의 종교개념을 주장하면서도,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음해하고 있는 종교 윤리적 허구성에 대하여, 제V장에서는 제종교의 신앙양식이 다르지만, 동일한 초월자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리고 제VI장에서는 자기 정체성 없는 종교간 대화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종교 자체를 사멸시키려는 의도를 지적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발단된 기독교의 자기증언에 있으며, 이 자기증언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 기독교 선교신학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11) W. C. Smith, *Towards a World-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s*, Philadelphia, 1981.

II. 무인격적이고 사변적인 초월자로서의 신(神) 개념

존 힉은 자신의 책 「새로운 기독교」에서, 예수가 예배한 신(神)은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인격적 정신(精神)으로서의 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²⁾

그는 “인간의 정신이 원숭이와 고양이의 정신을 넘어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신의 지적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지고한 정신에 대한 사고가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다”고 말한다(48).¹³⁾ 그런데 그 ‘지고한 정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의 우주의식”, 혹은 “우주정신(cosmic mind)”(49)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에게 있어서 신은 ‘무시간적, 무공간적’ 존재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다.¹⁴⁾ 한마디로 말하면, 신은 “무한하고, 전지(全知)의 능력을 가진 정신이며,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며, 물질적 세계의 존재와 구조는 그 신의 창조성에 의존하는 것이다”(51).¹⁵⁾ 그래서 힉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정신’을 의식하고 삶 속에서 그를 실현한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자신의 삶으로

써 제시했던 새로운, 보다 좋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 가능성에 우리가 매혹되는 것—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주장한다(56).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는 초월자, 곧 신(神)에 대한 신앙도 “지식의 한 양태”에 불과하다(56).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초월자, 곧 ‘역동적 의지 혹은 힘’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 성경의 신은 ‘추론된 실체가 아닌, 경험된 현실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 경험의 배후에 있는 ‘순수한 정신형태’에 대한 지식이 바로 종교적 신앙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히브리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신의 절대적인 의(義)와 무한한 자비를 통찰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의 명령을 의식하게 되었(기)”(58)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힉은, 신앙도 감각적 지각이나 경험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라고 본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종교에 있어서 신앙이란 우리들이 자신의 생명을 신에 의해 창조 받은 것으로서 경험하는 해석적 활동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의 보이지 않는 임재 속에 살고 있다고 경험하는 해석적 활동이다”(62). 이러한 점에서 ‘신을 믿는다’는 말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어떤 ‘사실의 내용(matters of fact)’을 혹은 ‘존재하는 그 무엇(what there are)’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의식한다’, 혹은 우리의 초월적 경험을 ‘해석한다’라고 말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사실이 사리에 맞고 합리적일 때만이, 그 내용에 대한 신앙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상의 신 개념에 기초하여 힉이 이해한 기독교의 예수는 초월 신(神)에 대한 의식으로 장식되고, 신에 대한 의식으로

12) 「새로운 기독교」, 45 이하.

13) 「새로운 기독교」, 48(이하 본문의 괄호 속 숫자는 같은 책의 페이지를 뜻함).

14) 반면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로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스스로 역사적 시공간에 오신 분이며, 부활함으로써 역사적 시공간과 다른 별개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이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초월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15) 반면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역사 이전부터 계시된 분이지만, 동시에 친히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다(계 1:8, 15).

가득 채워졌던 분이다(69). 그래서 희은 ‘초월적 정신’으로서의 신(神)이 종교 경험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억제할 수 없는 종교적 경험에 근거하여 신을 믿는 것이 종교가 자신에게 있어서(나는 그 최상의 예증을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예수를 비롯하여 종교 경험을 한 사람들)는 신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신에 대한 의식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대상세계의 현실성에 감화되기 쉬운 의식의 소유자로서, 또 존재의식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의 건전한 의식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69).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종교 경험에 대한 증언이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험자의 자기 증언이 - 경험자가 보기에 -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광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그의 말을 빌리면, 정신병원의 환자가 자기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증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정신병동 환자의 증언은 여전히 광기로부터는 달리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70). 결국 희은,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 그 신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종교적 광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까지도 합리성을 가지지 않

을 때, 참 신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희은 교회와 성경의 무오류(無誤謬)설을 부인한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여 희이 이해한 성경은, 소위 역사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듯, 초대교회 공동체가 신 경험에 대한 인간의식을 모자이크식으로 편찬한 ‘문학작품’이다(77). 그래서 그는 성경의 증언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우리들은 그(성경의 증언) 중에 어느 언설이 예수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는 기록인가, 혹은 어느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술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 우리들이 성서에서 보고 듣고 있는 예수는 그를 따랐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과 이해 속에 새겨진 예수이고, 또 이것은 부활한 주(主)와 구세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교회의 신앙고백에 비추어 구성되어 있다”(78). 그래서 그는 성경의 영감(inspiration)을 “성경이 그 기자들의 종교적 신앙을 표출하고 있다”(78)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성경은 “의미 중립적 연대기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 해석된 역사”(78)라고 강조한다. 이때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신앙이 바로 성경의 영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자들의 응답에 의해서 신의 활동이 그 기자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희이 주장하는 신(神)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정신’이라는 무인격적이고 사변적인 초월자로서의 신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은, 신의 계시에 의한 신앙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감각적 혹은 정신적인 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 개념은 헤겔의 '절대정신(Absoluter Geist)'으로서의 신' 개념과 결코 멀지 않다. 혹은 헤겔의 '절대정신'을 단지 '세계 정신(World Mind)'으로 바꾸어 쓴 것에 불과하다.¹⁶⁾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의 신 개념에는 신의 인격성이 무시되며, 신의 인격성이 삭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행위 가운데 하나인 절대자, 곧 신에 대한 기도가 필요 없게 된다. 여기서 반론이 제기된다. 기도의 대상, 혹은 신앙의 대상,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식의 대상조차 없는 종교가 성립될 수 있을까?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 종교가 허구를 추구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회의 신 개념에 상응하게 판넨베르크도 기독교의 계시개념과 종교개념을 종합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스콜라 신학의 전통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III. 정치·사회적 봉사구조로서의 윤리종교와 행위를 통한 구원

16) 이러한 신 개념은 소급하면 헬라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 B.C. 610년경-545)의 '아페이론', 곧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것으로서, 시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 영원한 것으로서 어디에나 항상 있는 것'으로서의 신 개념에 상응한다. 이러한 신 개념은 아낙시만드로스 이래로 플라톤, 플로티누스, 에리우게나, 쿠사누스 그리고 헤겔로 이어지는 신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근원적인 일자(一者)에서 다자(多者)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다자는 이 일자에게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Johannes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강성위 역, 「서양철학사」 대구: 이문출판사 1983, 59를 보라.

판넨베르크는 1992년 발표한 "기독교 신학의 전망에서 본 종교들과 비기독교적 종교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기독교의 자기진술"¹⁷⁾이라는 논문에서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¹⁸⁾를 근거로 이방인, 즉 타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이 본문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36절,¹⁹⁾ 특히 산상 수훈(마 5:3 이하)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가 선포한 복음에 상응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자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종말론적 구원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앞에서 기술한 자기 주장에 거침돌이 되는 누가복음 12장 8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8절과 연관시켜서 '예수의 이름'을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꾸어 해석한다.²⁰⁾ 더 자세히 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름'의 주인공은 4장 10절에 의하

17) W. Pannenberg, "Die Religionen in der Perspektive Christlicher Theologie und die Selbstdarstellung des Christentums im Verhältnis zu den Nichtchristlichen Religionen", Th. Beitr. 23(1992), 305-316.

18)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개역개정).

19) 마태복음 25장 35-36절: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개역개정).

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그는 비판한다.²¹⁾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지배적이었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을 믿고, 교회의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교회에 의해서 주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구원을 제도화한 것에 대하여 판넨베르크는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 누가복음 13장 28절 이하를 근거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명제를 거부한다. 반면에 그는 마태복음 25장 31-40절을 근거로 “모든 민족들이”(마 25:32) 예수의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 모여들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토대로 그는 종말론적 심판의 기준은 바로 개개인의 ‘윤리적 삶’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20) 눅 12:8-9 :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행 4:12 :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 12:48 :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나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개역개정).

21) 판넨베르크는 베드로의 이 증언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고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선교를 열심히 하는 ‘선교의 종교’였다고 강조한다. 즉 기독교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후대에 와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 아들의 화육(化肉)을 기술했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귄, 곧 구원에 모든 인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의 의미심장한 구원의 역할을 유독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고로 기독교는 예수 이전의 그 어떠한 예언자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신앙에 초대되었다는 것이다.

전승된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독교, 곧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예수의 복음에 상응한다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그 근거로서 판넨베르크는, 예수와 그의 복음을 알건 모르건 가난한 사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가 축복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진술(눅 6:20-23 이하; 마 5:11)²³⁾을 제시한다.

22) W. Pannenberg, op. cit., 313.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축복은 하나님 백성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한 구원은 열어놓지 않았다’고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과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나, 예수와 그의 교회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기준(kriterium)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이다(313 이하). 결론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회의 주장은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의 복음에 의하면, 이튿날 그리스도인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몇몇 비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복음과 인격과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에 사실상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알아야 한다고(참고. 마 5:6-9), 그는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비록 비기독교적 종교들이, 기독교의 시각에서 볼 때 반드시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타종교에 속하는 약자(弱者), 가난한 자의(義)를 행하는 자들도 단지 그들의 종교적 소속 때문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23) 눅 6:20-23 이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개역개정).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판넨베르크는 예수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예수의 말씀 곧 율법으로 치환시켰다. 다시 말하면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모든 인간에게 선포한 복음의 윤리적 실천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예수’ 혹은 ‘예수의 이름’을, 그는 예수의 가르침,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의 복음 혹은 그 복음의 실행으로 바꾸어 해석함으로써 기독교, 더 자세히 말하면 종교개혁 신학의 독특성인 칭의론을 폐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단지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교훈의 선포자와 실천자로 규정해 버렸다. 이렇게 그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성례전의 필요성까지도 거부하였다.

결국 판넨베르크는 바르트가 그토록 극렬히 비판하였던 19세기 종교적 기독교 혹은 기독교적 종교로 다시금 복귀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비판해 왔던 학을 비롯한 종교철학자들의 주장을 결국 수렴하고 만다. 판넨베르크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사실상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아주 값싼, 아니 채수 없는 죽음이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그 자신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수없이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기독교 성경, 더 자세히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을 제외하면, 기독교 복음에서 무엇

이 남는가? 왜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몽학 선생의 전유물인 율법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IV. 자연신학에 기초한 계시개념과 종교개념의 종합

판넨베르크는 1987년 “Religion und Religionen(종교와 종교들)”²⁴⁾이란 논문에서 ‘종교개념’과 ‘계시개념’을 통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표상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시 없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교적 삶이나 문화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자신에 의한 지식, 곧 계시에 의한 지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인간의 신(神) 인식에 선행하는 신의 계시를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계시가 종교의 현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는 종교적 표상 그 자체이다.”²⁵⁾ 그래서 그는 바르트(K. Barth, 1886-1968)의 ‘종교비판’을 역비판하여, 계시가 오로지 종교적 의식이라는 형식(form) 그 자체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면, 그리고 계시에 대한 표상 그 자체가 곧 종교적 표상이라면, 많은 종교들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종교적 표상들의 종교개념이 계시개념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종교간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제종교의 근본 진리로 정착된 주장들

24) W. Pannenberg, “Religion und Religionen: Theologische Erwägungen zu den Prinzipien eines Dialoges mit den Weltreligionen”, in Philosophie, Religion, Offenbarung 1999, 145-159.

25) Ibid., 149.

은-곧 종교적 진리는-최초 신적 계시에 의해서 발단되었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계시개념’과 ‘종교개념’을 종합하는 근거로서 ‘자연계시’에 관한 성구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그는 우선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의 ‘자연계시’에 대한 말씀을 제시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그러한 신에 대한 지식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²⁶⁾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종교가 서로 다른 양태를 띠게 된 것은, 더 자세히 말하면 가나안 종교에서 ‘야웨’와 ‘바알’에 대한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병행되었던 것은, 그들의 서로 다른 인식의 양태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축복의 비를 내리는 분이 바알인 줄 알았다가, 그분이 바로 ‘야웨’ 하나님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바꾸어 말하면 유대교가 비를 내리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야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처럼, 신(神)이 비와 축복을 내리는 분이라는 의식에 있어서는 가나안의 ‘바알’ 종교나 셈족의 ‘야웨’ 종교나 동일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서로 다른 양태의 종교적 표상이 존재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3절에 고려해 볼 때, 인간들의 타락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는 해석한다.

이제 계시개념에 기초하여 판넨베르크는, 모든 종교의 신 인식은 영원한 진리에 대한 잠정적인 이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²⁷⁾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

26) Ibid., 150.

리들의 계시사건에 대한 인식 혹은 신학적 지식은 언제든지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계시의 영원한 진리가 현재로서는 아직 영원한 형식으로 인식될 수 없고 또 형성될 수 없다면……그것은 예수의 인격과 복음과 역사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해의 ‘잠정성’을 인정하고, 이를 ‘종교다원주의’의 전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종말론적으로 계시되었다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한편으로는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을 강조함으로써, 즉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배타적인 명제와,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 속에 관련되어 있다는 명제를 동시에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 진리 주장의 이러한 ‘배타성’과 ‘포용성’에 대한 기독교 자체의 자기이해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는 본다.

27) 고전 13:12 :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개역개정).

28) W. Pannenberg, “Die Religionen in der Perspektive Christlicher Theologie und die Selbstdarstellung des Christentums im Verhältnis zu den nichtchristlichen Religionen”, Th. Beitr. 23(1992), 316.

V. 한 분 초월적 신에 대한 서로 다른 신앙양식으로의 종교

이제 판넨베르크는 “제종교들은 각 종교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그리고 동일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상호 인정하고, 각자 자신의 종교를 하나의 동일한 인간성 주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양식으로 파악해야 한다”²⁹⁾는 것이다.³⁰⁾ 그래서 그는 종교간의 대화를 원칙적으로 기독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연합적(ecumenical) 대화와 구별한다. 왜냐하면 교회 연합적 대화에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신앙이라는 동일한 기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적 종교간 대화의 주제는 인간들의 현 존재를 능가하는 현실, 곧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적인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동의 주제는 서로 다양한 종교들에 의해서 적잖이 달리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놀라운 것은 매우 다양한 신앙양식에도 불구하고 제종교들 사이에 ‘신은 초월적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간 대화는 일차적으로는 종교간의 상이함과 상호 대립뿐만 아니라, 상호 공통성을 들추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참된

29) Ibid., 306.

30) 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진술 S. M. Heim, *Is Christ the Only Way? Christian Faith in a Pluralistic Theory of Salvation*, New York, 1989; C. E. Braaten, *No Other Gospel! Christianity Among World Religions*, Minneapolis, 1992.

종교간 대화를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자기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의 자기이해는, 기독교가 신앙하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상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 인식은 근본적으로 유대교의 하나님 인식이 변천된 것임을 주지시킨다. 즉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새롭게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변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우선 구약성경은 ‘야훼’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리고 다른 잡신들을 능가하는(시 96:5, 참고 대상 16:26)³¹⁾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게 주전 6세기 예언자 전승에 의하면, 잡신숭배(사 41:23 이하, 44:6-20) 및 우상숭배(사 44:9)가 엄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 유대교의 종교비판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의 힘, 혹은 하늘의 별과 같은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의 최고 ‘실체형태’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피조물의 힘 혹은 작용(wirkung)과 신적인 원인(ursache)을 동일시하였다는 것이다. 신약시대의 바울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였지만(롬 1:25, 1:23),³²⁾ 사실은

31) 시 96:5 :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개역개정. 병행. 대상 16:26)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시 96:4, 개역개정)에 덧붙여지고 있는 말씀임을 판넨베르크는 주지시키고 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한 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신성(神性)을 잘 알고 있다(롬 1:20)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³³⁾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바울이 이테네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신”(행 17:23)에 대한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구약성경의 창조주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시인 아라토스(Aratos)가 ‘제우스(Zeus)’를 가리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행 17:28)라고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행 17:28)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결국 판넨베르크는 “그리스 사람들의 제우스 숭배는, 그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유대교의 한 분 하나님과 참으로 일치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참되신 한 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³⁴⁾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종교들은 초월적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매개체와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기독교 신학이, “다른 문화영역과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적 표상과 행동방식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바로 그와 동일한 현실(wirklichkeit), 곧 동일한 신과 관계하고 있다”³⁵⁾고 인정해야

32) 롬 1:25 :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23 :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개역개정).

33) 그러나 이 말씀은 롬 1:23의 전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34) W. Pannenberg, op. cit., 308.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신적 현실이 모든 종교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숭배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신적 현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한 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들은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간의 대화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로 뒷받침하고 있다.³⁵⁾

유대교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신앙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러나 유대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는 유대교의 전승에 의한 하나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인간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을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35) Ibid., 309.

36) 그러나 단지 실천적인 면에서의 타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학자로서 우리는 한스 쾅(Hans Küng), 몰트만(J. Moltmann), 슈베벨(Ch. Schwobel)을 들 수 있을 것이다. H. Küng, "Projekt Weltethos", 1990: "im Ethos sind sich die Weltreligionen nun einmal näher als in 'Dogma'"(16); J. Moltmann, "Dienst die 'pluralistische Theologie' dem Dialog der Welt-Religionen?"(EvTh 49, 1989, 528-536), 535f.; Ch. Schwobel, "Particularity, Universality, and the Religions", in D'Costa [Hg.], Christian Uniqueness Reconsidered, 30-46, 45; G. D'Costa, "Christ, the Trinity, and Religious Plurality", in Ders., [Hg.], Christian Uniqueness Reconsidered, *The Myth of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s*, New York, 1990, 20-29.

비록 기독교가 삼위일체의 교리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결정적으로 단정하지만 유대교는 한 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본질로서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예수와 유대교의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의 삼위일체 신앙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 분 하나님이 인간 예수 안에서 결정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 전승에서 서로 다르게 답변되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한 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를 기독교는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이해 그 자체로 수용하였고,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 형식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피안적 현실인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의 주권과 그의 진리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초월적인 한 분 하나님의 계시 문제에 있어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계시의 매개체 내지 중재자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판넨베르크는 말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은 한 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있다"³⁷⁾고 보고, 계시의 중요성은 곧 하나님 이해 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 계시 대항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대립의 뿌리가 있다고 그는 본다.

37) W. Pannenberg, op. cit., 310.

VI. 자기 정체성 없는 종교간 대화가 가능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핵심된 신학적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첫째로 신 개념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는 ‘초월적 한 분 하나님’ 개념을 전제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은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상은 ‘무인격적이고 비역사적 사변적인 초월자로서의 신(神)’ 개념을 전제한다. 둘째로 ‘종교다원주의’는 한 분 하나님의 서로 다른 다양한 계시양식, 계시의 대행자(agent), 혹은 계시 그 자체를 인정한다. 그리고 셋째로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율법 준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윤리적 선행을 주장한다. 넷째로 ‘종교다원주의’는 신의 본질 혹은 정체성(identity)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 및 사상의 ‘상대적 대등가치(ambivalence)’를 전제하고 있다. 여섯째로, ‘종교다원주의’는 사실상 선교를 무효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특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를 추상적인 신 중심의 종교학으로 전환시켜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특성은 결과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비인격적, 비역사적 그리고 정체성 없는 사변적 신으로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의 신 개념은 사실상은 무인격적이고 사변적인 초월자로서의 신(神) 개념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고 속성도 없는 신은 허구의 신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 최고 신 개념을 전제하고 그 개념 아래서 제종교를 한 분 하나

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신앙양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종교다원주의’는 자연계시를 주장함으로써 피조물의 속성을 신의 속성으로 고양시키고 말았다. 이 점에 있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전혀 속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인격적 신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종교행위, 예컨대 ‘기도’, ‘예배’, ‘성만찬’ 등을 무효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편을 인간의 선행으로 규정함으로써, 역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규범이 없는, 막연한 ‘인간에’에 기초한 비윤리적 종교로 기존의 종교를 타락시키고 있다. 인격신 개념을 배제하는 것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행위인 ‘기도’를 무효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무효하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종교적 자기 의식화’ 혹은 ‘종교적 의식의 우상화’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종교의 신앙을 상대화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행위, 곧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무효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다른 종교와 대화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특성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느 종교의 교리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기독교가 억지로 주장하는 배타적 독단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의해서 경험된 역사적 증언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윤리만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제종교들과 기독교의 정체성은 결

코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다. 각 종교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이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또 포기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제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부활신앙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지 한순간 역사 속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된 분으로서 역사의 한순간에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사 44:6; 계 1:17 이하).

윤리적인 측면에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사상의 ‘상대적 대등가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교의 몰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절대적으로 상대화시킴으로써, 각 종교가 역사적으로 전승해 온 고유한 신앙을 말살하고 모든 종교를 획일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참된 것과 거짓 된 것에 대한 분별력을 망각시키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의 절대적 상대주의는 참되고 절대적인 종교적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의의 능력, 곧 순교적 신앙의 순수성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사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면,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공산주의나, 유일신 사상에 기초한 절대적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 혹은 인간 이성애 의한 자기성찰을 중시하는 불교,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 심지어는 통속적인 샤머니즘까지 모두 동일시됨으로써, 종교간의 충돌과 배타성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종교의 신앙적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야기되는 종교적 가치관의 몰락과 참된 진리를 위한 열정의 상실, 아노미(anomie)적 사회현상, 곧

폭력과 쾌락, 섹스, 금권주의 문화 등의 사회적 병폐를 어떠한 종교적 규범에 기초하여 제어하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절대적 상대주의를 전제할 경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적 독재주의나,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할 경우,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북한의 김정일 공산주의적 독재체제나, 남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일 군인이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지면서도까지 국가와 부모형제를 위해서 싸우겠는가?

맺는 말

오늘날 우리 지역 안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자들이 있다. 이들은 다원사회에서 종교도 다원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따라 다원화된 종교사역의 대상이다. 이 같은 종교다원화 현상 속에 처해 있다 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19세기 성경 비평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에서 기인한다. 이들에 의하면 현재의 기독교는 서구문화의 부산물이며 아울러 성경도 인간 이성애 의해 심판 받아야 할 문학서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본문(text) 보다는 상황(context)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대

와 상황에 따라 신앙과 신학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기독교의 절대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교회는 작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원주의자들의 사상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사실 기독교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독교를 탄생케 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즉 예수가 하나님과 구주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기독교론 부재의 신학을 말한다. 19세기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수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였는데 20세기 다원주의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와 로고스의 존재를 인정하여 신앙의 혼란은 물론 상대주의에 빠지게 했다(요일 4:1-6).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구원 개념과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초자연적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영과 육이 부활하여 새 하늘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종교는 자기를 두 번 부정하는(double negation),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그것은 어떤 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회교의 천국은 남성들이 특권을 누리는 인종 차별의 구원관이다. 따라서 다원주의가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관과 다르며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사회정의와 인간화를 종교의 주요 목표로 말하는 다원주의자들이 비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인간화, 미개발, 비민주정을 외면하는 오류를 범하는 한편 전통적인 기독교의 오

류와 문제를 지적하는 일에 급급해하고 있다. 그리고 다원주의와 진보적 신학에는 완전히 겸손이 있다는 소위 정통실천(orthopraxis)을 자랑한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막스 베버가 지적한 것과 같이 아시아 종교의 구원론 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소수 독점이어서 정치의 비민주성과 경제의 비합리성을 초래하였다는 종교의 사회학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기독교는 영적 다이내믹을 상실하며 나아가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토렛 교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기독교도 수세기를 통하여 스스로 재생산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필슨은 초대 교회의 이교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대 교회는 철학과 종교의 격동기에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은 거짓교사를 정죄했고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으로 이교적 혼합주의와 이방신을 떠나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 군내에 있는 종교 다원화 현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을까? 타종교를 복음의 전제(pre-evangelism)로 보자는 것이다. 불교가 질문한 문제를 기독교가 대답한다는 것이다. 가령 기원 문제를 놓고 볼 때 불교는 기원에 대한 이론이 없다. 이에 반해 기독교의 창조론은 불교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타종교 문화의 특성에 복음을 접목시키는 방법은 군 전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먼저 공통분모(common ground)를 찾아야 한다.

㉗ 우리는 자율적 존재가 아닌 타율적 존재 즉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㉘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㉙ 그러므로 구원주가 필요하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

이렇게 하려면 ㉚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복음의 상대화나 변질된 복음이 대화를 위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비성경적 사고다. ㉛ 우리는 겸손과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확신과 겸손은 함께 와야 한다. 우월감이나 경쟁심은 복음 전도에서는 금물이다. 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구력을 갖고 진리를 보여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㉝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타인의 심금에 닿는 진실되고 정직한 말과 행위가 대화의 문을 연다. ㉞ 우리는 분명한 표현력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㉟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㊱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듯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비전2020운동은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절대절명의 운동이다. 이 운동의 최일선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군 선교의 사도로서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올해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종윤 목사

기독교 신학은 교회의 필요를 섬긴다. 교회를 위한 신학은 두 개의 기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즉 크리스천 메시지의 진리를 규명하는 것과 그 진리를 시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은 두 기둥 즉, 영원한 진리와 임시적인 상황의 두 축 사이를 왕래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어느 한쪽을 희생하지 않고 다른 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들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고도 한다.

- 약력 :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학
• 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실천운동 위원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유럽에서 흔히 말하는 정통신학, 북미에서는 근본주의로 잘 알려진 신학적 입장과 오늘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현대신학 사이의 갈등 구조를 여기서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군인이라는 특수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신학적 해답을 찾아 풀어 주고 복음진리를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 좀더 효과적인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방법론적으로 해석한다. 철학과 신학은 둘 다 존재의 문제를 묻는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묻는다. 철학은 존재의 구조를 묻는다면 신학은 의미를 묻는다. 그래서 철학자와 신학하는 이의 첫번째 차이는 인식태도의 차이이다. 신학하는 이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I. 신학은 경건에서 시작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신학은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학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요 믿고 출발하는 것이 신학이다. 신구약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의 전제로 받고 시작하는 것이 신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요 그 믿음을 방어하고 변증하는 것이 신학이다.

안셀름(Anselm, 1033-1109)은 그의 프롤로그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신학사상을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은 기도하는 신학이었다. 이 말은 경건 없이는 신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신학은 하나님 면전에서 즉 경건에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일반 철학과 다른 것이다. 경건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아니다. 이 진리를 계시하신 하나님께 영혼의 모든 기능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다루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지혜이다.

신학과 철학은 그들의 근원(source)이 또한 다르다. 철학은 이성(reason)을 통한 실재를 찾지만 신학은 육신이 되신 로고스를 찾는다.

신학과 철학은 그 내용 또한 다르다. 그들은 같은 대상을 말하나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하나님과 신적 사실들에 관한 학문, 혹은 하나님과 그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어거스틴은 신학을 '신격에 관한 합리적 논의'라 했고 종교개혁기의 루터파와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혹은 학문'이라 했다. 종합해서 말하면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우주와의 관계를 말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 즉 창조섭리, 구속과 같은 진리를 다루게 된다. 우리가 신학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은 신학을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 진리와 절연시키고 주관적 종교경험에 치중케 하려는 것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는 계시에서 오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알리시는 매체가

다. 그러므로 계시된 하나님 지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통찰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신학은 계시된 대로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구하며 그 다양한 논구들을 활용하고 소화하고 통일하고 또한 그것들을 인간의식에 만족한 형식으로 형성한다. 군진신학은 군인사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며 인간과 역사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II. 신학은 하나님의 사건화를 일으킨다

신학은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현실을 직접 보고 증언하고 실천해야 하는 학문이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난다.

- (1) 초월성의 현실화(transcendence)의 사건이고
- (2) 낮아짐의 구체화(condescendence)로서의 성육화 사건이다.

중세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교권적 구조에 종속시킴으로 제한했다. 반면에 오늘의 교회는 현대의 합리적 정신성에 따라 말씀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수의 신학도들은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신뢰치 못하고 신학적, 목회적 절망을 느끼면서 신학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건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역사적 삶의 자리에서 고통 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연대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함으로 허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교회와 사회, 문화의 관계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이는 대로 전자의 부정적 측면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신비주의가 양산되었고 후자의 부정적 측면으로 말미암아 해방신학, 민중신학, 계급투쟁과 같은 시대정신이 산출된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 신학도는 다시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사건(요 1:14) 앞에 새롭게 서야 할 것이다. 말씀의 사건화를 거절하면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말씀이 고통받는 낮아짐의 자리에 성육신하는 것을 거절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교회사의 교훈이다. 따라서 군진신학은 말씀 사건(sprachereignis)을 찾아 말씀 중심의 신학을 세우면서 성육신 사건 속에서 삶의 본을 찾아야 한다.

III. 군진 신학의 자리 매김

① 상황 신학적(Kontextuelle Theologie) 이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복음과 문화 또는 복음과 상황이라는 주제는 신학을 천상의 독백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언제나 있어왔던 주제이다. 복음과 문화 내지 복음과 상황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조명은 다양한 시도로 나타났다. 해방신학, 여성신학, 아시아 신학 등으로 명명되어진 시도들이 그것이다. 상황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은 복음과 문화라는 주제이다.

상황신학이 무엇인지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르고 개념정리

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는 몇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한다. 첫째, 상황신학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생성, 발전되어지는 신학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군진신학의 자리 매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황신학은 신학 전반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어떤 신학도 그 신학이 생성되고 발전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신학은 스스로 인정하든 말든 상황신학이다.

군인사회 또는 군인 문화라는 특수한 문화권이 갖는 복음의 이해는 일반사회 또는 청년문화와도 또 다른 상황이다. 신약성경 안에서 같은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과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마가복음의 용어가 다르고 표현방식이 다르듯 상황에 따라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방법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가령 루터는 복음을 율법의 상대개념으로 이해한 반면 뮌처 같은 죄과 종교개혁자들은 윤리적, 정치적 의미의 복음을 강조했다. 사회적 복음에 대한 강조는 19세기 신학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상황신학에서 복음 내지 복음의 토착화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진다. 상황신학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스스로를 알리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스스로를 상황화시켰다. 이러한 하나님의 상황화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리고자 원하는 오늘날의 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학자들에 의하여 계속되어져야 한다. 상황화의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각자 주어진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복음과 문화라는 주제를 다름에 있어 복음과 문화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연구한 다음 그것을 종합하는 것인지 혹은 언제나 동시적으로 고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다.

군진신학이란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을 가진 이들이 자기가 처한 진중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신학적 해석과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문화와 복음을 별개로 연구하거나 그것이 함께 역동적으로 발산하는 문화를 신학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 문제, 국가관, 또는 애국심, 전쟁에 대한 해석, 인권문제, 이성문제, 불안 공포문제, 리더십 등 군인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1978년 로잔 위원회가 내놓은 「월로우뱅크보고서」에서는 회심이 회심자를 비문화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화를 하는 사람은 혼합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상황화를 만능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런 방법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죄악된 세상과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중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화의 한계도 알아야 한다.

② 선교 신학적 이해

군선교는 아주 특별한 선교이다. 대상적인 면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라는 점, 기능적인 면에서 순환 조직 사회라는 점, 동원적인 면에서 지휘관의 명령으로 일시에 다수가

모일 수 있다는 점, 심리적인 면에서 고향을 떠나 불안 긴장 속에서 복음 수용이 용이한 점, 안보적인 면에서 내세관을 심어주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군대를 육성한다는 점, 교회 선교 면에서 연 22만 명 이상 수세자를 만들어 민족 복음화의 기틀을 만든다는 점, 파급적인 면에서 민족 75%를 신자화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 경제적인 면에서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본다는 점, 시간적인 면에서 국가가 존립하는 한 군선교는 함께한다는 점, 연합적인 면에서 모범적 교회 연합운동의 사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군선교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수 선교를 위한 전략 개발, 양육 개발, 인력 개발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학의 뒷받침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따라서 신학 위원회는 선교 신학적 접근을 통해 군선교에 박차를 더할 것이다.

맺는 말

기독교 신학은 처음부터 그 출발점을 신앙에 두었다. 3세기의 터툴리안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했다. 11세기의 안셀름은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믿나이다”라고 기도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성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신앙을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이 신앙은 다만 신적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며 성령에 의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신학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학하는 사람들은 신적 사실들을 확인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인 성경 진리에 의존할 뿐 아니라 이 계시 진리에 근거한 교회의 신앙 내용을 해명하고 가르친다. 신학이 다루는 계시 진리는 신학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단체인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신학하는 사람은 계시 진리를 가르치며 교회의 신앙 입장을 존중하며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 교회가 있는 곳에 신학이 있고 바른 신학교육이 있는 곳에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이 있고 교회의 성장과 영적 발전이 수반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 내에 군종목사 제도가 창설되고 이를 후원하는 군선교연합회가 조직된 지 30년이 되어서야 군선교신학 위원회가 조직, 출범케 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의 감이 있으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 되듯 오늘부터라도 군진신학의 출발 신호탄이 쏘아짐으로 군선교의 목표가 되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군선교 신학의 정립



정성구 목사

들어가는 말

금년은 한국교회가 군대에 공식적으로 종군목사를 파송한 지 만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군선교 50년의 공과를 회고하고 새로운 군선교 상황에서 전군 신자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많은 군중활동을 통해서 한국군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과 국민정신의 계몽에 미친 영향은 참

- 약력 : • 화이트필드신학교 철학박사
•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대신대학교 총장

으로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성장 요인에는 군중 활동이 큰 몫을 감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군 신자화 운동이나 진중 합동세례식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군중 활동은 한국 교회 성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공헌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군진신학이니 국방신학이니 하는 신학적 모색이 있었습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공동체의 환경적 조건과 신학의 입장을 달리하는 12교단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어떤 교리에 입각한 신학체계를 세울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분명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 진행되는 군선교는 그 특정한 상황 때문에 특수한 면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군선교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21세기 군선교 신학을 수립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이 말하는 군선교의 신학적 정립을 위한 제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선교 신학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선교의 주체가 되는 교회의 환경과 선교의 대상이 되는 군대의 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환경과 군대의 환경을 동시에 분석하고 그에 적절한 대안과 전망을 세워 볼 것입니다.

I. 21세기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현실

1) 21세기 한국사회의 모습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해방사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21세기를 인간해방의 완성 세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의 해방, 독재자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과연 21세기는 모든 인류가 고르게 복지를 누리며 자유를 가지는 행복의 세기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을 때 결코 미래를 단순히 밝게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개발과 최첨단 무기의 개발로 인해 인류가 자멸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는 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와 불안의 세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1세기는 인간해방 완성의 세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인류 멸망의 세기, 인류 문명사의 마지막 세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함께 존재하는 시대, 그것이 21세기가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세계는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로서 지속적인 인구폭발과 이에 수반된 제3세계 문제의 심화, 자원의 고갈 및 지구환경의 악화, 경제의 위기 및 국제 협력의 문제 등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21세기의 인구구조는 노인인구의 증가, 생산연령층의 증가 및 학령인구의 감소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고 여성고용과 여성정책의 변화로서, 한국여성의 고용비율은 1989년 41%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현재는 서구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며 단일가구-두 직장의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주5일제 근무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의 취업형태가 보급되고 있으며 노동과 기타활동의 구별이 불분명하게 되는 등 생활 패턴의 다양화가 가일층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사회복지요구와 환경문제, 식량자원, 에너지 등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통일이라는 변수에 의해 한국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위기는 한국사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다가오는 것이 명확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위기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 다종교 사회에서 도전 받는 기독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역사상 초유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5%인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기록은 대형교회 50교회 중 약 50%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97년 4월 19일 육군훈련소에서 7,200명에게 수세함으로 한국 군중활동 역사상 단회 최다세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특정교회를 향한 수평이동이라는 현상과 불신자 전도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성장의 정체현상이 199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 부재와 교인들의 미성숙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어지고 있고,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만한 기독교문화의 창달이 미흡하여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배후에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다원주의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신학은 인본주의(人本主義 Humanism)와 세속주의(世俗主義 Secularism), 그리고 혼합주의(混合主義 Synchronism)의 영향으로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주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복음만이 인생을 살릴 길이기 때문에 복음전도의 황금어장인 군대를 전초기지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중전도도 학원전도도 산업전도도 한계에 이르렀고, 교회성장과 전도대안 부재의 시대에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군선교밖에 없음을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까지 선교는 복음적인 선교관과 자유주의 선교관의 큰 두 줄기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 양 진영의 선교관은 성경(Text)과 상황(Context)의 강조점의 위치에 따라 특징지어집니다. 복음적인 선교관은 성경(Text)에 강조점을 두면서 전도명령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선교관은

성경(Text)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문제삼기보다 상황(Context)이 어떤가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신학함의 틀로 삼기 때문에 신학과 선교 모두를 종교현상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좋지만 실제의 내용은 하나님 보다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권회복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회복 운동도 필요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참 인간 되게 하는 복음운동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선교는 영웅적인 신앙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에 대한 절박한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화 운동과 선교운동은 잘못된 선교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올바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무오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학과 선교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II. 군선교 환경의 변화

1) 한국 군대의 변화

우리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볼 때 21세기의 한국군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목단이 공동 집필했던 '21세기 군선교 정책'에 보면, "한국군은 장비의 경량화 및 기동화, 간부중심의 인적구조개편, 동원체제의 강화 등이 전망되며, 병력의 감소와 군복무기간의 단축이 거의 필연적이다. 통일 여부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21세기의 한국군의 큰 변화 양상은 소수정예 그것도 사병보다는 하사관과 장교집단이 주축이 되는 간부 중심의 인적구조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사병들의 복무기간도 현재 26개월보다 훨씬 단축될 것이며 국민개병제의 틀은 유지하되 간부 중심의 직업군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결프전이나 코소보전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현대전은 공중전이고 하이테크전이므로 이제 육군 중심 구조에서 공군, 해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런 변화 속에서 현재의 육군 중심의 군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2) 군선교 환경의 특수성

군선교는 이런 군대의 변화뿐 아니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군대 사회만이 지닌 독특성을 지적한다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군대사회는 의무에 의하여 형성된 집단입니다.

만 20세가 된 남자로서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갖춘 청년이면 누구나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군대 사회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터전으로,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 들어오는 많은 젊은이들은 한 번도 종교 문제를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신앙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직자들과 가까이 접해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군중 활동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인격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없이 지내오다가 군대 안에서 군중 장교를 만남으로 그 신앙이 받아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군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폭넓은 선교전략이 요청됩니다.

② 군대사회는 엄격한 계급사회입니다.

계급과 지위 등의 많은 제약과 특수성이 있지만 그것들을 초월한 기독교적 사랑과 우애로 조화되는 공동체의 형성과 군인들 사이에 진정한 우애와 존경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군선교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③ 군대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절대성을 띤 명령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묵살되는 경우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군대사회에 적응하는 데 따르는 위기위식이 있습니다.

군생활이 일반 사병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변화 중에서 위기의식은 복음전달의 차원에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익숙했던 일상생활을 떠나 환경이 다른 병영생활에서 느끼는 일

중의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환경변화는 복음 전달이 용이한 심리적인 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군생활은 생활환경의 급변과 그 같은 변화가 조성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위기의식을 생성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받게 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계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군대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억압을 당하고 고독, 소외 등 현대사회 속의 실존하는 인간 자아의 모습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경험되는 곳 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비인간화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군대라는 특수 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인간화의 요소들과 군인들이 직면한 계반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사고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전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III.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군대 및 군선교의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군선교 신학의 필요성과 성경이 말하는 선교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모색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군선교 신학의 필요성

일찍이 화란의 선교신학자인 바빙크(J. H. Bavinck) 박사는 말하기를 “신학이 없이는 선교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적으

로 불가능하다. 신학은 모든 선교활동의 영원한 동료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학이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야 한다는 뚜렷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교활동이 언제나 신학적인 견해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선교활동은 마치 겉모양으로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선교사는 무의식중에 신학적 결정을 내리고 배후에 감추어진 신학사상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 자신은 선교지에서의 모든 자세나 접근 방법, 전도 방법 등이 어떠한 신학적인 확신에 있는지 인식치 못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신학은 확실히 그의 선교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학과 선교는 같은 맥락에 있으며 동전의 안과 밖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의 바탕 위에 참된 선교도 기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의 바탕 위에 있으면 바른 선교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교회가 군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참된 신학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신학의 입장을 달리하는 각 교단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어떤 교리에 입각한 신학체계를 세울 수는 없었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성경이 말하는 군선교 신학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성경이 말하는 군선교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특징을 살펴보고 군선교 신학의 기초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 선교란 말보다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란 말보다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선교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선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요즈음은 전도라는 말 대신에 선교란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이퍼(R. B. Kuiper) 박사는 그의 「하나님 중심 전도학」에서 선교와 전도는 그 정신에 있어서 똑같다고 말하고, 전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선교는 언어와 민족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한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전도와 선교가 같을지라도 그 범위와 개념에서는 물론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군전도’라는 용어보다 ‘군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군대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일컬어 수십 년 동안 군선교로 이미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자 합니다.

선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보내는 이’, ‘보냄을 받은 자’, ‘보내지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보내는 이’라 함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선교사입니다. 군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는 군목이요, 평신도 선교사로 이미 세례 받고 군 입대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지는 상대방’은 선교의 대상자로서 천하만민과 모든 족속으로 특히 군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대상자는 모든 군인들과 군대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교회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리

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군선교는 군대의 어떤 정책이 아닙니다. 군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자기 열정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교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시편 67장 1-7절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교회의 세계적 복음선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그의 선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 안일과 안주에 빠져있을 때 이 시인은 메시아 구원 운동의 의미와 선교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① 선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선교의 문제는 ‘보낸다’는 동사적 정의만 붙들고 선교하는 행위 자체만을 귀히 여기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주의 도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셀라)”(시 67:1)라고 했습니다. 선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이 복음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운동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참된 선교의 불은 붙습니다.

물론 선교에는 정책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선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정책이나 전략만 가지고 선교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선교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심령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만방에 이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증거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근거가 되어서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일선 군목들이나 모든 교회지도자들이 선교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신앙을 가질 때에 뜨거운 가슴으로 군복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② 선교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 책임과 소명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는 방법은 증거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만민에 대한 제사장 격으로 말합니다. 이제 시인은 ‘주의 도(The way)를 땅 위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도는 곧 하나님의 길, 방법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운동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곧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법, 말씀의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선교는 바로 말씀운동이어야 합니다.

③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입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구원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나이다”(은 2:9)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④ 선교는 민족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곧 구원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가 바로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들을 통해서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국, 남미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높은

직위의 사람이나 평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군의 장교인 고넬료들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장병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기에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3)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모색

우리는 군선교 신학의 핵심을 다음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영혼 구령은 군선교의 목표(행 16:16)

흔히들 군대 사회를 특수 사회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그 정황에 알맞은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군진신학이니 국방신학이니 하는 신학적 모색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군중 활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16)라는 말씀처럼 군선교는 개인뿐 아니라 군 전체를 복음화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군선교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군선교의 목표는 60만 국군에게 복음을 전하여 궁극적으로 전 군복음화를 이루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선교는 무엇보다 군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회심과 신자화가 우선적인 과제가 됩니다.

군선교에 종사하거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자화할 수 있는가의 비전과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 진행되는 군선교는 그 특정한 상황 때문에 특수한 면을 지

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 군선교의 목표를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성장 신학자인 도날드 맥가브란 박사는 그의 책 「교회성장 이해」에서 파종의 신학(씨뿌림의 신학)과 추수의 신학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군중 활동이야말로 복음의 파종과 추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 들어오는 많은 젊은이들은 한 번도 종교 문제를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신앙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직자들과 가까이 접해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군중 활동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인격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군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것은 군대 안에서 혹은 후일에 자기의 일터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즉 이는 최근 교회에서 벌이는 태신자 운동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 없이 지내오다가 군대 안에서 군중 장교를 만남으로 그 신앙이 발아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를 파종이라 본다면 후자는 추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군선교는 교회의 사명(막 16:15)

선교신학자들 중에는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선교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4복음서는 모두가 선교의 대명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군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학원선교, 산업선교는 갈수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군복음화, 곧 군선교는 선교의 최후의 보루로서 교회가 힘써야 할 교회의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지금까지 군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 중심의 선교의 방향이 계속되어져야 하며 특히 군선교연합회의 주요사역인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에서는 한국교회 가운데 군인신자 연결교회(1999년 7월 현재 약 1,000여 교회)와 연계하여 군 제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군선교도 교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군선교는 몇몇 관심 있고 뜻있는 교회만이 동참했을 뿐이고 전 교회적, 전 교단적 관심이 군선교에 없었습니다. 청년의 영혼을 깨워서 미래의 한국교회의 일꾼을 만들려는 비전이 있는 교회라면 해외선교도 필요하지만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하는 군선교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군선교(롬 1:17, 고전 10:31)

바빙크(J. H. Bavinck)가 말한 대로 “선교사역은 죄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와 그가 처한

모든 관계가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져야” 합니다. 성경의 구원 개념과 하나님의 영광 개념은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인간의 복지나 사회생활을 안정시키거나 정치적 안정이 일차적 목표가 아니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선교도 많은 목표가 있지만 무엇보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대개 구원론에 기초한 교회들입니다. 물론 구원론은 기독교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운동은 하나님의 영광(롬 11:36; 고전 10:31)에 기초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군선교를 지향할 때 단순히 청년들의 영혼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구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 없이 구원 없지만 그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화롭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교육과 목회를 통한 군선교(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이 본문은 흔히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항상 인용하는 성경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른바 ‘선교의 대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복합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명령(Mission Mandate)과 교육의 명령(Educational Mandate)과 목회적 명령(Ministry Mandate)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군선교는 선교적 명령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교육의 명령과 목회적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명령과 목회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21세기 군선교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은 교육과 목회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군목과 기존 신자 군인들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① 군목의 교육

군목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의 소명감입니다. 군목은 군인이지만 교단에 소속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의식하고 영혼 사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대는 전도의 최후의 보루로서 군목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소명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명감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경건한 생활은 목회자의 자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군목도 역시 군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므로 목회는 말 그대로 영혼을 돌보는 일(Zielzorg)로서, 목회자로서 군목은 언제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군목은 계급을 어깨에 달고 있는 장교로서 계급의 권위보다는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사에게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설교입니다. 설교는 목사만이 지니는 생명력으로 인식하고 군목도 설교에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군인들의 정신무장 강화나 사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설교이고 간증은 간증이며, 인격훈화는 인격훈화입니다.

요한 칼빈은 설교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선택된 전권대사’라고 하였고,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자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는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헌신된 자이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진리에 입술이 대인자들입니다. 설교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표현처럼 불타는 논리(logics in fire)이며, 존 스토틀의 말처럼 두 세계 사이(Between Two Worlds)를 연결할 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② 입대자 교육과 파송

군에 입대하는 교회 청년들을 선교요원으로 기동화시키는 방안을 교회가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반적 경향은 어떻게 하면 좋은 보직이나 편한 자리에 있다가 무사히 병역을 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 면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같은 안일하고 이기적인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입대하는 교회 청년들의 신앙심을 일깨워 주며

그들에게 선교의 책임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선교훈련을 통한 선교의 전위대로 활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릭 크레머가 그의 책 「평신도 신학」에서 말한 대로 모든 평신도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즉 교회 청년들로 하여금 군대로 보내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인식과 아울러 이에 준하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휘관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할 뿐 아니라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원리 가운데 군선교에서도 동료들에 의한 일상적 전도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대하는 기독교 청년의 선교요원화는 매우 시급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23세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에 임하는 것은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뿐 아니라 군이라는 사회로 파송받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인식과 아울러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해 각 교회뿐 아니라 군선교위원회에서는 이런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를 위한 전문적인 제자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 신자 25만 명을 군선교 회원 및 일반 교회로 연결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3,700만 명(전국민의 75%) 정도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2020 운동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성취를 위해 남은 과제 역시 많이 있겠지만 결국 군인교회와 군선교회원 교회와 일반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야 군선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5)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통한 하나님 중심의 군선교(롬 11:36)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등이 전제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 특히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사상의 구조를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 또는 기독교 삶의 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사상의 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체계가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변형시켜 버린 변질된 사상입니다. 만물이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간다는 사상의 구조가 유물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면, 만물이 사람에게 나와서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자본에서 나와서 자본으로 말미암고 자본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은 자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의 골격에서 이해한다면, 인본주의 곧 휴머니즘의 사상체계는 이렇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변조하여 ‘인간에게서 나오고 인간으로 말미암고 인간으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인간에게 있으리라’와 같이 하나님 대신 인간을 대입시킨 것이 바로 휴머니즘, 곧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유물주의자들은 로마서 11장 36절을 자기

나름대로 그 골격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만물이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물질에게 있으리로다’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상들이 현대 세계의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작용하여 불신앙적이고 배교적이며 무신론적 사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머니즘과 유물주의 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학문 등 모든 분야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군목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사역에 임할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복무에 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 사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군선교의 과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군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와 삶의 중심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세계관과 가치관은 결국 국 하나님 중심사상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 중심사상에 입각해 있다면 모든 거짓된 사상 운동에 능히 도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6)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군선교(골 2:10)

교회의 성경적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

며, 교회는 그의 몸이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가정에도, 학교에도, 정부에도, 군대에서도 그가 머리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군대의 영적 총사령관이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일반 사회와 군대사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울의 큰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산촌과 어촌의 작은 교회에도, 전방의 작은 군인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내무반 안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Dualistic Idea)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뿐 아니고 모든 군목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식하고 뜨거운 소명감에 불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병사들에게 이런 신앙을 고취하여 제대 후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간에 직업의 소명(召命; Calling)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자신감을 길러서 다시 사회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금세기 화란의 가장 큰 변증신학자이자 문화이론의 대가인 클라스 스킨더(Klass Schilder) 박사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모든 삶이 깨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

복하고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통일하시는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로서 역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참된 신앙이 있는 문화를 이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만물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세상과 더불어(met) 있고 세상 안에(in) 있기 때문이다. ‘여기’와 ‘지금’은 결국 문화의 세계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시고 그 문화를 거룩하게 한다”는 요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여기 정복한다는 것이 바로 문화창조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문화의 본질과 그 뿌리는 인간의 물질적 진화와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문화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종교와 문화를 분리할 수 없음을 말했고, 리(Lee) 박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문화의 위대한 창조자이며 유지자이며 성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문화를 경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문화를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두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독교 문화는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신자 청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문화적 충격이 술과 담배를 권유받고 상급자로부터

터 강요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의 T.V 시청이나 스포츠로 거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군대의 문화가 건전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선교에 관련하고 있는 군목들은 이런 군대문화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제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군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복음을 받는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 안에도 파급되고 있는 P.C의 인터넷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독교 문화 창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군선교(시 119:105)

일찍이 19세기 칼빈주의 운동을 다시 일으켰던 흐론 반 프린스터라(G. groen Van Princeterer)는 어두워진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역사와 인생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이게 하자’고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 군대 안에 불안, 초조, 외로움이 있는 병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군선교 신학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을 모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뿐입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움직임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단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 삶 가

운데 표준이 되고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나 흥을 돋구어 주거나 감각적으로 병사들을 즐겁게 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진지하게 깨닫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접촉점이나 전도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안에서 이른바 태신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혼합주의적 사상을 용납치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의 틀로 삼고 상대적 기독교가 아닌 절대적 기독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절대 하나님, 절대 성경, 절대 기독교를 생명으로 여길 때만이 참된 선교의 불이 붙게 됩니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면을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은 결코 밝은 전망만 할 수 없고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도전 가운데 세상과 교회를 보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한국교회와 군선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상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변화와 군선교 환경의 변화를 볼 때 군목과 기존 신자 군인들의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군선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군목의 자질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와 아울러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평신도 신학의 장점을 살려 군입대하는 청년들이 군대로 파송되는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군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군선교 신학의 의의를 잘 이해하고 군선교의 목표인 영혼 구령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군선교는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군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덕교 목사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선교 1세기 만에 전 인구의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의 눈물과 수고, 교회 지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미션 스쿨을 세워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반상제도와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함으로 사회 개혁을 이끌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 약력 : •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Ph. D.)
• 합동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역할을 다함으로 교회 성장을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한 군선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군선교 운동은 1945년 우리 민족이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시작되어, 이제 50여 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20세기의 좌우 이념 논쟁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나누어진 한반도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국군이 생겨났다. 한국군의 창설과 함께 군대를 복음화하려는 관심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군의 군선교의 역사는 편의상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복은 땅을 갈고 군선교의 기초를 놓으며, 복음화의 씨앗을 뿌린 파종기(播種期 1950-1967), 군대라는 황금 어장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란 성장기(成長期 1968-1987), 그리고 1980년대의 잠시 동안의 침체기를 지나고 일어난 교회 건축 운동과 진중 세례 운동을 통해 복음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결실기(結實期 1988년 이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구분에 따라 한국군 복음화 50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파종기(1950-1967)

군선교 운동은 군인 교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 최초의 군인 교회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의 수립, 조선경비대의 창설과 함께 세워졌다. 1948년 전북 군산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12연대장인 백인기 중령이 장병들의 정신 지도를 위해서 종교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민간 목사를 매주 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최초의 군인 교회가 서게 되었

다. 12연대는 1949년 10월 26일 인천 소년원 부근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가 떠나게 되자, 이를 접수하여 미군이 사용하던 교회를 연대 군인 교회로 활용하였다. 이 교회는 한국의 초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한석진 목사의 손자 한병근 소위의 인도 아래 4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같은 시기에 용산 군인교회가 설립되었다. 곧 1948년 늦게로부터 해군의 정달빈 목사, 육군의 황기오 상사, 이광민 씨,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여사 등이 남산감리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집회가 이어져, 1949년 2월 5일 해군 및 육군 장교들과 3군에 속한 가족 15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용산 군인교회가 생겨났으며, 설립한 지 불과 6개월 후에는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여, 3군 군목 업무의 모체가 되는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1) 군종 목사 제도의 창설

군인 교회의 설립은 군목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군목 제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경비대 제1연대의 부관이었던 강문봉은 미국 군대 조직에 대하여 연구한 후, “미국 체제의 군사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군종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군목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¹⁾ 1950년 한국전쟁이 치열하던 때 미군 33사단 10공병대대의 한 무명의 카투스 병사는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쟁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첩판으로 무

1) 박성원, “군종병과의 ‘어제와 오늘’”, 『지평문화』(1996년 10월), p. 20.

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써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군대 안에서 공식적으로 군종 목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²⁾

군종 장교 제도는 서구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이다.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던 16세기 중반에 스위스의 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가 스위스의 용병을 돕기 위해 중군 목사로 일하였고,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한창이던 17세기 중반에는 많은 중군 목사들이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군대를 지원하였다.³⁾ 또한 미국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전쟁이 일어났던 1775년 4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4명의 목사가 중군하였고, 같은 해 7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장군이 중군 목사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군목제도가 미국 땅에 정착하였다.⁴⁾ 이렇게 시작한 군종 제도는 캐나다, 칠레, 벨기에, 스페인, 필리핀 등의 기독교 권만이 아니라,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권,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⁵⁾

2) 육군본부, 『4육군군종사』(1975년 9월 30일), pp. 39-40. 김홍태, “군 신자화 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신학 석사 학위 논문(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87), p. 12에서 재인용.

3)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나 존 오웬(John Owen)과 같은 청교도 목회자들이 중군함으로 의회군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의 리처드 백스터와 존 오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라.

4) 김홍태, “군 신자화 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신학석사 학위 논문(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87), p. 7.

5) Ibid., pp. 7-10, 12; 박성원, op. cit., p. 20.

1950년 한국군 내부에서 군목 제도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자, 극동사령부 군종부장 베넷(Ivan L. Bennet) 군목은 예하 미군 제1·2·24·25사단 등의 군종참모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고, 감리교 선교사 쇼우 박사와 천주교 조지 앤 캐럴 신부, 한경직, 유형기 목사 등과 함께 한국군의 군종제도 확립에 관한 논의를 했다. 쇼우 박사와 베넷 군목은 1950년 9월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군종제도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국무총리로부터 “한국군 군종제도의 창설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9월 18일 장로교·감리교·천주교·구세군·성결교가 군종제도 창설을 위해 연합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집회에서 군종제도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장로교의 한경직 목사, 감리교의 류형기 목사, 천주교의 조지 앤 캐럴 신부를 대표로 선출하였으며,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여 군종제도를 들 것을 정식으로 청원했다.⁶⁾

군종 제도에 대한 청원을 받은 대통령 비서실은 1950년 12월 21일 국방부에 중군 목사를 들 것을 지시하였고, 1951년 2월 7일 육군 일반명령 제31호에 의하여 일반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대위 김득삼 목사가 초대 군종과장으로 임명을 받음으로 군내에서 종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⁷⁾ 같은 해 2월 28일 32명의 목사가 무보수 촉탁의 신분으로 군에 입대하여 “장병의 사상 지도, 신앙지도, 인격지도, 종교교육 및 야전 예

6) 한국의 군종제도는 신자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다. 1953년 4월 21일 현재 각 교단별 신자 수는 기독교 28,652명, 천주교 5,694명, 불교 5,055명이었다. 박성원 op. cit., p. 27.

7) Ibid., p. 12.

배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군 목사들은 군종 업무를 통하여 장병의 전투의식을 양양시킴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전력을 다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군종 제도는 1952년 6월부터 유급화되면서 활성화되었고, 해군과 공군에도 정착되었다.⁸⁾

해군은 육군보다 먼저 군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정부 당국의 배려보다는 한 개인의 노력 때문이었다. 한국 해군의 창설자이며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은 서구의 여러 나라를 돌아본 후 군의 정신 무장에 기독교적인 신앙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군목 제도를 해군에 도입하였다. 독립 지사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었던 손 제독은 1949년 1월 평소에 알고 있던 정달빈 목사를 해군 장교로 입대하게 하였다. 그는 정훈감실에 교회과를 신설하고, 정달빈 목사를 교회과장에 임명하여 군종 업무를 맡겼다. 1950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이 일은, “1950년 12월 6일 해군본부작전명령편 제33호 및 34호에 의거 해군본부에 최초로 군목실이 설치됨으로 해군에 정식으로 군목 업무가 시행되었다.”⁹⁾

해병대에서의 군목제도는 1951년 3월 12일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으로 있던 김대식 중령이 사령부 강당에 박창번 목사를 초빙하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사령부 교회가 설립되었고, 동년 5월 27일 군목실이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¹⁰⁾

공군의 군종 활동은 무명의 한 기독교인 부사관이 “공군에

8) Ibid., p. 20.

9) 김홍태, op. cit., pp. 14-15.

10) Ibid.,

서도 다른 군과 같이 군중 업무가 수행되어 장병들이 신앙 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청원서를 올리자, 공군 본부에서 1951년 가을 미 공군 군목부장 패터슨(Patterson)의 자문을 얻어 군목 업무 발족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¹⁾ 그러나 공군의 형편이 열악하여 군중 업무가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지내다가, 1952년 2월 10일 육군 군목과 장 김형도 목사가 공군본부에서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공군본부 교회가 창설되면서,¹²⁾ 군목제도가 시작되었다.

(2) 군선교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

각 군에서 군목제도가 창설되고, 군중 활동이 본격화함으로 군선교 운동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지만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였고, 복무 여건이 일반군인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군목들의 노고로 인해 전쟁으로 무너진 교회당이 재건되고, 신앙 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자, 정부는 군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55년 10월 1일 군중 업무에 대한 제반 규정을 육군 규정 10-2로 제정하고 공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서 행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¹³⁾ 또한 195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합동찬송가에서 200여 곡을 발췌하여 육군찬송가를 발간함으로써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1957년 2월 14일에는 군인들의 탈영과 절도, 사기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11) 문은식, “한국 군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비전” 「빛과 소금」(1996년 6월 호), p. 47.

12) 김홍태, op. cit., p. 15.

13) 박성원, op. cit., p. 27.

해 장병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 업무를 시행하게 함으로 군중 업무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군중 활동에 발맞추어 1956년 12월 8일 기독교장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교회(OCU)가 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장교단과 군목단이 상호간 조력하는 구도를 갖게 됨으로 군선교는 더욱 더 활발하게 되었다.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군선교 운동은 자리를 잡았고, 1960년대부터 군선교를 위한 예배와 집회 처소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예배와 집회를 위한 진중 교회당 건축 운동은 1964년부터 일어났다. 이는 한국군의 집회 시설이 빈약한 것을 인지한 주한 미군 군목들이 전세계 미군 군목들에게 한국 군인교회 건립을 위한 모금을 호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미군의 후원으로 임시 건물에서 예배하던 군인교회는 시멘트 블록의 기와집으로 지어졌고 예배하며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군 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67년 6월, 국방부는 문제 사병 선도 지침을 만들었고, 7월에는 대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군중 부사관을 배치함으로 군목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군선교 운동은 국군의 월남 파병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65년 8월 국회에서 ‘전투사단 파월안’이 통과되면서 월남에 군목이 파송되었고 이와 함께 군대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군목들은 파병되는 장병들을 위해 환송예배를 드렸고, 위문품 및 성경 찬송가와 전도지를 보내고, 예배와 의식의 거행, 인격 교육을 통해 조국과 자유 수호를 위한 군인의 본분을 일깨웠다. 월남 파병은 한편으로는 월남이 불교 국가라는 이유로 군송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고, 이로써 군은 기독교, 천주교와 불교의 3개 종파가 각축하는 장으로 변화였다.

2. 성장기(1968-1987)

군복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군선교 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김활란 박사가 전군 복음화 운동을 제안하면서 조직적인 군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김활란 총장은 1968년 6월 '새시대 복음화 운동본부'를 조직하였고, 선교의 황금 어장인 군부대를 복음화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각 군 군종감, 한경직 목사, 홍현설 목사, 강신명 목사 등 20여 명과 만나 군장병의 정신 지도를 논의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새시대 복음화 운동본부'의 주최로 전도단을 조직하여 6군단, 20사단, 26사단 등의 부대를 방문하여 순회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후방 교회의 군선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1) 전군 신자화 운동

1960년대의 후방 교회의 지원은 비조직적이었다.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행사를 벌이거나 결혼 장병을 교회로 초청하는 등의 일로 군선교를 후원하였다. 이 시기에 군목들은 군인교회나 교도소를 방문하여 전도 집회를 갖고, 각종 기독교 문서를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잦은 침투로 인하여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자, 전군 신자화 운동이 본격화되

었다.

무장병력에 의한 청와대 침투 사건 및 1969년의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안보와 군 정신 무장에 충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1군은 전방 및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부대와 장병들의 안위와 전력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충지였다. 1군사령관으로 취임한 한신 장군은 장병들의 정신력을 극대화할 것을 고심하던 중 별공의 유일한 길은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군종참모였던 한준섭 목사의 조언을 받아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신앙이 없는 장군이었으나, 모든 장병으로 하여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택하여 신앙 생활을 하게 하였고, 후방에서 답지한 방위성금으로 오토바이 53대를 구입하여 1군 산하 군종장교들의 기동용으로 공급하여 군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군 신자화 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전군신자화 운동은 합동측 파송 군목인 오석용 목사에 의하여 제6군단에 적용되었다. 제6군단 군종참모였던 그는 1972년 신임 군단장 이소동 소장에게 전군신자화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군단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군단장은 지휘서신 1호로 전군신자화 운동을 전개할 것을 명령하였고, 모든 행사 전에 반드시 기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점차 전군 신자화 운동이 확산되자, 보호 사병이 감소되고 각종 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등 운동의 결과들이 나타났다.¹⁴⁾

14) 이러한 증거는 아래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태, op. cit., p. 19.

이러한 현상에 고무된 육군은 1973년 말경에 48%에 있던 종교인 수를 50%로 증가시키기로 정책을 세워 전군에 시달하였다.¹⁵⁾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군 신자화 운동은 육군만이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도 파급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6월 “신앙전력화”라는 휘호를 써서 전군 신자화를 후원함으로써 전 군대의 신앙인화 운동은 본 궤도를 달리게 되었다.

종군 목사들은 전군을 기독교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부대를 방문하여 전도하였고,

표1) 연도별 신자현황 및 사고자수 증감 현황(육군)

종교별 연도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군사고자수
1970년도	78,176	15,694	13,370	2,793	110,033	19,248
1971년도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1972년도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1973년도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1974년도	208,553	40,038	41,392	848	290,831	

군대에서 신앙인의 증가는 범죄율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를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의 통계를 참고하자.

표2)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유형 구분	발생자수	근무이탈	폭행	자살	총기 및 강력	경제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 양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15) Ibid., p. 19.

강연과 설교, 기도회와 성경 강좌를 개설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군목들의 군복음화를 위한 헌신적인 사역이 알려지게 되자, 후방교회의 군선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6월 민간 종교지도자들이 전방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 위로 행사를 가졌고, 1973년 6월 8일부터 23일까지 28명의 강사진이 2군 관하 25개 부대 내 종교 강연을 실시하여 3,674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는 초대 야전군 군종참모였던 황금천 목사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가 야전군 사령부에서 순회종교강연회를 개최해 10,889명의 초급간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결신자가 생겨났다. 그해 9월 한경직 목사가 야전군 관하 부대를 중심으로 실시한 종교 강연회에는 장교 9,252명과 사병 48,751명이 참석하여 4,443명이 신앙을 가질 것을 결단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군복음화 운동에 고무된 후방교회는 조직적인 후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군복음화후원회(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조직

1인 1종교를 갖는 전군 신자화 운동이 열매를 맺자, 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를 군복음화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1971년 한신 장군의 초청을 받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1군사령부를 방문한 한경직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군종감이던 한준섭 목사로부터 군에서 일어나고 있던 전군신자화 운동과 이를 후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단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972년 4월 11일 4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서울 세종 호텔에서 전군 신자화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마련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조찬 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인 김관석 목사의 사회로 개최하여, 합동측 대표인 김윤찬 목사의 기도, 한경직 목사의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군을 신자화하여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에 이바지하는 데 교파를 초월한 협력을 아끼지 말자”는 설교와 연세대학교 교수인 백낙준 박사의 축도로 진행되었고, 전군 신자화 후원회 준비 위원으로 백낙준 박사, 김윤찬 목사, 한경직 목사, 배명준 목사, 김관석 목사, 이기혁 목사, 황성수 박사, 방순원 변호사, 유상근 장로, 신도한 장로, 최창근 장로 등 11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같은 달 19일 백낙준 박사의 자택에서 조찬기도회를 갖고 명칭을 ‘전군복음화운동’으로 정하였고, 위원장에 백낙준 박사, 총무에 황성수 박사를 선임하였다.¹⁶⁾

‘전군복음화 운동’위원들은 4월 28일 명지대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명칭을 ‘군복후원회’로 정하고, 전군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각 군 군중감으로부터 군선교 활동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5월 8일에는 가칭 ‘전군 신자화 후원 확대회의’가 김윤찬 목사가 사무하는 평안교회당에서 교계 인사 및 각 군 군중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였다. 이 회의에서는 ‘전군 신자화 후원 확대회의’ 발기인 명단을 결정하는 한편, 범기독교적 발기대회를 갖기로 결의하였고, 5월 29일 오후 5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정치, 경제, 언론, 교육, 교계 지도자 등 각계 인사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16) 한국기독교공보, 1972년 4월 22일자.

는 회(會)의 명칭을 ‘전군 신자화 후원회’로 하는 4장 부칙 10조의 규약을 채택하고 임원 조직을 준비위원회에 일임하는 한편, 새로 조직되는 임원진이 군선교 지원책을 연구토록 했다. ‘전군 신자화 후원회’의 초대 회장에는 백낙준 박사, 부회장 한경직 목사, 총무 오재경 장로, 회계 최창근 장로가 선임되었다. ‘전군 신자화 후원회’의 설립과 함께 군선교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는 1970년대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배경이 되었다.¹⁷⁾

(3) 진중 세례 운동

‘군복음화후원회’가 초교파적으로 조직되면서 군선교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합동세례식을 거행하기까지 발전하였다. 진중 합동세례식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세례식으로, 한 번에 3천여 명이 세례를 받은 제2의 사도행전의 역사로 평가되고 있다. 최초의 합동 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합동

17) 군복음화 운동은 1974년 11월 26일 한경직 목사가 제2대 후원회장에 취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군 신자화 후원회’는 후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1976년 7월에 ‘군복음화 후원회’로 개칭하였다. 1981년 3월 7일 국방부인준 918.1-145 지시문서를 통해 중단별 공식 후원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명함(국군중 24250-150/85.7.11/국방부훈령 제572호제정/97.10.27)으로, 군선교 운동/후원지역은 일원화되어야 했다. 4년간의 논의 끝에, 1985년 7월 군선교 후원을 위한 창구가 군복음화 후원회로 일원화되었고, 그 다음해 한국군중 목사단이 창립되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1987년 1월 ‘군복음화보’를 월간으로 창간하였고, 1988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단체로 인가를 받음으로 군복음화를 후원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었다.

측이 파송한 이상강 목사가 군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결실로,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비롯한 154 명이 합동세례를 받음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보병 제26사단(5110부대)에서 최세태 목사의 집례로 1,460 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2월 5일에는 제5사단(9011부대)에서 한준섭 군중감의 집례로 1,005 명이 세례를 받았다. 1972년 3월 9일 제28사단 81 연대에서는 1,009 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날 세례식은 한경직 목사를 비롯하여 민간 목사 140 명, 군목 50 명, 선교사 및 외국인 30 명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 26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같은 해 4월 25일에는 육군 보병 20사단에서 통합측 군목인 김태동 중령의 인도로 장교 88 명, 사병 3,390 명 도합 3,478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¹⁸⁾ 이는 단회 수세 인원으로는 최고를 기록하며, 군과 한국 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합동 세례식이 메스컴을 타고 전 부대와 교계에 알

18) 교회연합신보, 1972년 4월 30일자.

19) 다음의 통계를 참고하여 보자.

표) 연도별 세례현황

연도별	구분	합동세례		일반세례	계
		횟수	인원		
1971년도		6	4,377	2,943	7,320
1972년도		39	23,405	18,954	42,359
1973년도		43	26,803	17,880	44,683
1974년도		15	6,390	19,506	25,896
계		103	60,975	59,283	120,258

려지자, 각 부대에서는 합동 세례식 봄이 일어나 수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¹⁹⁾ 또한 세례식을 참관하기 위해 국내 종교 인사는 물론 해외 종교인사들까지도 많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국내의 기자들도 이 역사적인 세례식을 참관하며 보도하였다.²⁰⁾

이와 같이 군선교 운동은 한국 교회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곧 정부 당국의 전군 신자화 정책, 교계의 신자화 후원회 조직, 군목들에 의한 진중세례 운동은 동시적인 사건이었고, 상호 협력함으로 괄목할 만한 군선교 운동을 이끌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역사 이래 최대의 교회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군선교 운동의 결과로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 1974년의 엑스포로 '74, 1977년의 민족복음화대성회 등 대중 집회가 이어졌으며, 이러한 교회 성장을 통해서 1974년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군대에서의 선교 운동은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전 대통령은

20) 1970년대의 군선교는 후방교회의 후원이 컸다. 이 시기에 활발하게 군선교 운동을 후원한 단체로 영락교회와 기드온연합회를 들 수 있다. 영락교회는 군인교회 건축을 많이 지원하였고, 많은 책을 기증하여 군복음화를 후원하였다. 예를 들어, 영락교회는 1976년 6월 군복음화 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를 통해 포켓용 찬송가와 「기독교란 무엇인가」 각각 30,000부를 기증하여 연대급 부대에 보급하게 하여 장병 1인1교 갖기에 크게 공헌하였다(박성원, op. cit., p. 29). 1963년 10월 최창근, 허봉락, 방순원 장로 등 12인 중심이 되어 초교파적으로 창립된 기드온 협회는 1971년 1군사령부 한신 장군이 한경직 목사에게 설교를 요청할 때 최창근 장로가 성경 2만 권을 기증하면서 군내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4천만 권 이상을 기증함으로 군복음화를 크게 후원하였다(군복음화보, 2001년 6월 30일자).

기독교교회(OCU)가 정치 세력화를 구축한다는 구실로 현역과 예비역을 구분시켜 군에서의 종교 활동을 약화시켰고, 전도 운동이 종교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진중 세례 운동을 중지시킴으로 말미암아 군선교 운동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제5공화국의 반기독교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장을 계속하였다. 1984년 선교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인의 수가 764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 개척 운동을 전개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이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는 군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81년 중단별 군선교 후원 창구를 일원화했고,²¹⁾ 1982년에는 군선교를 신학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육군 군종감실은 군복음화후원회의 협력을 얻어 교계 신학교수 8명에게 필요한 분야별 연구 논문을 위촉하여 집필하게 하였고, 1983년 10월에 ‘군진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들이 출판되었다. 1984년

21) 종교시설이 거의 민간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신축됨에 따라 군종 장교들은 해당부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 민간 단체 및 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 민간 종교단체에 무분별한 지원요청으로 물의를 빚을 뿐 아니라, 군종장교가 미배치된 부대와 대대급 부대에서 지휘관과 군종사병들이 종교단체를 찾아 부대의 실정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건축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1981년 8월 28일 국방부에서는 군 종교단체 운용 정상화에 대한 공문을 하달하여 종과 구분 없이 일반인의 군내 종교단체 활동 참여를 금지시켰고, 군종 활동을 각 군 참모총장 통제 및 감독 하에 군 종교시설에서 하도록 국한시켰고, 기금모금행위, 정기적인 회비각출 및 남부 행위 등 종교활동을 빙자하여 외부로부터 물질이나 금전적 지원 및 수수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군의 지침을 근거로 하여 1985년 7월 11일 국군종 24250-150에 근거하여 군복음화후원회가 기독교 군선교 후원 단일 창구로 인준되어 교파를 초월한 본격적인 후원체제로 도입하게 되었다.

에는 세계기독교대회 한국에 유치하여 군복음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1986년에는 군선교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군종목사단을 조직함으로 군선교를 활성화하고, 결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하지 않았다.

3. 결실기(1988-현재)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군복음화 운동은 제5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잠시 정체하였다. 군복음화가 주춤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로 성장의 정체와 교인의 감소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군복음화 운동은 다시 시작되었고, 재도약의 시기를 맞으며 결실하게 되었다. 이는 ‘군복음화후원회’가 사단 법인화되어 공식적인 군복음화 후원 창구가 된 것과 새로 ‘군복음화후원회’ 이사장에 취임한 곽선희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경직 목사와 2대 이사장에 취임한 곽선희 목사의 리더십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확연히 구분된다. 군선교의 선구자였던 한경직 목사²²⁾가 활동하던 시기는 경제적으로 낙후하였거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체험한 때로, 당시의 과제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었으므로, 군선교는 단지 먹을 것을 후원함으로 가능하였다. 그

22) 한경직 목사는 학원과 공장, 그리고 군대를 선교의 황금 어장으로 보고, 군대의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영락교회 여전도회를 통해 군인 교회당을 건축하고, 영락교회의 최창근 장로가 관계를 맺고 있는 기독교실업인회를 통해 군선교를 적극 지원함으로 군선교 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러나 19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적인 상태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났고, 산업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군선교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때, 이를 만족시켜 준 인물이 바로 곽선희 목사이다.

곽선희 목사는 1988년 10월,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 중 이던 당시에 ‘군복음화후원회’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외적으로는 교회당 건축과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을 지원하고, 내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선교를 내 실화하여 21세기 군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먼저 1990년대 이후에 시작된 진중 예배당 건축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진중 교회당의 건축

1980년대의 군복음화 운동이 잠시 정체기를 맞았지만 군복음화에 대한 열정마저 식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열정은 1990년대에 ‘군복음화후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예배당을 보수하거나 교회당이 없는 부대에 교회당을 짓는 작업을 전개 함으로 1990년대의 군선교 운동을 이끌었다. 이 시대의 교회 건축 운동은 각 교회의 협력을 얻어 교회를 건축한 후, 군대에 기증 채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군 자체의 예산으로는 군인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여력이 없어 민간 교회나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²³⁾ 이들의 지원을 통해 많은 교회당이 건축되었다. 1991년 교회당 38동을 신축하였고, 18동을 개축하거나 보수하였다. 1992년에는 신축 58동 개보수 40동, 1993년 신축 37동 개보수 2동, 1994년 신축 33동 개보수

12동, 1995년 신축 37동 개보수 29동, 1996년 신축 44동 개보수 18동, 1997년 신축 50동 개보수 17동, 1998년 신축 33동 개보수 10동, 1999년 신축 21동 개보수 7동, 2000년에는 22동을 신축하였고 20동을 개보수하였다. 1991년부터 2천 년 까지 만 10년 동안에 교회당 386동을 신축하고, 173동을 개축하거나 보수하여 총 559동에 이르렀는데,²⁴⁾ 이는 군복음화 후원회가 1990년대에 군인 교회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를 개축 또는 보수하거나 신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중 교회당 건축 운동은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열매를 가져왔다. 교회의 분열로 인한 적대적인 감정과 개교회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연합활동을 멀리하였던 한국교회는 진중 교회당 건축 운동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연합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연합 운동은 육·해·공군 본부교회당이 2천 년대의 군선교 센터로 건축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군종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등 10개의 교단이 육·해·공군교회당 건축을 각 교단의 사업으로 책정하였고, 범교회적으로 후원 운동을 벌임으로 한국교회 연합 운동의 구체적이며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1996년 육·해·공군교회당 건축 이후, 한국교회는 군선교를 위해 진력하게 되었으며, 전 인구의 25%인 1,2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주로

23)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등이 교회 건축에 앞장섰고, 한국 유리의 최태섭 장로와 벽산그룹의 김인득 장로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로부터 벽산은 건축 자재를, 한국유리는 건축에 필요한 유리를 군복음화 후원회를 통해 기증함으로 군인 교회 건축을 크게 지원하였다.

24) 군복음화보, 2001년 4월 30일자.

고백하게 되었다. 교회 연합 사업을 추진한 다른 사건은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이다.

(2) 제2차 진중 세례 운동

진중 교회당이 개보수되고,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되면서 제2차 진중세례 운동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세례 운동이 타종파의 강력한 견제와 도전으로 주춤하였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던 한국 교회가 정체, 둔화, 교인 수의 감소를 경험하던 시대에 일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곧 1970년대의 부흥 운동의 배후에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진중세례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21세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진중에서 집단 개종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은 1990년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시작되는데 그 배경은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한 김진영 장군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김진영 장군은 1990년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3성 장군으로 세우시고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자문하였다. 교육 사령관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던 그는 예하부대인 육군훈련소를 통해 병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인하였다. 예하 부대의 목사 18명을 공관에 초청하여 자신이 군선교의 울타리가 될 것을 밝히면서 전도와 진중세례를 위해 수고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 제2의 진중 세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김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를 변혁시킴으로 민족 복음화

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훈련병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훈련병의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 주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십자가 10만 개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 1,000 만 원을 현금하는 등 진중 세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²⁵⁾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군목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신앙적인 각성을 하였다. 1992년에는 85,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1993년에는 128,000명, 1994년에는 130,000명, 1995년에는 186,000명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²⁶⁾ 1997년 4월 19일에는 한 번에 행한 세례 의식으로는 교회 역사상 최고 인원인 7,200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역사를 갱신하였다. 이러한 진중 세례 운동은 1997년 이후 20만 명을 넘어서서 1999년 216,080명이 세례를 받았고, 2000년에는 187,156명, 2001년에는 191,758명이 세례를 받는 등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서,²⁷⁾ 제2차 진중 세례운동이 시작한 지 10년 만에 170

25) 김진영 장군은 군목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군목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군목들이 성지를 답사할 수 있는 길을 주선하였으며, 군선교 연합회(전 군복음화후원회)가 육·해·공군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육군 참모총장으로 부임하여 교회당 건축을 주도적으로 홍보, 교회 및 실업인들이 재차 현금을 함으로 무난히 현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는 군대에서 폭탄주를 금함으로 군대의 음주 문화를 바꾸는 등 기독교 군 지도자로 큰 덕을 세웠고, 신앙인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 김진영 장군은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으며, 한국 기독교군선교연합회 법인 이사, 군선교회 회관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다.

26) 박성환, op. cit., p. 29.

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진중 세례식을 통해 청년들이 진중에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군대 안에서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자, ‘군복음화후원회’는 1998년 군인 신자가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교회와 연결하여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21세기 한국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2020’ 운동을 선언하였다. ‘비전2020’ 운동은 군복음화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교회의 장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전2020 운동

군대 안에서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자, 교계에는 진중 세례 운동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다. 어떤 이는 신앙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교회의 질서를 깨거나 세례의 의미를 격하시킨다고 비난하였고, 어떤 이는 진중 세례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고 반대하였다. 집단 개종한 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양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한편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군인교회가 진중 세례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곧 집단 개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진

27) 한국기독교군선교위원회, 「총회록」(2002), p. 67.

중에서 세례를 받은 장정이 전역 후에 거주할 지역의 교회와 연합하여 개종한 장병을 양육하도록 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적인 연구가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비전2020’ 운동이다.

‘비전2020’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합동참모의장으로 수교하였던 이필섭 장군이다.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한 이 장군은 1996년 2월 군복음화에 대해 군복들과 논의한 후, 스가라서 3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군복음화 운동 계획을 펼쳤다. 매년 25만 명의 장병 세례신자를 일반교회로 환원하여 2020년경에는 민족의 75퍼센트인 3,700만 명을 기독교인화하자는 제안을 한국 군종목사단이 군 내부적으로 적극 실천할 것을 채택하였으며, 이 제안에 따라 ‘군복음화후원회’는 1998년 2월 23일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를 개설한 후 ‘비전2020: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비전2020’ 운동을 시작하였다.

‘비전2020’ 운동은 “군과 민족, 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함으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 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략화 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었다.²⁸⁾ 이러한 군복음화 전략이 군복음화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자, 군복을 파송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통합,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

28)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 양육교제」(2002, 5), p. 27.

기독교장로회 등 10개 교단의 교단장과 교단 총무들이 ‘비전 2020’ 운동을 실천할 것을 1998년 11월 13일 비전2020 운동 실천결의대회(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복음화후원회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임을 선언함으로써 ‘비전2020’ 운동은 민족복음화를 향한 21세기 한국교회 군선교 운동이 되었다. 곧 ‘군복음화후원회’와 군목단, 그리고 후방교회가 ‘비전2020’ 운동을 채택하여 21세기 민족 복음화를 위한 명확한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비전2020’ 운동에 의하여 군선교의 전략이 채택되면서 ‘군복음화후원회’의 사역은 군선교를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2월 9일 모인 제28차 ‘군복음화후원회’ 총회는 명칭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개칭하였다.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였고, 같은 달 2월 26일에는 ‘비전 2020’ 실천운동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채택하였으며, 7월에는 제1기 군선교사 양성 훈련 비전2020 캠프를 차린 후 평신도 군선교사를 파송하였다. 2000년 2월 29일에는 군선교의 노래가 제정되어 전국교회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1월에는 군선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군선교연합 월례조찬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또 이 일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군연합 민족복음화 각 지역별 순회 대성회를 개최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사역이다. 한편 ‘비전2020’ 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2년 2월 28일에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군선교신학위원회는 매년 심포지엄 및 세

미나, 연구논문집들을 발간하여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에 신학적 뒷받침을 함으로 복음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군선교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1950년대에 군종목사 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노력, 1960년대의 전군 신자화 운동, 1970년대 신앙전력화 운동, 1980년대 정체기, 1990년대의 교회당 건축 운동과 제2의 진중세례 운동, 그리고 ‘비전2020’ 실천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군선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군선교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을 이루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며, 이를 이룩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한 군목들, 이들을 후원한 민간 교회, 그리고 이 일을 효율적으로 지원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군목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다면 1970년대의 부흥 운동도, 1990년대의 집단 개종 운동도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후방 교회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군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선교 운동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단체는 1972년 ‘전군신자화후원회’로 창립한 후, 1976년 ‘군복음화후원회’로 개칭하였고, 1999년 이후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라고 불리는 등 다양한 이름을 거치면서, 군복음화를 위해 전국의 교회들이 후원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군선교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전도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군인 교회당을 건축하고, 개척하거나 보수하는 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선교를 지원하고, 위문 행사를 통해 군선교를 고취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장병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중군목사 후보생을 위한 세미나, 군목 수련회, 기독 부서관 세미나, 기독장병 영성 세미나, 군중병 훈련, 그리고 군입대 전의 청년 신자들을 군선교 사명자로 훈련하는 비전 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랑의 온차 보내기 운동'을 통하여 장병들에게 기독교회의 사랑을 전하였다. 중군 목사들과 신우들이 앞장서서 자정에서 새벽에 이르는 시간에 보초서는 병사들에게 차 한 잔씩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제시한 후 기도하여 줌으로 기독교 신앙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러한 군선교 운동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첫째로,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1969년 전군 신자화 운동과 함께 시작한 제1차 진중세례 운동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한국 교회 역사상 최고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교회 성장이 정체된 1990년대에 진중에서 일어난 세례 운동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군 교회의 성장은 민간 교회와는 크게 구분되는데 이는 한국 교회의 장래를 결정하고 있다. 그 예를 들어보자. 2001년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 5,500개 교회가 불신자를 개종시켜 세례를 준 숫자가 4만 명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군을 통해서는 매년 20만 명의 불신자가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는 군선교가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군선교를 무시할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청년 선교의 대부분이 군

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군대 안에서 기독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000여 개가 넘는 군인 교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신앙의 원리로 삼는 운동을 전개함으로 기독교 문화를 확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밝은 사회가 건설되고 세속화된 사회 문화를 기독문화로 전환하여 생명력이 있는 밝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 교회는 병영에 많은 것을 투자하여 왔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1년 동안 주일 설교 테이프, CD롬, 복음 성가와 간증, 설교 비디오 테이프 등 5,035개를 지원하였고, 「생명의 삶」 등 67 종류의 서적(총 553,286부)을 지원함으로 군대 안에서 기독교 청년 문화를 토착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율이 저하되었고, 군대의 사기가 진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⁹⁾

셋째로, 다수의 기독 인재를 양성하여 냈다. 군대라는 독특한 기관을 통해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국가와 민족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고취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가 경영의 전 분야에서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육성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선교를 통하여 장병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29)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교회와 출판사의 후원으로 2001년 군부대에 배부한 서적은 단행본 35종 22,705권, 월간지 19종 317,284부, QT교제 7종 172,060부, 성경책 3종 39,669권, 찬송가 2종 550부, 전도용 소책자 1종 1,000부 등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회보고서」 p. 37.

병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군선교 운동은 내적으로는 민족 복음화 운동의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외적으로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등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군선교는 한편으로 여러 연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간 교회의 지도자들은 군인 교회의 실태와 애로 사항을 잘 모르며, 군선교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군인교회에는 지도자가 부족하며, 양적 성장에 비해 양육 및 제자 훈련이 미흡하고,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이다. 1,000여 개의 군인 예배당 수에 비해 군중 목사는 3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군 세례 신자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역자를 일반 교회와 연결시키는 일이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는 군선교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곧 군인 교회는 군인 교회의 상황을 민간 교회에 널리 알리고, 민간 교회는 군인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군목들이 신학석사(Th. M.) 과정과 같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선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는 군선교 공식 기관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며, 군선교 전문인을 양육하고, 초신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군선교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기관인 군목의 수를 늘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민간인 신분으로 군선교사역을 지원하는 군선교 일반교역자들도 약 350여 명이 되므로, 전문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임자가 선발

되고,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선교활동비의 안정적인 지원 등 교단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며 적용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에서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가 전역한 후에 기성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군민이 협동하여 군선교에 전력할 때에 한국 교회는 2020년에 민족의 75퍼센트를 복음화하려는 '비전2020'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선교는 교회 성장과 전도의 대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민족복음화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박종화 목사

I. 문제의 제기

20세기 후반을 장식한 한국교회의 군선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어느 교회역사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흡인력과 성령의 역사가 이런 폭발적 성장의 핵심이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급격한 상

황변천과 영적 갈급함이 성장의 상황적 동원이 된 것도 사실이다. 복음전파를 향한 충성과 상황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는 성실성을 한국교회가 보여준 것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던 동력임이 사실이다. 21세기를 맞아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형태를 달리하는 주변 상황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며,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목시켜 이미 이룩한 양적 성장을 신앙의 질적 성숙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군선교의 경우 대안모색의 과제는 더욱 절실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의 비극의 역사 속에서 군선교가 출범했다(해군은 1950년 11월 10일 / 육군은 1951년 2월 7일 / 공군은 1952년 2월 10일).

남북 간의 살육전쟁은 정전협정의 형식을 빌어 일단 잠정 종식되었으나 결과물로 생겨난 세계적 냉전 체제 속의 적대적 대결 구도는 한반도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상황을 빚어 냈고, 군선교 역시 이런 큰 틀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본다. 적어도 준전시 상황에서의 군선교라는 제한성을 지녀왔다. 1960년대 말에 시작된 「전군 신자화 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장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간 소위 한반도에서의 적대적 냉전기류가 상당히 온류를 타고 평화공존의 상황으로 이동하는 상황적 변화의 기간 동안에도 170만여 명의 세례교인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경이적 성과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군선교 비전을 살피려면 크게 보아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 약력 : • 독일 튀빙겐대학교 신학박사
- W.C.C. 중앙위원
- 경동교회 담임목사

첫째는 기왕의 군선교 공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고 21세기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할 긍정적인 선교 원칙과 전략을 찾아 이를 심화·확대해야 하는 과제이다. 예컨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추구해야 할 민족복음화의 대명제와 더불어 군선교를 통한 교회일치와 연합사업의 지속확장이 긍정적 과제에 속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존의 군선교 패러다임의 건설적 전환과 관련된 과제일 것이다.

21세기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현상은 정밀·기술 문명의 현장화일 것이다. 특히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완수해야 할 신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및 생활 패턴은 디지털 시대의 주도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과거 기성세대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한반도의 상황이 설혹 남북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제 질서의 판도에 긍정·부정의 부침과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적대적 냉전적 대결구도는 이미 약화 내지 해체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동시에 전쟁위협에 찌들린 분단상황의 질곡에서 적극적 평화지향의 안보체제와 민족통일 구현이라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군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오늘의 21세기 현실에서 군선교는 군복무 기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성과 병영생활이라는 공간적 제한성을 넘어 군복무 이후의 사회생활에까지 복음의 진수를 접목시켜 명실상부한 “민족복음화”의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것은 바로 군선교가 일종의 “특수선교”의 영역에 고착되는 한계를 넘어 총체적 선교의 디딤돌 역할로 승화되어야 할 과제일 것

이다.

세 번째 과제가 있다. 20세기의 군선교 상황은 분단 체제 하에서 “반북·반공”이라는 안티체제를 지녔기에, 그에 따른 남한의 대북 안보를 뒷받침하는 “정신전력”을 신앙화하는 선교전략이 중심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1세기는 남북간의 관계가 평화적 공존에서 출발하여 평화지향의 민족통일로 그 틀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군의 역할은 물론 군선교의 기본방향과 전략이 일대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 일종의 선교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통일 이전의 적대적 분단갈등에서 통일 이후의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는 군선교, 그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민족번영과 복리를 수반하는 민족복음화로서의 군선교가 그것일 것이다. 즉,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선언하여 실천되고 있는 비전2020 운동의 이념과 전략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II. 군복음화 운동의 지속적 강화

군복음화를 우선적으로 입대한 장병들을 포함한 장기 직업 군인들의 복음접목과 세계사역을 의미한다.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비전2020’ 계획에 따르면 매년 새로 세례 받을 22만 명과 입대전 수세자 3만 명을 합한 25만 명 가량이 세례 받은 기독교인으로 사회에 배출되고, 2020년까지는 연인원 625만 명의 신자가 생겨 이들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어 복음화 되면 4인 가정을 상정할 때 2,500만 명의 성도가 된다. 기존

의 1,200만 정도와 합하여 3,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면 전 국민의 75%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맘모스 복음화 계획이다.

일단 군중목사 파송교단과 합의하여 추진 중인 「비전2020」은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결실로 이끌어야 한다. 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치밀하면서도 조직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이미 개발된 전술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민간교회와 군인교회는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주어야 한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을 이룩하겠다는 ‘비전2020’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역할분담토록 되어 있다.

현재는 군인교회는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민간(군선교회원)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군인교회와 민간(군선교회원)교회가 연합해서는 양육과 민간(군선교회원)교회의 미래출석교인으로 결연을 하자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인교회는 ‘한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1) 불신전우 전도 (2) 결신전우 세례 (3) 초신전우 양육: 주일예배 참석토록 인도, 성경공부 (4) 양육전우 결연: 명단수집, 제출 (5) 결연전우 관리: 민간교회로 결연된 후 관리여부 확인 점검-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간(군선교회원)교회는 군인신자 명단, 즉 본교회의 미래출석교인 명단이 군선교연합회로부터 우송된 후부터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1) 사랑의 청지기: 전담부서, 전담인도자 선정 (2) 사랑의 등록: 미래출석교인으로 공식 등록(교적카드 작성) (3) 사랑의 기도: 1·1·1 중보기도 실시(매일 한 영혼을 위해서 1분 이상 기도) (4) 사랑의 편지 (5) 사랑의 선물: 절기, 생일, 진급시 (6) 사랑의 심방: 면회 (7)

사랑의 초청: 휴가, 외박시 (8) 사랑의 전도: 평소 가족 전도 기회로 적극 활용 (9) 사랑의 등록: 전역시 본교회 출석교인으로 영접 (10) 사랑의 후원: 군선교 사역을 위해서 군선교 현금(군선교연합회 후원)-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필자가 군목으로 복무할 당시(70년대 초) 상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울의 초동교회와 선교협력을 맺어 휴가장병들의 매주일 예배 참석과 친교, 접대 및 부대방문과 중보기도 등을 권면하며 신자화 운동을 도운 바 있다.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담임목사들이 분명코 깊은 관심을 갖고 본교회에 정착이 되도록 지도하며 실천해야 한다.

둘째로 한국교회 전반의, 특히 군선교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의 연합운동으로 군선교에서 심화·확대하는 사명이다. 한국교회의 교파별 분열에도 불구하고 군선교 현장에서는 일종의 “선교적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일치는 군중목사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군복무 중의 모든 신자들 사이에서도 존중되고 실천되도록 함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선교에 합당한 예배의식, 설교 및 성경본문, 교육교재 등을 연합적으로 마련하여 전군을 통틀어 통용되는 실질적 일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일치 속의 군선교 신앙과 신학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

군중부와 민간교회가 합동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학술적 지원을 군선교후원회가 연합으로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I. 군선교 패러다임의 건설적 전환-“생활신앙” 지향으로

군선교가 기독교 신앙을 군복무자들에게 접목시켜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전도형 선교 못지 않게 기독교 신앙적 가치관으로 실제생활을 이끌어 가는 생활 신앙적 훈련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군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복무자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장병들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군복무 자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부과되는 “국방의무”라고 인식한 경우가 99%에 달한다. 결국 군복무를 자발적 선택이 아닌 강요된 의무라 보며, 특히 군복무 자체를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적극적 인생수련장이기보다는 소극적 참여의 현장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은 국가건설 이후 오늘날까지의 부정적 군복무관에서 전혀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반교회의 경우보다 군신자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타율적 군복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맛보고 싶은 심리적 안정과 위안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장기 군복무자들에 대한 신앙 전략적 배려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단기 의무군복무자들을 특별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적어도 군복무 기간이 전체 인간 삶의 기간에서 불필요한 “강요된 징집”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교육 기관이나 경력에

서 맞볼 수 없는 유용하고 특수한 인생교육 및 인생훈련 기간으로 받아들여 적극적 인간개발 및 인성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지연, 혈연, 학연의 고리가 차단된 채, 모두가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고, 각자의 인격을 개발하고, 군복무 후의 사회생활에서의 인생을 준비하는 고귀한 수련기간으로 승화시키는 신앙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청년들이 거의가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군복무를 평생교육과 훈련의 한 매듭으로 삼아 그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과과정 및 인생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외형적으로 보아 순탄한 인생과정을 겪어온 젊은이들과 가정붕괴로 인한 결손가정(전체 신세대 장병 가운데 30-40%가 이 카테고리에 속함) 출신의 젊은이들이, 부유층과 빈곤층 출신의 젊은이들이, 엘리트층과 평범한 층의 젊은이들이 한술밥을 먹고 한 막사에서 생활하고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인생광장은 역시 “다양성 속의 일체감”을 심을 수 있는 인생학습장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학습현장의 기초과목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인 인생설계와 비전의 살아있는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게 군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군선교가 “군복무 기간”이라는 특수한 기간과 특수한 환경에 초점을 맞춘 특수한 선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독교 신앙이 군복무와 사회생활의 양쪽 영역을 관통하는 전류로 역할하듯이 병영생활 속의 인생경험은 군복무

이후의 사회생활 곧 국민도덕 함양의 한 훈련장으로 질적 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기독교의 선교가 지향하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기독교 문명 내지는 기독교 문화의 한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비전 2020’이 결실되어 75%의 국민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경우 이 땅의 도덕과 윤리, 국가경영과 국민성, 세계를 지도할 정신적, 역사적 지도력, 삶의 질, 공동선과 사회정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75%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가?

수량적 크기와 질적 가치가 융화되어 결실화되지 못하면, 명목상의 기독교 신자화가 실질적 생활신앙과 괴리되어 기독교 이름으로 세속주의를 방치 내지 조장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또 하나의 국민교육의 장”으로서의 군선교 영역을 재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것이 21세기에 필요한 군선교 비전일 것이다.

IV. 군선교 패러다임의 건설적 전환-“평화통일” 지향으로

군선교는 출발부터 기독교 신앙의 정신전력화 내지 정신전력의 신앙적 결집화를 내세워 왔다.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할 덕목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싸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철한 사생관의 확립이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적 애국심과 결부될 때 유사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평화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된다.

그런데 21세기의 상황은 이상과 같은 “전쟁”을 상정한 무형전력으로서의 신앙훈련만으로 군선교를 한정할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구조적으로 해체되었으며, 한반도의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냉전해체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쟁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 주역으로서의 국토방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해야 한다. 군선교 역시 용감한 신앙적 전투력을 넘어 생산적 평화 구조를 건설하는 신앙적 창조력을 심어줄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의 세계현실에서 또 한반도의 분단현실에서 신냉전의 기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크게 보아 적대적 냉전에서 벗어나 생산적 경쟁을 통한 평화구조 만들기가 우리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적대관계 속에서 “적”을 분명하게 설정한 바탕 위의 신앙훈련과 정신전력 강화는 그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적대적 관계에서의 “적”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생산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일은 훨씬 어렵다.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고전 15:54) 부활의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는 “적대적 전쟁을 생명의 평화로 삼킬 수 있는” 적극적 평화 만들기 주역의 하나로 군대를 상정해야 한다. 바로 평화지향의 안보, 전쟁의 심리와 논리와 실천을 삼키고 극복하는 평화공동체 형성,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엡 2:14)임을 확인하고 체험케 하는 평화지향의 군선교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것이 군선교 패러다임의 계승과 생산적 전환의 진면목이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군선교라 이름하는 선교어장은 분단된 남쪽 땅만이 아니라 북쪽 땅까지도 포함하는 통일선교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염두에 둔 평화의 한반도를 비전 속에 담은 군선교이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통일이면 만병통치라는 통일지상주의는 위험한 발상이다. 통일의 목적과 비전은 분명히 평화이다. 통일지향의 과정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이라야 한다. 6·25전쟁을 몸소 겪은 우리 민족은 이런 뜻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1%라도 남겨놓지 않도록 안보의 틀을 다져야 한다. 동시에 전쟁가능성을 차단한 바탕 위에서 펼쳐는 평화는 군사안보를 포함하여 국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식량안보, 자유와 평화를 몸바쳐 지켜 내려는 의식안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계속 아름답게 가꾸어 내는 환경안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인권안보, 국민 모두의 정신적 바탕을 지키는 정신안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탕 삼는 신앙안보.....이것들이 바로 평화 만들기 안보의 현장들이다. 적어도 군선교는 이런 21세기 평화 만들기의 첨병인 군을 기독교 신앙으로 접목하여 양육하는 사명을 받고 있다.

군부대에서 군선교 활동 내지 군중활동을 군 지휘 체계의 한 부속기능으로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평화정착의 역군을 지탱하고 힘을 부여하는 정신적 기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군중활동은 국민 속에 뿌리박고 국민의 사랑을 흠뻑 받는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하는 일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억지로 복무하는 군대도 아니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아쉬움의

표정의 군대도 아닌, 자식들을 보내고 싶고, 스스로 사랑하며 사랑하고 싶은 군대로 승화시키는 일도 군선교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본다.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김정우 목사

들어가는 말

우리는 이 글에서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을 다루면서,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위치는 무엇인가? 둘째, 민족 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군선교’의 위치는 무엇인가?

위의 두 선행 질문은 우리의 중심 주제인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의 신학적 기초가 된다.

- 약력: •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졸업(Ph. D.)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 한국신학정보연구원장

첫 번째 질문은 비전2020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민족 복음화의 성경적 근거’에 관한 것이다. 만약 성경 속에서 민족복음화의 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민족복음화’라는 넓은 틀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인 ‘군선교’라는 특정한 사역의 성격과 위치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족복음화’와 ‘군선교’는 우리에게 이미 당위적인 의무와 특권으로 주어졌지만, 성경적 근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실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런 이론적 작업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실천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문제를 다룬 후, 우리는 우리의 중심 주제인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군종정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제안보다도 신학적 반추를 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I.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본 ‘민족’과 ‘국가’의 위치: 모범국민을 부르시는 하나님

21세기 군선교와 군종정책이 ‘모범국민을 육성함’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단지 ‘개인구원’과 ‘영혼구원’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못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역사 속에 ‘모범국민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보고자 한다.

1.1. 창조 언약에 나타난 민족과 국가

기독교신앙의 근본과 뿌리는 ‘창조언약’에 있다. 창조언약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만드시고, 그것들은 보존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며, 피조물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sov^{er}ign)이고 일방적인(unilateral)언약이다(렘 33:20, 25). 이 언약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속성을 따라, 존재하며 발전하고 완성되도록 창조되며 보살핌을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 모두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창 1:12, 21). 이것은 창조질서 속에 이미 ‘종’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창 1:26-27), 첫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창조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통일성을 보존하고 있는 원형적 인간’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그들 속에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포함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모든 인종과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배태된 것이며, 이후 구원 역사를 통하여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2. 노아 언약에 나타난 민족과 국가

구약성경에서 ‘나라’(민족과 국가, goyim)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처음 나타나고 있다(창 10:5, 18, 20, 31, 32). 창세기 10장에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는 형식이 다섯 번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서 성경 저자는 여러 민족들과 국가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즉, 창세기 10장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혈통적으로 보자면 모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신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며, 이 사건 이전에 온 인류는 ‘한 족속, 한 언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써, 사람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언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장에서 여러 민족들이 문화하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25절 참조). 즉, 바벨탑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만, 이것 때문에 ‘민족’과 ‘나라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서 여러 민족과 국가들이 형성된 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생육과 번식을 통하여 여러 족속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창세기의 저자는 바벨탑 건설에 나타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족들의 기원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물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짐으로써, 나라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높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1.3.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민족과 국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창 12:2),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다(3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지 그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바로 앞장에서 흠어진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도록 준비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범국가’를 만드시고, 그의 복음적 사역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모범국가’로 만들고자 하신다.

1.4. 시내산 언약에 나타난 민족과 국가

모세의 증보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때(출 19:1, 24:18),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다(출 19:5, 6). 즉 시내 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범 민족과 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모범 민족과 국가’란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신다. 즉,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민족과 나라들의 위치에 대하여 신명기 32장 8절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지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 (1) 열국들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nahal)을 얻었다.
 - (2) 민족들과 나라들(beney 'adam)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어주셨다(parad).
 - (3) 민족들과 나라들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
-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

하나님께서 친히 열국들과 인종들에게 각자의 기업을 주신 것으로 알 수 있다(창 10장). 특히 사해 사본과 70인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각 민족마다 ‘천사들’을 배정하여 그들을 돌보게 하였다는 암시를 준다. 우리가 마소라와 70인역의 두 독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따라 민족들과 나라들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로 열국들과 못 민족들을 보아왔지만, 이 구절에 따르면 열국의 주체는 하나님 이시며,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나라에 고유한 언어와 역사와 기업과 경계를 주시고 있다. 즉, 못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의 ‘고유성, 주권, 자결권’을 가진다.

1.5. 다윗 언약과 민족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혼란과 분열의 시대였다. 사사시대를 마무리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삼하 7:7, 11).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언약, 시내 산 언약을 이어받고 완성해 가는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다윗의 왕권은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려는 하나님의 이상적 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지고 있다(시편 72편). 그의 왕권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온 열방의 모범이 되는 데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아들’과 ‘장자’로

세우시며, 열국의 왕들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시편 89편의 시인은 다윗을 ‘지극히 높은 자’(Elyon)로 부르며, 메시아적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시편 2편에서도 시인은 열국의 왕들과 제후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국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시고자 하신다.

정 리

하나님은 그가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만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사 2:2)를 바라본다. 그 때 모든 이방 민족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온 산을 향하여 오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3절). 이 때 하나님께서 열국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세계적인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사 19:24-25). 이사야 전반부는 앗시리아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선지자는 당

대 최고의 두 적대국인 ‘이집트와 앗시리아’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염원은 시편 87편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개역, 4, 6절). 즉 시인은 이스라엘의 불구대 천지 원수들이었던 모든 적대적인 나라들과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열국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교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모범국민’이 되는 데 실패하였으며,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셨다. 그렇지만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 언약의 완성으로 성취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를 통하여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에 담긴 열국의 구원을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도록’ 위임하신다. 사도 요한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들어올 것”을 그리고 있다(계 21:2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힘써 민족 복음

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 ‘한 민족과 국가’로 세움을 받았으며,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서 큰 은혜를 받았다. 교회사적으로 보자면, 현대사에서 한국교회만이 ‘민족복음화’라는 꿈을 갖는 특권을 누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 엑스포로 ‘74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온 민족 복음화 운동에는 반성할 점들이 없지 않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도 진정한 영적사역을 통한 개인적 성숙과 전 인격적이며 총체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보다, 외형적이고 전시적인 운동에 이끌려 감으로써 교회는 비대해지고, 영적인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1세기적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통일지상주의’나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지양하며, 세계의 열방들과 평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못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범적인 민족’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이다.

II. 민족 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군선교의 위치: 모범 국민 육성을 위한 성서적 모델

우리는 앞 장에서 각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열국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족속에게서

자신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국민으로서 우리의 백성을 교화하고 돌보는 복음화의 역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화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모범 국민 육성’을 위한 ‘모범 군인 육성’에 대하여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알맞은 미래 지향적 군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먼저 성경 속에서 군선교신학의 모델을 형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범 군인의 대장 되신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 왕, 포도원 농부 등 다양한 영상으로 나타나지만, ‘용사’로서의 모습이 창조와 구속사역에서 중심적인 영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전쟁사역에 대한 구속사적 개관과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일차적으로 정리해 본다.

2.1.1.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전쟁사역에 대한 개관

(1) ‘용사’(‘ish milchama)로서의 하나님의 칭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을 기념하며 부른 노래에 처음 나타난다(출 15:3).

(2) 그러나 천지창조는 시편에서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으로 주로 묘사되고 있다(시 24:1-2, 29:1-11, 89:8-14 등).

(3)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으신 후,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써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모습은 용사가 파수꾼을 세우는 모습이다(창 3:24).

(4) 노아 홍수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을 우주적인 스케일로 심판하신 것이며(창 6:1-8), 이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친히 보호하셨음을 보여준다(창 7:1; 8:1, 20-22).

(5)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주어진 ‘방패’와 ‘상급’의 약속은 전쟁 용어이다(창 15:1; 시3:3).

(6)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불 심판으로 이루어지며(창 19:24-25), 이것은 후대의 문헌에서 전쟁의 영상으로 이해되며 그려지고 있다(신 29:22; 사1:9; 렘 20:16, 49:17-18, 50:39-40; 호 11:8; 습 2:9).

(7) 출애굽에서 10대 재앙(출 12:23)과 홍해 도하와 이집트 군대의 심판은 모두 전쟁의 영상으로 주어진 다(출 14, 15장).

(8) 이후 구원사의 주요 사항들(예-가나안 정복에서 바벨론 포로와 포로귀환)은 거룩한 전쟁의 영상으로 주어진다.

2.1.2.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전쟁사역에 나타난 모습

(1) 하나님은 용사로서 ‘만군의 야웨’라는 칭호를 가진다(삼상 1:3, 11, 4:4, 15:2, 17:45; 삼하 5:10, 6:2, 18, 7:8, 26; 시 24:10, 46:7, 11, 48:8, 59:5, 69:6, 80:4, 19, 84:1, 3, 8, 12, 89:8 등).

(2) 하나님은 가끔 ‘야웨의 사자’(출 23:20, 14:19, 33:2; 민 20:16; 삿 2:1-5, 6:12, 13:3-22)와 ‘야웨의 군대장관’(수 5:15)

이란 칭호로 나타나기도 한다.

(3) 하나님은 용사로서 ‘모략가’이시다(사 9:5, 19:17, 41:28; 시 33:10-11; 잠 24:6).

(4) 하나님의 팔(출 3:19, 20, 6:1, 7:4, 5)과 ‘손’(출 9:3, 16:3; 신 2:15; 수 4:24, 22:31; 삿 2:15; 삼상 5:6, 9, 7:13, 12:15; 삼하 24:14; 시 75:8 등)이라는 은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고 무서움을 보여준다.

(5) ‘법궤’는 주님의 전차이며, 주님은 법궤를 타고 원수들을 무찌르신다(민 10:35-36, 14:44; 신31:7-9; 삼상 6:1-12 등).

(6)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친히 전장에 임하신다(신 33:2; 사 19:1; 렘 4:13; 시 68:4, 33). 여기에서 ‘구름’은 ‘천군천사들’을 가리킨다(왕하 2:10-11; 단 7:13-14; 마 24:30; 26:64; 막13:26; 행 1:11; 계 1:7).

(7)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 ‘나팔 소리’가 나타난다(출 19:6, 19, 20:18). 때때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민 10:1-9; 수 5:13-15, 6:4-5).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8)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 자연도 순종한다. 이리하여 홍해와 요단 강이 갈라지며, 여호수아 시대에는 해와 달이 하늘에 머무르고, 드보라의 전투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의 전차가 무용지물이 된다.

(9)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자신의 백성들이 부패하여질 때에는 ‘거룩한 전쟁을 역전시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정화시킨다.

(10) 위에 제시된 다양한 기사들을 볼 때,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세우기 위

하여 친히 전쟁을 하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며, 인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면 ‘진멸하는 전쟁’(헤렘)을 치루신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정복전쟁에 있어서 여리고, 아이 성, 하솔을 진멸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수 11:8, 11).

2.2. 거룩한 용사 이스라엘의 역할

구약성경에 따르면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로 세우신다. 이리하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는 정복 전쟁을 치르며, 이후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르다가 결국 앗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된다. 열왕기서 기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옛 가나안 사람들처럼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역전(逆戰)시킴으로써, 그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땅을 잃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 귀환을 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의 족대는 신약 교회로 넘어가게 된다.

2.2.1. 두 가지 모델

(1) 완전한 수동적 모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사건은 하나님의 전투로 묘사된다(출 14:13, 14; 시 114). 이 때 이스라엘 백

성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바다가 나누어졌을 때 지나가는 역할만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된다. 이 후에 동일한 형태의 전투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루어진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며 실제적인 전투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다(수 5:13-15).

(2) 신인 협력적 모델

광야생활을 할 때 아말렉과 싸우면서 모세와 아론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운다(출 17:11-16).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이것을 기념하여 ‘여호와 닛시’(여호와는 나의 깃발)라는 칭호를 만든다. 사사시대의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전투 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는다(삿 1:21, 2:18, 3:10, 28, 7:9, 20, 20:28).

2.2.2. 거룩한 용사 이스라엘의 임전태세

(1)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시 3:5, 46:1-3).

(2) 이스라엘은 적군을 보고 ‘두려워 말아야 한다’(al-tira, ‘두려워 말라’, 창 15:1; 출 14:13; 수 1:6-9, 8:1, 11:6, 10:25 등). 이스라엘이 전쟁터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갈 때, 오히려 원수들이 두려워 한다(삿 7:22).

(3)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 보아야 한다(신 1:42).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평

화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큰 패배와 어려움을 당한다.

(4) 이스라엘은 ‘진(眞)의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한다(수 5:2-9, 22:10, 24:19).

(5) 이스라엘은 승리 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다. 이리하여 모세와 미리암(출 15), 드보라(삿 5), 삼손(삿 15:16), 다윗(삼하 22, 시 18) 등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노래한다.

(6) 선지자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도록 기도한다(사 18:3, 27:13; 렘 6:17, 51:27; 겔 7:14). 선지자들이 열국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전쟁에서 언어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2.3. 정리와 신약성경적 관점

구약성경에서 대부분의 모범적인 인물들은 ‘군인들’이었다. 여호수아, 웃니엘,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등 구원사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용사’로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며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였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이후에, 신자의 전투는 주로 영적인 전투로 대체된다(갈 1:16; 고전 15:50). 우리의 원수는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이며(고후 4:4), 우리는 ‘성령의 겹’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굳게 서서 잘 싸워야 한다’(롬 11:20; 고전 10:12-13; 고후 1:21). 물론 신약성경 안에서도 군대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용인되고 있다.

III.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의 모색

3.1. 20세기 군선교 회고와 반성

본 <군선교연합회>에서 최근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군선교는 군복음화를 목표로 하여, 아래의 일곱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1) 군종목사제도 시작
- (2) 진중교회당 건축(하드웨어 구축)
- (3) 진중세례운동 시작(1, 2차)
- (4) 장병위문 복지활동 중심
- (5) 특정교회(소수)의 사업후원 중심
- (6) 초교파 연합지역으로 출발
- (7) “군선교연합회”라는 공인전문기관설립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군선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선교에 있어서 ‘군 고유의 역할 속에서의 신중한 선교’를 추구하기보다 외형적이고 물량적이며 공격적인 군선교를 함으로써, 타종교와의 심각한 경쟁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군선교를 ‘황금어장’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들이 군대를 ‘황금어장’으로 여긴다면 어장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것은 군종활동의 고유한 역할을 결국 침해하는 해악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2.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장병종교활동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비평적 고찰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장병 종교 활동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중심 내용을 담고 있다.

- (1) 종교간 갈등 개선(선교·포교 과열현상)
- (2) 군종장교를 현역, 군무원 통합 시스템
- (3) 선교·포교 금지(미군종 시스템)

위의 제안은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군선교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여러 종교와 종단들의 군선교에서의 과열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교다원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의 위상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국군은 정예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의 수는 양적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군선교의 정책에도 급격한 변화가 전망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안은 2003년 11월 폐기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성숙한 군선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두어야 할 것이다.

3.3.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모색: 모범국민 육성안

20세기 기독교 중심의 군선교가 지나친 과열경쟁을 만들어 군지휘체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선교에도 장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성경적인 세계관, 국가관, 군인관을 반영하는 군선교 철학과 정책

을 모색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모범국민 육성안’으로서의 군선교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3.3.1. 복음전파의 3요소: 복음, 전도자, 피전도자

선교에는 항상 전할 내용과 전달자와 전달을 받는 자라는 세 구성요소가 있으며, 세 구성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만남이 요청되고 있다.

(1) 복음의 의미에 대한 개념 정립

‘복음’이란 단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관과 인생관의 근본적 변화를 통하여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며, 진정한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전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도자는 ‘대사’(ambassador)와 같이 그를 보낸 파송자의 뜻을 가감함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이다. 복음전파에 있어서 전도자는 성경적인 복음을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진실되게 전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전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도자를 통하여 피전도자에게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는 피전도자에게도 산 경험이 되며, 피전도자까지 참여하는 드라마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3.3.2. 21세기 군선교에서 본 복음전파의 3요소

(1) 복음의 의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이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거룩한 용사들을 세우시며, 이들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

(2) 전도자로서의 군종사역자

군종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군 고유의 목표를 이해하며, 21세기의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군종사역의 철학과 신념을 새롭게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군 안에서의 종교적 갈등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며, 타종교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군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함께 협동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군종사역자들은 군에서 근무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잘 돌볼 뿐 아니라, 비기독교 군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그들도 복무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보살피는 사역을 한결 같이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3) 피전도자로서의 군인들

대부분의 군인들은 ‘의무복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적·가정적 환경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는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선교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군 생활 속에서 새로운 영적·정신적 각성을 경험하며, 군생활이 그들의 인생에서 참으로 유익하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돌보

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3.3.3.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선교 방향 전환의 의의

(1) 영적인 관심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함께 가짐

우리는 군인들이 진정한 영적체험을 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군인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2) 전인격적 관심과 함께 공동체적 관심을 가짐

우리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파시적인 종교적 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신자들의 인격적 성숙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들이 내면적 덕성 함양뿐 아니라 공동체적 활동과 봉사에도 헌신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3) 국가적 관심과 함께 세계 평화 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짐

21세기 한국군은 단지 국토 방위 뿐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쟁과 갈등에 대한 교육과 평화추구를 위한 군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맺는 말

우리는 위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과 나라에 고유한 주권을 허락하

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2)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도모하며, 평화와 질서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길 원하신다. 군선교는 이런 관점에서 거룩한 용사들을 더욱 배양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군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고유의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군선교에서 우리는 물량주의, 배타주의, 독선주의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3) 군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타종교 사역자들과 군 고유 목적을 이루도록 협력하는데 힘쓰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각자 자신의 고유한 가르침과 실천을 힘써야 할 것이다.

(4) 성숙한 군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군종과 지역교회와 군선교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연중 군종목사

현재 ‘비전 2020’이라는 슬로건 아래 범교회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진중세례식은 21세기 한국교회에서 학원선교와 함께 국내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왔다. 지난 50년간 군선교를 통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며 민족 복음화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군선교의 현장을 보다 냉정하고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21세기 병영환경과 선교적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각 부대별로 실시되고 있는 진중세례식은 그 열기나 성

■ 약력 : •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Ph. D. 교회사)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중

과 면에 있어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군 당국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은 “절대로 인격지도 교육시 선교(포교)하는 행위를 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03. 4. 25. 군종감실 업무보고서). 육군 제2훈련소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회집 인원과 수세 인원에 있어서 많게는 30%에서 10% 가량 수적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도 포교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신자확보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신교대대에 천주교공소 건립, 법당 건립, 군종장교의 재배치 등을 통해 전략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¹⁾ 본고에서는 한국 군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중세례운동에 대해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고 세례운동에 대한 반성과 회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군선교의 새로운 중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세례의 성경적 의미

1) 어원적 의미

세례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새로운 은혜에 의한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됨과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 죄의 과오에서 깨끗함을 입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²⁾ βαπτ

1) 천주교의 경우는 연간 2만 명 정도의 병사들에게 영세를 주고 있는데 이는 한국 천주교 전 성당에서 영세받는 신자 수의 절반에 해당된다. 불교는 ‘비전 21’이라는 슬로건하에 군을 포교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공세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존 머리, 「기독교 세례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p. 14.

τιζω는 물에 잠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넓게 본다면 물 속에 손을 담그고 씻는 것이나 또는 손에 물을 부어 손을 씻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세례를 βαπτίζω라 부르게 되었다.³⁾ 여기서 물에 잠그는 것 즉 침례만을 세례의 유일한 형식으로 주장할 만한 근거로서의 βαπτίζω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⁴⁾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의 세례란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24절), 둘째로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26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입게 되었다는 것(27절)이 그 핵심 내용이다. 그러므로 세례와 믿음과 의롭게 됨은 하나인 것이다.⁵⁾

그러므로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βαπτίζω, 즉 물을 뿌리어(혹은 잠기게 하는) 씻는 의식을 통하여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관계,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예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예식에 있어서 물에 잠그든가 물을 뿌리든가 하는 형식은 그 자체로서 차별성은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통 믿음의 확인과 더불어 즉각적

3) Ibid., p. 25.

4) Ibid., p. 41. 존 머리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강물이나 물웅덩이 등은 식수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매우 정결하게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행했던 베드로의 세례 등 초대 교회의 군중을 상대로 한 세례 의식이 오직 침례의 형태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5) Michael Green, 「Baptism, Its Purpose, Practice and Power」(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8), p. 22.

으로 시행되었고 장소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살핀 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행 10:47) 하면서 즉시 세례를 허락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받고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음은 분명하다(행 10:43, 11:1, 11:18, 15:7).⁶⁾ 따라서 세례가 은혜의 표시이며 수단이지 세례가 은혜를 주거나 혹은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성립시키는 수단이라는 생각은 세례예식의 본질과는 맞지 않은 주장인 것이다.⁷⁾

2) 성령의 역사로서의 세례

신약성경에서의 세례는 언제나 성령의 사역과 함께 등장한다. 특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세례와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경에서의 세례 혹은 세례받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성령 세례(baptism of the Spirit)는 곧 성령의 은사(gift of the Spirit)와 동일시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세례와 성령이 함께 언급된 적은 모두 7회인

6) John R. Stott, 「Baptism and Fullness」(London: Inter-Varsity Press, 1992), p. 37

7) J. Murray, p. 111-2.

데 이중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6회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한번 언급되고 있다. 복음서에 나오는 네 번의 언급(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의 공통점은 모두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고 회고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외에 유일하게 세례와 성령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곳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다.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했다.⁸⁾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의 세례는 성령의 역사와 동반되었으며 이것은 죄 사함과 믿음의 과정이 전제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성령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성령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 교회에서 행해지는 믿음과 중생을 전제로 베풀어진 세례와는 구별된다.⁹⁾ 또한 성령세례는 ‘성령의 충만함’(행 2:4),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 부어주심’(행 10:44, 45, 47; 11:15, 16)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¹⁰⁾ 즉 성령세례는 구원 이후에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체험으로 각자에게 임하는 것으로서 가장 쉽게는 ‘성령의 충만’(fullness of the Spirit)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경험했지만 성령 충만함은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것은 중생, 즉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성령에 대한 체험이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 즉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에 근거한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교회가 채택할 세례의 형식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최초로 적용한 예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8-41절인 것이다. 즉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제자들은 성령충만 곧 성령세례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탄식했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선포했다. 그 날 베드로는 그 말을 받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숫자가 삼천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

8) John Stott, p. 38-39.

9) R. A. 토레이, 「성령세례」(서울: 나단 1988), p. 10-11.

10) Ibid., p. 8.

을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주었다.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전제된 세례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되었으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부와 성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선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성령세례와 세례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에는 그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다. 성령세례는 성령께서 주체로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했고 구원역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례는 믿음과 회개 그리고 증생을 전제로 혹은 그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이 베풀었다. 사도행전 2장 38-41절의 세례가 이에 해당된다면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라고 언급한 내용은 고넬료 등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세례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인가 아니면 반복적인가,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세례이건 세례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고전 12:3),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줄 수 없

11) 원종수, 「세례의 신학」(부산 참빛사, 1999), p. 229.

기 때문이다.

2. 세례의 교회사적 의미

1) 요한의 세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승천 이후부터 시행(행 2:38-41)

승천 직후부터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세례는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이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가시적인 통로 역할을 하였다.

2) 죄사함 이후에 장소와 시간, 대상에 구애 받지 않고 즉각 주어졌다(행 2:38-42)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마술사였던 시몬에게도 세례를 주었고(행 8:12-13) 얼마 후에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물 있는 곳에서 즉시 세례를 주었다(행 8:38). 아나니아는 바울에게(행 9:18) 바울은 또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의 집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었다(행 16:15).

3) 교회의 생활과 의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¹²⁾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활동한 터틀리안은 “세례에 관하여”(On Baptism)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세례 의식을 정형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때의 세례식은 매 주일마다 가졌던 성찬식과는 달리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거행되었다. 당

12)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 121-125.

시 세례식은 기독교의 부활절을 중심으로 일 년에 한 번씩 행해졌는데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사도적 전통'(Apostolic Tradition)에 따르면 세례 지망자들은 세례 전 목요일에 목욕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례식에는 항상 신앙고백이 함께 행하여졌는데 그 신앙고백은 바로 초대교회에 이미 존재했던 '세례식의 신앙고백'(Baptismal Formula)이 사용되었다.¹³⁾

4) 3세기에 접어들면서 교리문답 제도 도입-체계화

세례식이 보다 체계화된 것은 3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교리문답 제도가 도입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교회 입교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를 아주 길게 하는 것이 그중 하나였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신청하면 그들의 생활 태도와 직업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마침내 세례 지망자로 발탁된다 하여도 실제로 세례를 받기까지 3년 동안을 세례 지망자로 있으면서 교리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야 했다.¹⁴⁾ 터툴리안의 경우는 참되게 살 준비가 될 때까지 세례를 미루도록 권면하기도 했다.

5) 가톨릭의 세례

가톨릭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세례는 죄의 용서, 새로운 생명으

로의 탄생, '하느님'의 자녀 즉 상속자가 되는 통로임은 물론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이 된다고 가르친다. 더구나 세례를 받게 되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인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만 다른 '성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교리서에 따르면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과 세례 받고자 하는 원의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신앙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¹⁵⁾

3. 세례의 선교적 의미

중세에는 세례가 왕권에 의해 실시되기도 했고 로마 교황청의 지속적인 선교현장에는 언제나 세례가 행해졌다. 영국의 경우도 오세르의 주교 게르마누스(429년경), 어거스틴(597년경), 비드(Bede, 673-735)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을 찾아서 수도원을 세우고 세례를 행하며 선교적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로 영국교회는 점차 유럽 전체에 교회를 세우고 개혁하는 일에 로마교회의 주요 동맹 세력이 되어 갔다. 세례는 한국의 선교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었다. 아펜젤러는 1886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딸에게 세례를 실시하였고 언더우드도 1887년 서경조를 시작으로 세례를 실시했다. 즉 선교가 있는 곳에는 세례가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 주는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을 구별하기도 하였다(고전

13) Ibid., p. 123.

14) Ibid., p. 125.

15) 서울대교구 사목국, 「예비자교리서 초대받은 당신」(서울: 가톨릭출판사, 1989), p. 171-4

1:14-17).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다.

4. 한국 군선교 현장에서의 세례

1) 한국 교회와 세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례는 만 14세 이상의 신자에게 학습 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주도됨 되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 만 16세가 되면 입교의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며 그것을 근거로 입교인의 의식을 행하게 한다. 한국교회가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 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 베드로에 의해 실시되었던 형태의 세례의 정신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을 교육 및 신앙 관찰 기간으로 정하여 교회법에 명시해 실시하고 있다. 성령세례에 관한 부분은 교회법에 명시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관찰도 불가능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교회가 공중 앞에서 실시하는 세례는 성령세례와는 구분되는 형태의 세례의식인 것이다.

2) 진중에서의 세례

현재 한국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례는 한국교회의 세례에식과 그 맥을 같이한다. 다만 세례교육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대신 믿음의 고백이 확인되면 즉시 세례를 베푸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례기간이 짧은 부분은 일반 교회의 세례과정과는 차이가 나지만 군대가 선교현장이라는 것과 시급성

을 요한다는 것 그리고 신약성경의 세례가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행해졌다고보다는 죄 사함과 믿음을 근거로 행해졌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용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논의되는 진중 세례식은 성령세례나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의식과는 다른 영접한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제3의 형태로서의 세례식을 의미한다.

3) 세례운동의 시작(제1기 합동세례운동)

가) 최초의 합동세례식

군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21사단 66연대에서 장로교 합동측 이상강 군목이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포함한 154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기원이다. 당시 연대장 유정목 대령이 연대 군목인 중위 이상강 목사에게 세례를 자청하여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합동세례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이를 크게 보도하였다. 동년 11월 25일에는 26사단에서, 열흘 뒤인 12월 5일에는 5사단에서, 이듬해인 3월 9일에는 28사단 81연대에서 각각 합동세례식이 연이어 베풀어졌다.¹⁶⁾

16) 육군본부, 「군종 50년사」(대전: 육군본부 군종감실, 2002).

기독교의 합동세례식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자 천주교에서도 이듬해부터 김수환 추기경을 선두로 합동 영세식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3월 8일 제28사단 81연대에서 3월 26일에는 6군단에서 1천여 명의 장병들이 김 추기경으로부터 영세를 받았다. 이듬해인 1973년 1월 12일에는 11사단에서 80명을 대상으로 합동 수계식이 최초로 실시되어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교가 공히 군을 대중 선교 및 포교의 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표1 합동세례식 초기의 세례 현황¹⁷⁾

일자	부대	수세인원	집례자	비고
1971. 9. 13	21사 66연대	154명	중위 이상강 목사	합동측 군목
1971. 11. 25	26사 사령부	1,460명	중령 최세태 목사	
1971. 12. 5	5사단	1,005명	유동근 군목	양평초교 이용
1972. 3. 9	28사 81연대	1,009명		
1972. 4. 25	20사단(연합)	3,478명	중령 김태동 목사	

나) 당시의 합동세례식은 전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에 의한 천주교 영세식과 불교 수계식도 시작, 전군 신자화 운동과 1인 1종교 갖기 운동, 그리고 합동세례식과 영세식, 수계식의 결과 군내 신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표2 최초의 신자현황(53)과 합동세례식 직후 3년간 신자 통계¹⁸⁾

연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병력대비(%)
1953	28,652	5,694	5,055	15,850	55,151	-
1971	-	-	-	-	208,526	33%
1972	-	-	-	-	266,757	44%
1973	202,360	43,080	42,082	-	292,379	

다) 합동세례식운동의 부작용

17) 육군본부, 「군종 50년사」(대전: 육군본부 군종감실, 2002), p. 90.

18) 남송현, “군선교 전략으로서 훈련소 진중세례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충신대학교, 2002), p. 37, 71-2.

합동세례식과 영세, 수세식의 과열은 일부에게 국민의 충화단결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명분을 주었고 이윽고 천도교 및 대중교 지도자들이 “군중병과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대통령에게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어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부실 신자의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①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는가 ② 세례 받을 때 주초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③ 세례 신자로서의 의무와 권한에 대한 교육은 충분했는가 그리고 십일조 헌금의 시행 상태는 어떠한가 ④ 세례 문답의 과정은 정확했는가 ⑤ 부대의 특수한 분위기 때문에 강요된 신자는 아니었는가 ⑥ 세례를 받은 후 신자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내용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다.¹⁹⁾

4) 2차 합동세례식운동(제2기 합동세례운동)

1990년 논산 훈련소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교육사령관이던 김진영 중장에 의해 발의되고 주도되었다. 그는 당시 교육사 예하 부대 군목 18명을 공관으로 초대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군 신앙, 전력강화를 위해 세례운동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19) 육군본부, p. 90-92.

전군 신자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합동세례식은 기성교회와 세례과정과 달리 속성으로 그것도 신앙을 검증하지 않은 채 무자격 신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1972년 4월 21일에는 군 첩보기관으로부터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의 침체, 특정종교 강요 및 편파적 보급으로 인한 가짜 신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실에서는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신자화 운동 지양, 엄숙한 성례식 거행, 무종교인을 상대로 신자화 운동 전개할 것 등을 지시하게 되었다(군종 50년사, p. 91-92).

사제로 마련한 십자가 목걸이 10만 개를 제작하여 봉헌하였다.

5) 비전2020 운동 전개(제3기 합동세례운동)

1971년(제1기)과 1990년(제2기)에 이어서 1996년(제3기)에는 그동안의 합동세례운동의 모든 노하우를 결집하고 보다 정책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된 비전2020운동이 그해 2월 예비 육군대장인 이필섭 전 합참의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2년 뒤인 1998년 2월 23일에는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개설되었고 본격적인 제3차 합동세례운동을 조직, 건인하는 데 앞장섰다('90년 이후 '00년까지 10년간 합동세례식 운동에 의해 170만 명이 수세).

6) 진중 교회당의 건축

합동세례식은 진중 교회당의 건축운동으로 이어져 제2, 제3기 합동세례운동이 전개된 만 10년('91-'00) 동안 교회당 386동을 신축하고 173동을 개축했는데, 이는 그 이전 40년 동안에 신축하거나 개축한 교회당보다 많은 숫자의 교회당이 10년 동안 신축 혹은 개축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2, 제3기의 합동세례식운동이 세례식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군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군선교가 유무형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증거한다.

5. 비전2020운동

1) 비전2020운동의 기원

가) 기원

비전2020운동은 1996년 2월 예비역 이필섭 장로에 의해 천명되고 당시 기독교장교회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나) 전개

1998년 2월 23일 군복음화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를 군선교연합회 내에 개설하였다.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한국교회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군목 파송 10개 교단²⁰⁾ 총무와 교단장이 모여 비전2020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비전2020운동은 기독교장교회에서 군복음화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 군목단, 그리고 민간교회가 연합하여 21세기 민족 복음화를 위한 명확한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²¹⁾

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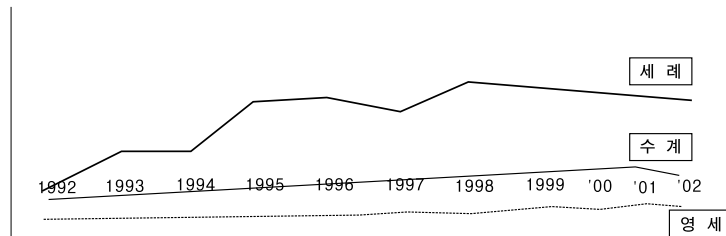
비전2020운동의 핵심은 군에서 매년 22만 명의 새로운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존 세례 신자를 포함하여 매년 25만 명을 사회로 환원시켜 25년 후인(당시는 '95년) 2020년까지 총 625만 명의 신자를 확보하여 이들의 가정까지 복음화하고 국민의 75%인 3,7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가진 국가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²²⁾

20)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합동, 통합),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21)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제2회 한국 군선교심포지엄 자료집」(서울: 군선교연합회, 2002) p. 41.

22) 한국기독교장교연합회, 「군전도방법과 21C 군선교전략」(1997), p. 8, 12.

표3 10년간 세례 영세 수계 추이



2) 비전2020의 성과와 비판

가) 성과

(1) 세례장병의 양적 증가

표4 10년간 세례 영세 수계 현황²³⁾

종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세례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177,003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영세	-	3,397	3,908	3,915	4,739	6,597	6,597	10,618	14,512	21,387	19,687
수계	-	63,580	62,865	63,118	62,136	77,570	77,570	80,607	80,539	83,317	81,542

* 세례는 군선교연합회에서 발표한 국군 통계이며 영세와 수계는 육군군종 50 년사에 수록된 육군의 통계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세례는 95년(186,000 명)과 98년(207,951 명) 대폭 증가했으나 94년 이후로는 대체로 18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전2020운동이 시작('96)되기 전부터 이미 90년도에 시작된 제2기 합동세례식 운

23) 육군본부, p. 587.

동 이후로 세례 장병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²⁴⁾

(2) 한국 교회의 21세기 민족복음화를 위한 교두보로서 학원선교와 함께 단기간에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3) 후방지원 개념으로 1,743교회를 후원교회로 1,372교회를 준회원교회로 확보하여 총 3,115교회가 군선교에 적극적인 교회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는 이 운동이 출발할 당시 목표 회원교회가 1,000개였던 것에 비해 놀라운 양적 증가를 보였을 뿐 아니라 군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4) 모든 군목들이 가지고 있던 '군복음화' 혹은 '군선교'라고 하는 선교적 이상을 구체화하여 한국 교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과업으로 제시되었다.

나) 비판

(1) 노출된 문제점²⁵⁾

다종교 사회에서의 선교 독식은 필연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자극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미 종교간의 갈

24) 예에 참석자는 오히려 2002년이나 1993년이 비슷한 수준(750만 명)을 보이고 있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간 1,1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오히려 300-400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군종 50년사, p. 586).

25) Ibid., p. 6.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비전2020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앞으로 발생할 단계와 과제에 대하여 예견하였다. 즉 양적 성장에 비하여 양육과 제자 훈련이 어렵고 미흡하며 많은 세례신자에 비해 훈련된 제자가 많지 않으며 군목 한 명당 5개 교회를 담임하는 과중한 임무, 군종병의 대대급 이하 비인가 문제, 재정 부족, 군목의 계급구조 취약 등을 그 예로 꼽고 있다.

등요소를 잉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교는 기독교의 독점적 진리 체계에 대한 일반화의 과정이기에 군 내외에서 이에 대한 불편한 소리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조직화, 정책화, 구체화된 선교 전략은 있었지만 이 운동의 특성상 비밀의 원칙이나 정보 차단 원칙 등이 초기 단계부터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홍보에 주력한 나머지 선교전략과 선교 결과 그리고 심지어는 방법론까지 노출되어 타종교에게 비판과 모방의 빌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복음화 중심에서 세례화 중심으로의 본질 왜곡²⁶⁾(세례=복음증거라는 비신학적 공식 성립)

비전2020운동이 한국교회의 국내 선교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운동성을 띠게 되자 세례 숫자의 증가에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제1기 세례운동시부터 제기되었던 이른바 부실신자의 양산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 세례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세례 행사의 진행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일까지도 목격되기에 이르렀다.

(3) 부실신자 양산의 우려

최근 한 부대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병사들의 신앙상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세례장병 중 48%는 세례는 신앙을 가지게 된 표현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응답(그러나 입대 전 사회에서 세례 받은 장병들은 78%가 세례는 신앙을 가졌다는 표현으로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례 받은 장병의 82%가 만드

시 세례 받은 종교 즉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사회에서 세례 받은 병사들은 65%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 심지어 세례 받은 병사들의 약 70%가 세례 받은 것과 상관없이 종교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사회에서 받은 병사는 5%). 훈련소 세례장병의 25%(사회 세례장병, 51%)만이 월 5-8회 정도 종교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며, 세례 받게 된 동기는 분위기(26%)나 먹을 것(20%) 때문인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13%는 강압에 의해, 신앙적 동기는 4%(사회, 30%)에 불과했다. 훈련소 세례장병의 11%는 세례 교육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고 16%는 세례식 행동요령을, 신앙적 내용은 18%만이 기억했다.²⁷⁾

(4) 질적 가치의 문제

비전2020운동에도 불구하고 군 내 신자 추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타종교의 도전으로 인하여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전2020운동이 전개되기 전인 '93년도의 세례 숫자는 128,000명이었는데 이 운동 후 가장 많은 세례자를 기록한 '99년(216,080명)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신자 장병 수는 5천 명 정도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연간 세례 숫자는 8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신자 장병 수는 5천 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신자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단적으로 본다면 세례장병의 숫자와 신자 수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년 18만 명 이상에게 베푸는 세례는 그들의 신앙결정

26) 류호근, “효과적인 해군 군선교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서울: 총신대학교 1998), p. 26.

27) 남송현, p. 83-93.

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세례 과정에서의 교육이나 양육체계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5 육군 최근 10년간 신자 통계²⁸⁾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433,597	446,565	447,918	431,752	417,097	429,172	432,573	427,218	438,449	416,026
기독교	242,464	255,549	249,286	245,424	239,604	248,137	247,936	244,858	253,059	229,044
천주교	67,349	61,574	66,525	61,779	59,986	61,030	58,918	60,825	66,169	71,275
불교	123,184	128,627	131,444	123,754	116,747	119,101	124,965	120,732	118,499	114,682
기타	600	815	663	795	760	904	754	803	722	1,025

한편 국방부 군종실에서 발표한 전군 신자 통계를 종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2001년 신자 국군 신자 통계²⁹⁾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기독교	27 만(56%)	3 만(54%)	2 만3 천(50%)	32 만3 천(56.%)
천주교	7 만(16%)	8 천(14%)	9 천(19%)	8 만7 천(16%)
불교	13 만(27%)	1 만6 천(31%)	1 만4 천(30%)	16 만(27.5%)
계	47 만	5 만4 천	4 만6 천	57 만(99.5%)

* 종교별 %는 신자 장병 대비이며 국군 전체 장병 중 신자는 57만 명으로서 전체의 87%인

28) 육군본부, p. 588.

6. 진중세례식의 현실 진단과 개선 방향

1) 현 실태-본질과 원칙의 상실 위기

가) 성과(숫자) 지향

이를 위해 충분한 교리교육이나 신앙고백 없이 세례 주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개와 믿음이 수반되는 성경적인 세례와는 관계가 없는 행사용 의식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세례와도 관계가 없는 세례 아닌 세례인 것이다. 강압적으로 동원하는 식으로 세례 주는 경우나 기독교간부들을 이용한 우회 압력수단의 발휘 끝에 세례 주는 경우, 지나친 간식으로 세례를 유도하여 세례 주는 경우 등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회개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세례는 용납될 수 없는 ‘그들만의 세례’인 것이다.

나) 세례식의 과시용 행사(이벤트화)로의 변질 우려

진중세례식이 교회나 교회 내의 부서간의 선교 업적 제고용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교의 본질을 염두에 두지 않는 행사 중심의 세례식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다) 군중활동의 왜곡과 편중-세례식은 군중활동의 부분

29) 국방일보, 2002년 4월 29일, 11258호. 각각의 통계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기에 표면적인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통계를 근거로 볼 때에 기독교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 18만 명 내외의 세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 통계로는 27만 정도밖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세례와 복음화와의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세례 장병들이 어떤 의식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중의 부분³⁰⁾

현재 한국군은 육·해·공군 공히 엄청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육군의 경우도 '장교단의 정신혁명'이라는 구호 아래 총장으로부터 초급장교에 이르기까지 자기 삶을 깎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병영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복무기간의 단축, 자유시간의 확대, 분대형 내무실로의 변화, 병사 상호간의 지시 및 명령금지, 분대장 중심의 병사조직 강화, 군기 문란에 대한 예방 및 조치강화, 군 내 사망 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사고의 예방강화, 악성사고 근절을 위한 군중병의 상담요원화 등 군 내에서의 군중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세례식은 군중활동의 출발이며 신자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신자가 있어야 신앙전력화도 가능하다. 신자화운동은 곧 신앙전력 강화운동이다. 그러나 군중활동이 곧 신자화운동과 신자와의 관계만을 고려한 활동은 아닌 것이다. 광의의 군중활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세례운동에 의해 차단되거나 가려진다면 진중 세례운동뿐 아니라 군선교 자체가 근원적으로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 타종파와의 갈등 및 경쟁 초래

(1) 천주교

최근 군중교구에서 강력한 선교의지를 표명하고 군중신부들에게 이를 지시하고 있다. 예비자 교리교육 기간을 12주에

30) 군중활동의 4대 영역은 종교, 교육, 선도, 기타 발전업무인데 그 중에서 세례는 종교활동의 영역 중에서 성례의 영역에 속하며 성례 중에서도 성찬과 세례 중 한 부분이다.

서 5주(신교대 종교행사 참석 가능 기간)로 줄이고 신교대마다 공소를 세우고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 시행하는 총 영세 숫자의 절반이 군에서 시행하는 영세 숫자이다. 논산 훈련소의 경우 천주교, 불교의 종교행사 참석자는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독교의 경우 그만큼 줄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 원인을 깊이 성찰해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2) 불교

천주교보다 소극적이기는 하나 군승단 등에서 집요하게 포교 요충지로 부각시켜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전 21이라는 군 포교 전략을 확정하고 다방면에서 포교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비전2020 운동은 지나친 양적 팽창을 통해 타종교의 선(포)교에 눈을 뜨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세례 숫자의 감소와 질적 퇴보(통계)

운동의 전개가 지속될수록 세례 숫자와 신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략적, 전술적 수정이 요구된다.

바) 세례식에 치중하여 양육과 신자관리 소홀

현실적으로 볼 때 적은 군목 숫자에 많은 병력 수와 교회 수는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사) 지나친 세례행사 집중은 군의 불신 초래 -종교이기주의로 매도³¹⁾

31) 국방부 인사복지국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개발연구센터에 의뢰하여 군중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현 군중제도

2) 개선 방향-본질과 원칙의 준수

가) 세례행사보다 전도(복음화)에 역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고전 1:17)라고 고백한 정황과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명백히 선교현장에서 세례와 복음전파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복음전파는 세례에 우선하며 복음전파 없는 세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소규모로 자주 시행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의 전환 시급

논산 훈련소 등과 같은 대규모 훈련소에서는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단 훈련소나 공군 교육사, 해병대 교육단 등에서는 매 기수별로 세례 교육을 실시하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형 세례식은 지양하고 소규모로 자주 실시하여 군목 1인 혹은 지역단위 군목단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과 규모로 소수다회(小數多回) 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선물공세를 지양하고 간식 등으로 병사들을 유인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세례=선물, 종교행시=간식의 등식을 깨버려야

의 문제점들을 종단 종파간 갈등, 포교 위주의 군종장교 활동, 즉 교세확장에 치중하는 등으로 인해 군종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군종의 기본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도 '03. 4. 25 군종감실 업무보고서에, 절대로 인격지도 교육시간에 선(前)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과 군종장교들간의 팀워크를 다져 부대 내에서 목사, 신부, 법사 사이에 반목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군중 본연의 임무 달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함.

한다. 세례=복음, 종교행시=예배와 안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능의 회복으로 장병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어떤 사단의 경우는 세례식에 특별한 선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도 세례식을 타부대와 같이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세례식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 선교 관계자 외에는 비전2020의 정책이나 세례행사의 실적을 비공개로 하여 타종교 자극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매체에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등급을 부여하여 관리자가 엄격히 유출을 통제하고 문서 생산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 복음제시와 구령을 위한 시스템 마련

군목 개인의 목회관에 따라 좌우되는 폭을 최소화하여 복음제시의 내용을 설정해 주거나 관련 자료 제공 등(진화론 비판, 저명인사 간증 테이프 제작, 영상 선교를 위한 기기 지원 및 소프트웨어 지원, 정기적인 영상 자료 제작 지원, 예를 들면 뮤직 비디오, 폰트 등)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중세례운동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 신병 및 간부 양성기관에 집중

바) 예하 연대나 대대급(육군의 경우)에서는 이삭줍기 차원에서 실시

사) 군 교회 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신자 관리

아) 일반 군중활동과의 조화를 이룸으로 군종장교로서의 신뢰 획득이 중요

자) 병영 내에 기독교 문화(지휘문화, 놀이문화, 윤리의식 제고, 가정사역 등) 확산에도 관심을 가져 선교의 환경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차) 공정하고 정의롭고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

카) 세례식은 세례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중장교 확보나 신자 수 늘리기 등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한다.

맺는 말

세례는 복음의 선포로 인한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베푸는 의식이다.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지상 교회에 위임하신 과제이다. 진중에서 이러한 세례가 운동성을 띠고 베풀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의 진중세례와 1, 2, 3기에 걸친 진중세례운동도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안팎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민족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세례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정책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기독교 내부는 물론 타종교에서의 도전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세례운동은 21세기 민족복음화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역이다. 앞으로 이 운동은 병영과 민간교회에서 더욱더 뜨겁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진중세례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청년들이 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더 바르게, 진지하게, 공정하게,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선교의 현장을 보존

하는 길이며 군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타종교와의 지나친 경쟁은 종교의 기본적인 본질조차 상실한 이기적인 집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곧 선교현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비전2020 운동은 한 장로에 의해 시작된, 그러나 전 군목과 민간교회가 함께 매진할 가치가 있는 선교의 주제이다. 이 운동이 한국 군선교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으며 자칫 소실될 뻔한 각급 교육기관과 훈련소 등에 복음의 불을 밝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혜를 모아 문제점은 보완하고 비전은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진중 복음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애국심과 신앙심



황우여 장로

1. 하나님의 선물 – 국가와 교회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 재림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이전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겹을 사용하여서라도 정의를 지켜야 하는 국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두 선물은 하나님으

- 약력 :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사법대학원 졸업
• 17대 국회의원
• 사단법인 기독교정치연구소 대표

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므로 기독교인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

2. 국가의 500년을 여는 국기

역사를 보건대 한민족은 국가를 건설하면 대개 500년에서 1,000년을 이어간다. 신라가 1,000년이요, 고려, 조선이 500년이였다.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 50년이 되었다. 국기를 튼튼히 하여야 할 때이다. 부패도 일소하고 나라의 체제도 일신하여 500년은 지탱하여야 할 나라의 주춧돌을 놓을 때이다. 이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 국민적 결단으로 승화하여야 한다.

신라, 고려는 당시로서는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었던 불교로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이 때 우리 민족은 불교를 단순히 받아 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세계에서 가장 깊이 있는 대승불교의 꽃을 피웠고 이로써 나라는 건전하게 자라서 이웃 나라들의 잦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1,000년, 500년을 굳건히 지탱할 수 있었다. 나라의 젊은이들은 건전, 용맹하였다. 화랑도의 가르침은 바로 불교를 호국불교로 승화하여 나라와 종교를 하나로 묶어 낸 결과이었다.

조선에서는 당시 가장 깨인 인류의 가르침인 유교를 받아들여 그 연원인 중국보다도 더욱 심오하고 정치한 성리학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정신을 순화하였다. 선비들의 기개는 하

늘을 찌를 듯 높았고 이순신의 구국정신은 실로 선비정신의 모범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울 것인가? 불교를 다시 중흥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유교를 다시 가다듬어 나라의 예의를 다시 찾아 삼강오륜을 빛나게 하면 될 것인가? 모두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또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허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미 인류의 대다수가 참진리로 고백하였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그 정신대로만 나라를 건설하면 세계를 이끄는 강대한 나라, 고상한 나라가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인 기독교만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새로운 정신이요, 합당한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다.

3. 나라의 기본인 군

어느 시대나 강성한 국가는 막강한 군을 전제로 존재하였고 막강한 군은 고도의 정신적 기반을 전제하였다. 군은 단순한 무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은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야만 그 결정체로 적을 제압하고 전승을 얻게 된다. 군에게는 우월한 화력 외에 전술,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에게는 무엇보다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이 없으면 군은 군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충성심은 충성을 바칠 대상과 충성심이 솟아 나올 원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군에서 충성이 솟아 나왔고, 조선의 의장과 의병은 삼강오륜이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충성에서 목숨을 초개로 여겼다. 이

것이 나라의 최후를 보장하였던 군의 기본이었다.

이제 우리 군의 충성의 대상은 이 나라 헌법이다. 충성의 원천은 헌법에 쓰여진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이다. 군의 임무는 바로 이 헌법이 가르치는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부여받은 존엄과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 의하여 이룩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은 헌법이 이 나라에 부여한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가치가 바로 기독교의 정치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계 보편의 진리이다. 고로 우리 군이 지키는 이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기독교의 가치이다. 결국 우리 군은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군장병들이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이는 바로 군이 지켜야 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이해하는 길이요, 이 나라가 지키는 기본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으로도 헌법의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헌법이 생성되고 전파된 역사나 전통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이 가치의 역사적인 생성과정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고려한다면 우리 헌법이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인간관과 국가관에 기인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헌법에 쓰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생명이 없는 건조한 이성의 차원에 머무는 충성일 것이다. 기독교 장병이 아니라면 왜 이 나라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는가를 신념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인류가 취해 온 신앙의 경지에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교회를 지키는 장병들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 투철하여야 한다.

군의 1인 1종교 운동은 우리 나라 군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러한 운동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바로 신앙전력화라는 군의 본질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전력화는 바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신앙하는 군을 양성하는 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것은 이 나라의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가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이므로, 기독교의 전파가 가장 적절한 신앙전력화로 국민들에 의하여 이해되었고 장병들에 의하여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의 1인 1종교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신앙전력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도록 군에서는 힘써야 한다.

4. 다종교사회의 군종제도

우리 나라에도 군종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데 이는 군이라는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목회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우므로 군인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군목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종제도는 그 조직과 제정은 국가의 몫이라도 목회활동은 교회가 담당하고 그 감독 아래 놓이므로 국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종교행사는 군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군종제도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전군을 기독교 신자화하고 군종으로는 군목제만을 두어야 한다고 소망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국가와 군에 대한 믿음 이요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최대 종교로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다종교 사회이고 또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국가는 모든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고향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모든 종교가 군종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군소종단에 군종 문제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국가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특별히 공적으로 종교활동을 조직과 제정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실체를 가진 종교라야 할 것이다. 신구교에 대한 군목과 군승을 군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연유이다.

전통적인 제 종교에 대하여 각기 군종제도가 용납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독교 군종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군 자체의 고유 목적에 의하여 기독교 군종제도를 사실상 우선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므로 종교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비기독교의 군종제도는 군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인정될 정도의 다수 장병으로부터 선호되어야 하고 군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될 것이다. 예컨대 군을 부정하거나 집총거부를 설파하는 종파는 비록 군장병들이 일시적으로 선호한다 하더라도 군의 본질에 배치되는 종파이므로 군종으로

군 안에서 이를 전파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끝으로 헌법가치에 반하는 사이비 종교집 단에 대하여도 군 종제도를 용납할 수는 없다.

5. 징총거부, 양심적 병역기피

‘여호와와 증인’의 징총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제기됨으로써 국가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양심적 병역기피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종파는 지상정부와 국가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므로 한기총을 비롯한 기성 교회에서는 기독교의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징총을 거부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양심상 인정되는 바이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침략전쟁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위전쟁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기 위하여 국토를 침공해 오는 적군에 대하여 총을 들고 전쟁을 해서라도 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자위전쟁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대법원이 양심상 징총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입장에 선 것이다.

다만 헌법적으로는 불가치하게 모든 세계관에 대하여 관용으로 용납하여야 하고 그들에게도 국가의 보호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신념을 정면으로 부인해 버리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서구의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들의 양심적 징총거부를 양심의 발로로 받아들이고 징총을 강요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종교적 신념을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군으로서도 기드온 300용사의 말씀에서 보듯이 징총을 거부하는 사상을 가진 병사들이 군에 들어와서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에 입각한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충성심을 불태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정에 군장병으로 군을 조직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병역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권에서 양심적 병역기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법익의 충돌이 발생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명문으로 분명한 해답을 주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징병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인권기관의 대체적인 경향이다(1998. 77호 UN 인권위원회 결의: 1994. 유럽 의회 결의).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징총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제도가 위헌이라고 보아 대체복무를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더라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단순하게 즉시 대체민사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오히려 국민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대체민사역을 규정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평등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민사역의 내용이나 그 기

간을 병역의 부담에 비하여도 충분히 대등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하며, 민사역의 내용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것이어야 대체성이 인정될 것이다. 또 병역의무는 현역복무를 의미하지, 반드시 징총복무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비전투적 복무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자신은 징총을 거부하면서, 아예 병역을 기피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 가족들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달라는 요구란 비겁하고 수긍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러나 비록 비겁한 자들이거나 진리를 잘못 믿어 나라에 바칠 마땅한 충성심을 저버리고 징총을 거부하는 이단자들을 우리의 목숨을 바쳐 지켜주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관용조차 이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한면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헌법질서라면 우리는 참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이 나라의 지도력은 바로 병역의무를 다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부여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장 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운동



김수진 목사

1. 머리말

한국교회는 흔히들 “황금어장”이라 하면 군부대를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학원선교, 그 다음은 교도소 선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둔화되었고 2003년에 들어서면서는 대형교회의 세습과 비리 등으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세는 계속 감소현상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많은

-
- 약력: • 미국 코헨대학교 신학부 신학박사
• 예장(통합) 교육부 총무
•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원장

교인들이 가족과 함께 레저를 타고 야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역시 교회 출석이 저조한 데다가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교회는 교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만 대형화하려는 물량 제일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청년들은 세상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2. 한국 군선교의 시작과 한경직 목사

1) 한경직 목사는 군선교의 원조이다

한경직 목사는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다가 결국은 신의주 제2교회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됐다. 그는 그 길로 남신의주에 보린원을 설립하고 오고갈 데 없는 노인들과 고아들을 모아 놓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보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1945년 해방을 맞이하자 곧 신의주로 올라가 치안을 담당하면서 일본인들을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돌보았다.

그런데 난데없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었으며, 이때 한경직 목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힘있는 나라로 독립을 해야 한다면서 신의주 제1교회를 시무한 적이 있는 윤하영 목사와 함께 한국 정당사에서는 최초로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다. 이미 한경직 목사나 윤하영 목사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려고

많은 젊은 청년들을 모았었다. 여기에 소련군이 진주하자 공산당이 등장하면서 기독교사회민주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이 조직체를 탄압하고 나섰다.

공산당들은 지방 불량배들을 대수하여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농민들을 선동하여 기독교인이나 지주들을 협박했다. (김양선 해방기독교10년사, 63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55)

생명에 위협을 느꼈던 한경직 목사와 윤하영 목사는 월남을 결심한다. 1945년 10월 초순 두 사람은 트럭과 달구지와 기차를 번갈아 타면서 월남하기 시작하였다. 개성에서 미군의 검문을 받고 이들의 협력으로 서울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그의 절친한 친구 송창근 학장의 덕택으로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인의 가옥인 중구 저동 일본 천리교 경성교구 건물을 인수받아 조선신학교 여자학부 부장으로 여자신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때 이북에서 월남한 신의주 제2교회 교인들이 모여들자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일제 식민지 시대 경성교구 건물에 배다니 전도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1945년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영락교회 출발이 됐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뜻하지 않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KNCC 총무로 재직하고 있던 남궁혁 목사의 주선으로 서울 시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종로 2가에 있는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때 월남했던 대부분의 이북 출신 목사들은 서울을 사수하자고 하였지만 막상 인민군

이 서울을 점령하자 한경직 목사는 교인들이 등을 밀어 마포 쪽으로 가서 할 수 없이 쪽배를 타고 도강하게 됐다. 때마침 안양 쪽으로 달리는 군용차에 다른 군인과 부상병들과 함께 한경직 목사도 군 트럭에 몸을 맡기었다.

이 과정에서 한경직 목사는 김홍일 장군을 만나게 됐다. 김홍일 장군은 한경직 목사와는 평북 오산중학교 동창으로서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전쟁이 터지자 사관생도들은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소위로 임관하여 일제시대 구식 장총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가서 인민군과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힘에 밀려 철수하면서 안양에 집결하게 된 것이다. 이때 김홍일 육사 교장은 한경직 목사에게 부탁을 하였다. 안양초등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정신 훈련을 부탁한 것이다. 이때 한경직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 중인 군인들을 연병장에 모아 놓고 훈화 겸 설교를 하였다.

이렇게 여러 장병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의지 하나를 봐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르긴 해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김수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82쪽, 홍성사, 2000).

한경직 목사는 이때 목사로서 처음으로 군인을 모아 놓고 설교를 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평생토록 군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1951년 1. 4 후퇴 때에는 부산에 실려오는 부상병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친히 부상병을 찾아다니면서

서 위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군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한경직 목사는 상경 후 영락교회가 자리를 잡자 전도부 안에 군선교 담당 팀을 조직하여 매월 1회씩 본인이 직접 전방에 나가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으며, 본인이 갈 수 없을 경우는 전도담당 목사였던 노기원 부목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서도 군대를 “황금어장”이라 외치면서 군선교에 앞장섰던 한경직 목사처럼 한국교회에서 있어서 군선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막중함을 느꼈다. 초교파적으로 군선교를 이끌고 조직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사무실이 요청되자, 영락교회에서는 여전도회관 5층에 한국군선교복음화연합회를 위해 “한경직 기념관”을 선포 내놓기도 하였다.

2) 한경직 목사는 누구인가

마펏(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와 그의 조사 한석진(후에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됨)이 조랑말을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그만 한경직이 살고 있는 간리라고 부르는 산골 마을에 접어들고 말았다. 간리는 평남 평원군 공덕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 도착한 마펏 일행들은 그날 밤 그곳 어느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 씨들이 20여 가구에 모여 살던 이곳에 사랑방 예배를 드린 것이 훗날 반작교회의 시작이 됐다.

평원군 공덕면 간리, 작고 외진 곳이지만 이렇게 우연치 않은 일을 계기로 만날 때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이 마

을의 한 농가에서 한도풍과 청주 이씨의 맏아들 한경직(韓景織)이 태어났다. 1902년 음력 12월 29일이었다(김수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20쪽).

이때부터 한경직은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게 됐으며, 그가 서당에 갈 나이가 됐을 때에 반작교회에서는 진광소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때마침 주일학교를 다니던 한경직은 자연히 진광소학교에 입학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가 다시 오산학당으로 진학하였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한경직은 조만식 교장을 만나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중학교의 전 과정을 마치고 숭실전문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 평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조만식 교장의 추천으로 평양 선교부 방위량 선교사 개인 비서로 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다. 그가 졸업반 무렵 방위량 선교사와 함께 황해도 구미포 해수욕장에 가게 됐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해수욕장을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때 한경직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였다. 이것이 그가 진학을 하게 된 전부였다. 이러한 사실을 방위량 선교사에게 이야기하자 선교사는 너무 좋아서 그를 미국에 있는 엠폴리대학에 보냈다.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경직은 그곳에서 1년간 철학과 심리학을 연구한 후 1926년 그 유명한 프린스턴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프린스턴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개인적인 경건과 학문적 권위를 겸비한 목회자로 훈련 받는 기간이었다. 한경직은 성실하게 공부했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보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학생회 회장으로 활약을 했으며 영어로 설교를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났다(김수진, 위의 책, 32쪽).

그런데 그가 졸업할 무렵 뜻하지 않게 결핵을 앓고 만다. 이 충격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결핵요양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요양을 받게 됐다.

저는 고독한 병실에서 참으로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 2, 3년 동안만이라도 내 겨레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템플턴 상 수상연설문, 3쪽).

한경직은 프린스턴신학교를 마치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1932년 만 8년 만에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 하루하루 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이때 조만식 장로를 만나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평양 숭인상업학교 성경교사 겸 교목으로 일을 하게 됐다. 그때 일본은 철저한 배미사상을 가졌던 때라 한경직을 친미파로 몰아서 그곳에서 쫓아냈다. 다행히 신의주 제1교회 윤하영 목사의 소개로 신의주 제2교회 목회자로 청빙받으면서 그곳에서 첫 목회가 시작됐다. 늦게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한 한경직 목사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어느덧 그의 소문은 전 신의주에 알려지고 교인들이 매주 모여들자 어느덧 3,0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이

렇게 해서 한경직 목사와 교인들은 힘을 모아 신의주에서 아니 평안북도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신축을 하였다.

그는 동분서주하면서 민족 복음화는 군복음화로 출발한다고 외쳤다. 특별히 그는 1984년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총재로서 큰 업적을 남기었으며, 1990년에는 북한의 기아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 해 7월에 홍콩을 통해 쌀 1만 가마를 북한에 보내기도 하였다. 이상의 일들이 인정되어 1992년 4월에 종교인들에게 주는 노벨상과 같은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템플턴 상 수상기념 축하예배 인사말 1992).

그 동안 한경직 목사는 일제의 강제에 의해 신사참배를 했던 일을 평생에 가슴에 안고 다녔지만 템플턴 상을 받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게 됐으며, 2000년 4월 19일 9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남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남기고 간 말은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서 소나무를 꺾어 고향에 있는 반작교회를 짓고 싶다는 말뿐이었다.

3. 군목제도 신설과 군선교

1) 정훈 장교로 출발

우리 나라 군목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국방부가 조직되면서 출발하게 된다. 이때 국방부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3군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미비한 단계였다. 때마침 해군 참모총장이던 손원일 제독은 손정도 목사(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초대의장)의 장남으로서 정훈 장교로 정달빈(감리교 목사)을 임관시키고 정훈 활동을 하였다. 정달빈은 목사였기에 그의 정훈 활동은 당연히 기독교 선교운동이 전부였다. 육군과 공군도 정훈 활동을 하였지만 일반 장교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해군 정달빈 목사의 정훈 활동 업무 중 군선교의 길은 일시 중단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북감리교 쇼우(W. E. Shaw) 목사와 천주교 캐롤(G. Carroll) 신부가 미 8군의 군목 문관으로 입국하였고 이어 한국군 군목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9월 18일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천주교가 “군목제도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표로 장로교의 한경직 목사, 감리교의 유형기 목사, 천주교의 캐롤 신부를 선출하였다. 이들은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군목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청원하였다(이용찬 한국기독교사총론 658-659쪽, 소망사, 1994).

이들의 수고로 각 종교단체에서 예산을 세웠으며, 군목의 신분은 문관으로 하여 군목제도를 승인받게 됐다. 이러한 결과로 1950년 12월 21일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종군 목사가 각 군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이 내려졌다. 이 일로 육군본부에서는 1951년 2월 7일 일반 명령 31호로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종과가 설치되자 목사이면서 일반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김득삼 대위가 육군 초대 군종과장으로 임명을 받아 최초로 육군에 군종제도가 자리를 잡게 됐다.

2) 군종장교 정착

1951년 2월 28일 제1기 군종으로 30여 명의 목사, 신부가 입대하여 대구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무보수 촉탁 문관으로 각 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군부대에 배치되었지만 계급장 없이 문관으로 활동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별히 군 조직은 계급사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관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1년 3개월 간의 무급 문관의 시대를 마감하고 군 계급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수순을 밟는 일환으로 1952년부터 6월 16일 이후부터는 유급 문관으로 일을 하였다. 다시 육군본부에서는 이들에게도 목사 안수 연한에 따라 중위로부터 시작해서 대위, 소령까지 계급을 부여하였다. 1954년 1월 12일에는 일반명령에 의해 군종감실이 설치되면서 그 업무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령까지 계급을 달고 군종참모로서 군종 업무를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민간 교회와 유대를 갖자 군종 업무는 더욱 활발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군목의 사기는 진작되었다.

한편 해군에서는 이보다 훨씬 앞섰다. 이미 정달빈 목사를 정훈 장교로서 활동을 하게 하였지만 해군작전 제34호 명령으로 해군본부에 의해 한국군 창설 이래 제일 먼저 군목실을 설치하였다. 1950년 12월 6일에는 추인봉 목사를 임명하여 군종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시 12월 12일에는 각 군에 중군 목사를 두라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해군 군종장교 복무규

정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공군도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공군 본부에서는 1951년 11월 대구에 있는 연병장에서 공군 군목 업무 발족식을 거행하였다. 역시 해군이나 육군이나 공군 모두 국가의 요청에 의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장병들의 상담에 응하면서 군선교의 장이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아 모든 교단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됐다.

4. 통합측 군선교부 활동

1) 군목위원회 조직

군 내부의 군종 활동은 각 교단마다 큰 기대를 갖게 됐다. 더욱이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군대는 “황금어장”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군목 주일을 지키도록 제안하자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장로교에서는 최초로 총회 내에 군목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군목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전필순, 백낙봉, 정규태, 김현정, 황희섭, 이근호, 김재석, 조승재, 나덕환, 김석진, 명신흥, 이원영, 박내승, 강문호, 이승길 등을 위촉하였다 (1952. 4. 29., 제3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7회 총회록).

군목중앙위원회에서는 매년 12월 첫 주일을 군목주일로 지키기로 협의하자 총회에서는 즉석에서 결의를 했으며, 이 일로 군목중앙위원회에서 예장에 속한 군목들을 각 교회에 배치하여 그 날 설교를 담당하고 군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 이날 특별헌금은 군목의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헌금을 군선교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다.

이처럼 군목중앙위원회의 발족으로 또 하나의 조직이 출범하게 됐다. 1952년 중군목사위원회를 발족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4개 선교부(남북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각 1인씩을 파송하고 한국교회에서 3인으로 구성하여 적극 지원키로 하였는데 당시 파송 받은 군목은 예장에서 목사가 50명, 전도사가 120명으로 전체 교파에 대한 예장이 차지한 비율이 51.9%가 됐다.

따라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군목에 자원 입대하여 광주 상무대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일정한 기초교육을 받고 중위로 임관하여 각 부대에 배치되는 군목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자 군선교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2) 통합측 군선교부 조직

예장 통합측 총회에서는 전도부에 예속됐던 군목부를 상임 부서로 승격시키고 군신자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년에 실시해 오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다. 그런데 해마다 본 교단 출신의 군목 감소현상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본 교단 출신 군목들은 빨리 제대하여 일반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많아 군목은 국민으로서 군 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군목과 군목부원이 한자리에 모여 군목수련회를 갖는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독지가의 도움을 받곤 하였다. 군목의 생활비로는 군종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지교회에서 군목과 자매결연을 맺

고 다소의 목회비를 지원하고 있고 때로는 지교회, 여전도회 등지에서 위문방문을 실시하면서 군목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가곤 했다.

신임 군목 훈련 중(16주) 생활비 보조비를 해당 노회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1977. 9. 15-1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2회 총회 회의록).

군목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회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총회에서 몇 차례 결의를 하였지만 그 일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때마침 군목 출신인 온태원 목사가 최초로 군목부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 온태원 목사가 군목부에 부임하면서 군 목회비 후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7년 제62회 총회시 군목부장 김윤식 목사께서 전군신자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군목부 업무를 맡은 간사 1인을 요청하자, 총회의 허락을 받고 때마침 군에서 예편된 온태원 목사를 간사로 청빙하게 됐다. 총회에서는 그의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일을 해 냄으로써 다시 1980년 제65회 총회에서는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명칭을 바꾸고 군선교부의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선교부의 초대 총무로 온태원 목사가 선임됐다.

온태원 총무는 군선교부의 사업을 파악한 후 군종 장학금 5천만 원을 설정하고 모금운동에 나섰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학기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5년 8월 말 현재 군종 장학금 기금 25,000,000원과 군선교 기금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개 교회나 노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지원금은 큰 힘이 됐다.

3) 군신자화 운동

군목들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토바이 보내기 운동과 승용차 보내기 운동에 많은 교회가 참여하여 90cc 오토바이 2대를 지원하였으며, 역시 승용차 2대를 지원하여 군업무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도록 기증하였다. 군중업무 보급지원은 교통수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군목들 개인에게도 따로 후방교회가 군목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매년 자매결연을 맺었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군신자화운동에 큰 보탬이 되었다. 1985년 8월 말 현재 31개 교회에서 5,850,000 원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한 군목주일을 매년 실시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다. 그러나 1984년 12월 51개 교회와 노회가 군목주일을 지키고 군선교부로 현금을 보내주며, 그 액수는 5,662,820원이었다. 군목주일 현금으로 수입된 재정은 모두 군목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군목들에게는 큰 힘이 됐다.

매년 실시해 온 군선교부 정책협의회는 1년에 1회씩 모이는 이 모임을 보다 활성화시키었으며, 군목수련회도 적극 지원하였다. 여기에 군선교부 정책세미나가 개최되면 언제나 군선교부 부원 및 실행위원, 각 노회 군목부장 등이 참가하여 군선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노회에 돌아가서 군목부가 모일 때나 노회가 개최될 때면 항상 군선교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인식하고

군목지원에 더 힘을 쏟게 됐다.

4) 군목 감축과 민간인 목회자의 협력

군선교부는 총회 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서이다.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60만 대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는 본 교단에서 가장 주요하게 여기고 있다. 여기에 군선교 실행위원회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종사관 후보생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목으로 지원하는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7만 명이 새로 입대하고 37만 명이 제대하여 사회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60만 국군장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은 전 민족을 복음화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 상황으로는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화해와 일치로 연합, 최우선 사업으로 실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현장이 군대임을 인식케 됐다.

군선교부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군선교부에서는 매년 온태원 총무가 지난 1년간의 사업 보고를 할 때마다 박수를 받았다. 그래서 총무는 실행위원회가 모일 때 보다 군종 장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목회 자료를 제공하였다.

군선교가 활발하게 진행하던 중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1992년 그의 공약에 의해 불교의 불승은 90여 명 증가하였으며, 그 대신 군종장교는 280 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본 교단에서 파송했던 군종장교도 자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지자 군선교의 최일선에 있는 군목활동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1993년 승용차 12대를 보급하였으며, 군선교 취약 지역에 민간인 교역자를 29개 처나 파송하였다. 문서선교로 6종

의 도서를 22,080권 보냈으며, 1993년 말에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비역 군목회를 발족하였는데 회장은 총무인 온태원 목사가 맡아 수고를 하였다. 군선교부는 연중 행사인 군선교 정책협의회를 비롯해서 군선교 후원교회협의회, 군중병 영성훈련 지원, 군목 결연 활동 지원사업, 군선교 현장 방문지원, 군인교회 지원 및 민간인 교역자 파송, 장병세례식 집중지원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 교인의 성장은 둔화되는 형편이었지만 군인신앙의 성장은 각 노회, 지교회 단위별로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5. 군선교부와 황금어장

군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군선교부에서는 특별히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목회와 자료집을 본 교단 소속 50여 명에게 지원하는 일을 1990년부터 2001년 1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군선교부 편으로 총무 온태원 목사의 저서인 1991년 <군선교신학>, 1992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를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각 2,000부를 발행하여 전 군중 장교에게 배포하였다.

군선교부의 원활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매년 군선교 정책협의회를 비롯해서 군선교 후원교회협의회, 군중병 영성훈련 지원, 군목 결연운동 지원사업, 군선교 현장 방문지원, 군인교회 지원 및 민간인 교역자 파송, 장병세례식 집중지원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획기적인 사업은 1993년 1월 22-30일까지 러시아 군목제도 협의를 위해서 온태원 총무, 군목

회 고문인 문은식 목사 등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다. 이들의 방문 결과로 1993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군장성(주요책임자) 4명을 초청하여 이들에게도 한국 군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이후 러시아도 군 장교(국방대학원 재학생 45명)들이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에서 야간으로 신학 수업을 받고 장차 군선교로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더 나아가 군목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다.

1995년은 군선교 4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 동안 군선교 사업은 한국교회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군선교 현장에서 1995년 매월 1만5천여 명에서 1만6천여 명이 일시에 세례를 받았다. 지난 1996년 6월 8일 육군 제2훈련소에서 50여 명 목사의 집례로 6,534명의 훈련병에게 세례를 집례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만큼 선교사업이 주요하기 때문에 온태원 총무는 재직 시 총회 군선교부에 대한 군선교 장기발전 계획을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1차년도(1991-1995) 전체군목의 1/6(약 55명), 2차년도(1996-2000) 전체군목의 1/5(약 65명), 3차년도(2001-2005) 전체군목의 1/4(약 85명) 확보, 여기에 우수한 자원확보 관리 운영과 군중사관 후보생 전체 장학회, 장병복음화 계획은 “장병 50% 신자화”, 군목 및 군중병 영성훈련 강화, 간부양성화 집중지원, 군인교회 지원 확대, 군선교 목회자료 발간, 수세장병 전산관리 및 후방교회 연결 등이다. 이미 군목생활을 경험했던 총무 온태원 목사는 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중 후배인 서봉수 총무에게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

년 9월에 부임한 서봉수 목사는 군목의 경험이 있기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군중병 영성교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군목의 T/O가 부족한 탓으로 군중병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사단별로 군목들이 직접 나서는 일에 적극 협력하였다.

특별히 기억할 일은 <선교비전 2020>이 1996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고려파크호텔에서 모여 이필섭 장로(전 합참의장)의 특강에 군선교가 얼마나 주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됐다. 장병 세례식은 육군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 해병대, 해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만만치 않아 장병세례식에 1년 예산을 5,200,000원을 세웠다.

군 통합사령부대가 충남 계룡산쪽으로 옮겨 가자 군선교부와 군선교 후원회의 활동으로 5년 만인 1996년 4월 25일 육·해·공군 본부 새 성전 헌당식(연건평 2,285평, 총 공사비 120억 원 군선교 역사기념관)을 갖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헌당식을 거행하였다(1996. 9. 12-1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7회 총회 회의록).

그러나 1997년 5월에 뜻하지 않게 육군 특수전 학교에서 군중활동에 대해 불교가 문제를 야기하면서 언론과 일부 정당에서 불교의 처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천주교 신부인 군중실장도 기독교 군중 활동에 대해서 폄하의 발언을 야기하자 기독교에서 군목을 파송하고 있는 10개 교단협의회에서 군중 사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대처를 강력하게 하였다. 정부에 항의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중

합하여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된 인사, 신문사를 방문하여 항의를 한 바 있다(1997. 9. 23-2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2회 총회 회의록).

군선교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이벤트는 “비전2020”이었다. 이 일은 국군을 통해 한국 전체 인구의 75% 이상을 신자화하겠다는 운동이다. 그 동안 꾸준한 군선교부의 지원과 군선교부의 후원으로 다른 종파에 비교해서 기독교 신자가 전체 군인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비전2020”은 75% 이상 확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또한 군선교부에서 제85회 현의했던 2개 안건인 1) 군선교부 총무 서봉수 목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재인준해 달라는 건, 2) 총회산하 각 노회 러시아 군장교 1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수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매월 20만 원을 보조하도록 해 달라는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었다. 특별히 1999년과 2000년에 걸쳐서 신축한 교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5사단 신교대교회 6천만 원(명성교회)
 2. 17사단 충성교회 11억5천만 원(영락교회)
 3. 52사단 철마교회 1억 원(안양제일교회)
- (2000. 9.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5회 총회 회의록)

이처럼 새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 사단장은 말할 것도 없이 1주일 내내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에게는 좋은 안식처가 됐다. 끝으로 군선교부의 사업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1년에 1회씩 군선교부 전체 정책협의회를 비롯해서 실행위원회, 임원회 등의 회의를 거쳐, 일선장병에게 승용차 보내기

운동, 군목 및 군중 사병 영성훈련, 각 교회의 부대방문 위문 예배, 각종 진중 세례식 등 다양한 일들을 해 왔다. 이중 육군 훈련소 세례식에 수세자 4,959명(2000. 4. 22. 연무대 연병장 18,000,000만 원 지원)이나 참가하여 놀라운 실적을 나타냈다(2000. 9.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5회 총회 회의록).

이외에도 많은 노회와 교회의 협력으로 진중 세례식을 배플 때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총동원하여 협력해서 군신자화 운동에 매진하고 있음을 볼 때 총회가 벌이고 있는 “비전 2020년”은 성공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노인들만이 남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신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매년 37만 명이 세대하고 37만 명이 훈련병으로 입대하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신자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자연히 청년들로 메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6. 통합측 군선교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통합측 군선교부의 장례식날

통합측은 2003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8회 총회가 인천 주안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농어촌부를 살리라는 예장농목회협의회에서 128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농어촌부를 살리자고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군선교부도 이미 고급장교 출신뿐만 아니라 군목출신들도 여기저기 주간지 신문에 군선교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일찍이 존재의 이유를 발표하였다. 역시 회의장 밖에서도 군선교

부를 살리라고 외쳤지만 결국 전도부, 농어촌부, 군선교부는 기구를 축소하여 국내선교부로 기구개혁이 통과되면서 군선교부는 장례식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 군대는 “황금어장”이라고 부르짖었던 한경직 목사가 살아 계셨다면 이렇게 말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교인은 감소되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군선교부를 말살함으로써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우매한 자들만 있는 집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2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7회 총회시 총회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생명 살리기 10년 선포식”을 거행한 일이 있다. 생명 살리기는 농어촌과 군선교부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무슨 일을 하려고 “생명 살리기 10년 선포식”을 거행했는지 알 수 없다. 이미 각 교회마다 “비전2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군대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군선교에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여기 저기서 외치고 있다. 결국 예장 통합측은 군선교와 농어촌 선교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2) 비전2020에 힘을 쏟아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군선교부는 장례식을 거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를 미리 알고 1998년 “비전 2020”을 제시해 주어서 이 일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하도록 인도하셨다. 이 운동은 군선교를 통해서 한국의 전체 인구 중 75%를 기독교 신자로 만들겠다는 운동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3,700만 명이 되는 통계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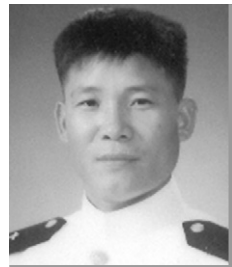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사무실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황금어장”이라 부르짖었던 한경직 목사는 비록 우리와 생을 달리했지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사무실 때문에 늘 걱정하던 한경직 목사의 그 뜻을 알았던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가 1988년 “한경직기념관”으로 준비해 두었던 그 자리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과 한국교회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 여기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는 지방 조직을 강화하고 그 지방을 지회라 부르면서 중부지회, 대구경북지회, 동부지회, 전북지회, 울산지회, 강원지회, 강원영동지회, 부산지회, 광주지회, 제주지회, 충북지회, 경남지회, 전남동지회, 충남지회 등을 두고 총가동하고 있다.

7. 결론

하나님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아시고 한국군선교후원회가 예장 통합측 본부와 가까운 거리에 자리를 잡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 앞으로 예장 통합측이 할 수 없는 그 일까지 꺼안고 갈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통합측의 군선교부를 장려했지만, 하나님은 한국의 젊은 군인을 사랑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고, 예장 통합측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한국군선교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군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돌아와서도 신앙으로 더욱 장성하여 다시 통합측 군선교부가 부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조성현 군종목사

I.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오늘날 한국 교회의 화두는 개혁이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유대의 회복 혹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루살렘성의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

- 약력 : • 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과정(Ph. D.)
• 해병대강화교회 담임목사

다(느 4:1-23). 유대 백성들에게 성벽의 재건은 매우 중요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없다. 성벽의 재건 없이 유대인은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폐허가 된 유대의 성벽 재건을 통해 외적의 침입을 막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유대에 다시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원했던 하나님은 현재 한국 군목의 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

군대교회와 군인신자와 군종장교의 개혁 없이는 복음화는 더욱 후퇴할 것이다.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군종병과를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 군종장교들은 가족 위주의 목회와 진급을 위한 몸부림과 교단의 입김 속에 오직 군대에 오래 남아 있으려고만 하고 있다. 현 한국 군종제도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3종파의 선교와 포교의 각축장일 뿐만 아니라 개인 진급이나 행정 면에서도 그러하다. 최초에는 기독교에서 군종병과를 만들고 군목들이 매년 담당했던 각 군 군종감 및 3군을 대표하는 군종실장까지도 3종파 안배를 해야 하며 나누먹기식 행정과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타종파 눈치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3종파 안배에서 또 기독교 내 12개 교단끼리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인하여 우수한 자원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기독교 군종장교 관리에 있어서도 교단주의로 인하여 자기 교단만 찾는 교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다. 교단이 없어야 할 군대에 12개 교단이 엄연히 존재하여 교단 간의 모든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천주교는 군종

교구¹⁾에서 불교는 조계종에 군종 담당을 두어 일원화하고 있어 군종장교 관리 및 선교와 포교 활동에 원활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 한국군종목사단과 육군·해군·공군 군종목사단이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한국군종목사단과 각 군 군종목사단에서는 교단주의가 팽배한 현 제도 상황에서는 원활한 군목관리와 선교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군종목사 파송교단 협의회(12개 교단) 및 한국군종목사단과 각 군 군종목사단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통합하여 위상강화와 위상정립을 통하여 군종장교 선발, 교육, 관리 및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일원화해야 한다.

한국군은 3군 체제이지만 육군, 공군, 해군 등 각 군과 해병대를 따로 두고 있다.²⁾ 해병대와 해군은 장병들이나 복제도 다르고 임무수행에 있어 성격이 다르며 복무환경도 다르다. 원활하고 활발한 해병대 복음화를 위해서는 해병대 사령부에 해병대 군종감실이 설치되어 해병대 복음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겠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 1) 1961.11.20 군종신부단을 주교회의 산하 단체로 인준
1966.5.12 주교회의에서 교구 신부 10%를 군종신부로 파견할 것을 결의
1989.10.23 교황청에서 군종교구 창설과 정명조 신부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임명(국내 발표 11월 11일)
1990.2.13 초대 군종교구장 정명조 신부의 주교 서품(서울 명동성당)
1990.9.14 한국 천주교 군종교구 유지재단법인 설립
- 2) 국군조직법 제2조 1항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먼저 현 한국 군종제도와 군목제도를 살펴보고 해군·해병대의 현재 군종활동과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군종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종장교 선발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방향을 서술할 것이다.

한국 군종사와 해군 군종사를 해병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군종사를 통하여 해병대 군종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 군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천주교와 불교 군종제도를 살펴본 후 군목제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 군목제도의 현황과 미래

1. 한국 군종제도의 현황

미국 선교는 남북 전쟁 이후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 군대에 군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흑인들을 포함한 비영국계 사람들 등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받아들여 전체 미국이 기독교화되었다. 개신교 개종도 역시 국가권력의 중심인 군과 통수권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상태로 6.25전쟁 때 미군 군목제도를 본떠 한국군에 군목제도가 들어오고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를 지향하여 지금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선교의 선교사적 의미를 되새길 때다. 우리 나라 군선교는 1950년 카투사 병사가 이승만 박사에게 미군 군목이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보고 탄원서를 낸 데서 비롯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경직 목사, 백낙준 박사, 조지 연

태를 8군 군종부장 등에게 부탁하여 인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국방장관(신성모)에게 군종병과 창설을 지시했다. 당시 군종장교는 목사 약 400여 명, 신부 80여 명 등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 1965년 월남파병 때 육영수 여사의 발의로 군대에 군승(법사)이 추가로 보직되면서 군목의 공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950년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계에서 만든 체플린 제도에 승려들이 들어오더니 태고종, 천태종, 원불교까지 들어오고 제7안식교, 물본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까지 군종장교로 들어오려고 한다. 군목직책을 군무원으로 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한때 거론됐던 군종병과 개선 및 폐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위 관계자들은 군종목사 제도를 군무원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종파간 경쟁으로 인한 진중세례와 인사 청탁 등의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군종장교 파송 기준은 군 내 신자 수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 내 신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세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겼으며 또 타보직과 달리 진급의 기회가 적은 관계로 발생하는 군종장교간의 경쟁 등도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타종교에 군종장교 문호를 개방하는 병역법 시행령의 실시도 2003년 8월 1일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독교계의 의견은 마치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 정도로 치부돼 버리는 실정이다. 기독교계는 전국민 신자 5% 이상은 되어야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

원불교 측은 군대 내 종교시설에 대한 경비를 자체 부담키로 하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교세가 큰 전북지역과 논산훈련소 등 두 곳만이라도 교무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군목과송교단협의회(대표회장 최병곤 목사)는 국방부가 국내 3대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외의 종교단체 성직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공식 면담을 통해 원불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비해 신도 수가 훨씬 적어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데도 군종장교 파견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방부가 원불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경우 기타 군소 교단에까지 이같은 기류가 확산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기도 하였다.³⁾

2. 한국 군목제도의 미래

한국 군종장교 제도는 군종사관 후보생 규정과 군종장교요원 선발규정에 의해 후보생과 요원 두 가지를 선용하여 선발하고 있다.⁴⁾

기독교에서는 후보생을 기본으로 뽑고⁵⁾ 요원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천주교는 거의 99% 이상 요원제도를 선용

3) 출처: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4)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규정과 군종장교요원 선발 규정

하고 있다. 불교는 지원자를 고려해서 요원과 후보생을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발하여 2001년까지는 3사관학교에서 12주 교육을 받고 입관 후 해군·해병대 군종장교 충원은 3주간 해군화 교육을 받은 후 각 임지로 발령을 받았다.

2002년도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9주의 3사관학교 교육 도중 사관후보생으로 입관 전에 일주일 동안 받고 각군 행정교육기관에 가서 받고 다시 3사관학교에 가서 입관한다. 해군·해병대에 갈 군종장교들은 위탁교육으로 일주일간 초군반이 아니라 사관 후보생 자격으로 해군화 교육을 진해 행정학교에서 받는다.

해군화 교육은 거의 해군에 대해 교육하며 해병대에 대해서는 거의 없으며 거의 대다수가 초임지를 해병대로 가게 된다.

군인사법 군종장교 임용규정에 학사자격이 있는 성직⁶⁾을

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신대학교 2002년도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요강 발표 “응모 자격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1학년이라면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 원서 배부 및 접수는 학생지원과에서 하며 접수는 6월 3일에서 7일까지이다.

선발 시험은 필기와 면접, 신체 검사로 나뉘는데 필기시험은 국어, 국사, 국민윤리, 사회, 영어 5과목으로 7월 5일 9시에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다. 필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7월 16일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7월 30일 면접 시험을 보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이며, 작년에 우리 학교는 9명으로 신학대학 중 최다 후보생을 배출했다.”

군종사관 후보생이 되면 대학기 군종 장학금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대원까지 7년간 공부한 후 군대를 중위나 대위로 입관한다.

군종장교 특수성을 고려하여 목회학 석사과정에서 후보생을 뽑든지 전국의 각 목회 사명을 가진 대학교 1-2학년에게 응시 자격을 주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야 한다.

받은 후 3년의 사회 경력이 있으면 대위로 임관한다는 규정으로 2년 11개월 이상이면 대위를 달아준다. 여기에서 성직이란 국방부와 각군 인사담당 유권해석에 의해 기독교는 목사 안수 받은 후이며, 천주교는 서품을 받은 후이고 불교는 승려신분을 받은 후인데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는 학부 4년과 대학원 과정 3년을 마친 후 요원은 평균 2년 정도 후에, 후보생은 거의 졸업 후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신부 서품은 대학원을 졸업하면 바로 받으며 승려는 학부 때에도 받을 수 있어 임관할 때 군 생활과 복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일원화

천주교는 군종교구에서, 불교는 조계종 군종담당에서 군종장교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는 예에서 보듯 창구 일원화는 연대 군종장교에까지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선교, 행정 보고 등 군종장교 관리 및 장기발전에 유용하다.

한국 군종장교는 종단의 일원이며 국군장교단의 일원이다. 국군장교단으로서 국방부와 각 군본부를 통해 통제를 하지만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 기독교는 한국군종목사단과 각 군종목사단과 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12개 교단 중 소속 교단

6) 군인사법(1999.1.29 개정) 법률 제5703호 제4장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항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학사 이상을 석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 성직자의 자질 및 제도에 부합하다.

총회와 노회의 통제와 관리와 후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 군목의 미래는 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창구 일원화에 달려 있다.

신병교육대상과 장교후보생용, 일반 기독장병용 등 계층별 영상물 제작보급과 예배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찬양집 회프로그래프 개발과 사이버 공간에서 기독문화 개발을 비롯해 음주, 흡연, 결혼가정, 이성친구 등 테마별 기독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군종목사 재충전 과정 및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지순례 지속, 대학원 과정(박사) 장학금 지급, 전역 후 목회지 연결 등이 있다.⁷⁾

군목단에서는 인사발령과 진급, 장기, 연장 등을 군선교연합회와 협의해야 한다. 교단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각 교단간의 천차만별한 지원금과 각 교단 수련회의 차별성 그리고 교단간의 각각 다른 군목단합대회 개최와 총회참석과 노회참석이 있으며 각 교단에서는 자기교단 군목을 더 군대에 보내고 연장, 장기, 진급을 위해 로비가 극심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열심과 사명감 및 업무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에 비해 불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군목 후보생에게 목사 안수를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다. 12개 교단간 눈치보며 목사 안수 빨리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와의 경쟁과 비교 속에 불합리한 성직개념과 시기를 고쳐야 하며 신부, 법사는 상

7) 제11회 군종목사 영성훈련 세미나(2002), p.103,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근이든 현역이든 군대만 갔다 와도 대위 임관이 되고 또는 경력이 기독교보다 훨씬 빠르기에 군 장교로서 기독교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군목의 자질은 사명감과 열심 그리고 설교, 심방 등 목회방법, 복장, 출근 등 목회능력과 업무능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중심으로 한국 군목단과 파송교단을 흡수하여 군목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겠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소요를 산정하여 각 기독교 신문과 국민일보에 공개모집하고 공개경쟁시험과 철저한 면접을 통해 우수한 군목 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⁸⁾

4. 해병대 군종감실 부활

해군의 군종업무는 1948년 9월 15일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의 초빙으로 정달빈 목사가 입대하여 해군 중위의 계급을 부여 받고 정훈감실 교화과장으로 임명되어 3군 최초로 군종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는 1949년 2월 5일 용산 국방부 관사 33호에서 한국군 최초로 군인교회를 창립했다.

1950년 12월 6일 해본작편 제33호에 의하여 해군 안에 정식으로 군목실이 창설되어 초대 해군본부 군목실장으로 추인 봉 군목(대위)이 취임하였고, 그 뒤 1950년 12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각 군 안에 군종목사를 두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 12월 6일자로 제정 시달된 군종업무 잠정규정을 보완하여 전문 5장 12조 22항과 세칙 7조 12항으로 된 해군

군종장교 복무규정을 법제화하였다(1951.6.22).

1951년 3월 12일 해병대사령부 교회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6월 5일에는 해군 1기로 박창번(대위), 오봉운, 이원동, 송창설(이상 중위) 목사가 해병대 최초로 군종장교로 임관했으며 해군의 교육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병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1952년 5월 7일 해병특과 6기로 군목 2명이 임관했으며 동년 7월 10일 해병특과 7기로 군목(중위) 6명과 신부(중위) 1명이 임관하였다.

1955년 4월 1일 해병대 김포 전투단 교회가 창설되었다. 1955년 5월 1일 해병대사령부 교회에서 수도 탈환 기념예배를 거행하였다. 한편 해병대사령부 군종감은 초대 장덕환(문관, 1951.3.10-1951.5.26), 2대 송흥국(문관, 1951.5.27-1951.8.27), 3대 박창번 군목(대위, 1951.8.27-1952.9.24), 4대 박창선 군목(대위, 1952.9.25-1955.2.20)으로 이어지다가 1955년 2월 20일 제5대 해병대사령부 군종감으로 유영근 군목(소령)이 취임하였으며 7월 25일 해병대사령부 군종감실에서는 기관지 「불기둥」을 발행하였다. 1956년 1월 9일 해병대 교육단의 한기원 군목(대위)과 문희석 중령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장교회(OCU)를 조직하였으며, 박창선 군목(중령)이 6월 8일 4대 해군 군종감으로 취임하였다.

1956년 6월 10일 해병대사령부 교회가 신축되고 1956년 10월 9일 포항해병대기지 교회가 창설되었다. 1961년 5월 29일에는 송창설 군목(중령)이 제8대 해병대 군종감으로 취임하였고, 1962년 6월 1일 해병대사령부 군종실이 군종감실로 승격되었으며 4월 17일에는 김광덕 군목(중령)이 제9대 해병대 군종감에 취임했다.

8) 현재 매년 목사 30명, 신부 19명, 법사 19명 등 총 58명을 선발하고 있다.

1963년 11월 12일에는 제10대 해병대 군중감으로 한기원 군목(중령)이 취임하였으며 11월 15일에는 송창설 군목(대령)이 제7대 해군 군중감으로 취임하였다. 1964년 11월 28일에는 김광덕 군목(대령)이 제8대 해군 군중감으로 이종영 군목(중령)이 제11대 해병대 군중감으로 각각 취임하였다. 1968년 10월 21일에는 손홍수 군목(중령)이 12대 군중감으로 취임하였으며 12월 22일 애기봉에서 대북방송 성탄예배를 실시하고 통일 제적봉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을 거행하였다. 1969년 12월 5일 해병대교육기지 교회 신축, 12월 18일에는 애기봉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을 가지고 대북방송 성탄예배를 실시하였다.

1973년 2월 15일에는 주계명 군목(중령)이 해병대 제14대 군중감으로, 4월 10일에는 김용원 군목(대령)이 해군 군중감으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12월 8일 해병대11연대 교회를 신축하였다.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 해체로 해병대 군중감실이 해군에 병합되었다. 1974년 11월 20일 고용수(현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군목의 편집으로 “해군 기도서”가 3,000부 발행되었다.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부대가 해군에 통폐합되면서 6명의 인원이 감소되어 30명의 인원을 33명으로 증원하였고 35명을 운영했다.

1976년 7월에는 청룡부대에 부임한 양해범 중대장이 이승환 군목(대위)과 더불어 군의 정신전력 강화는 철저한 신앙에서 이룩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예수중대를 만들어 성공적인 지휘사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대 전체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놀라운 전투력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었다.

지금까지는 해군 특교대에서 교육을 받고 임관했으나 1979년부터는 국방부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각군에서 실무교육을 1개월 받고 임관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육을 받고 군목 4명, 신부 1명, 법사 1명이 군중 1기로 임관했다.⁹⁾

2003년까지 군중장교는 국방부 통합교육으로 61기까지 배출되었으며 공군과 육군은 통합적으로 61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직 해군만 1979년 이전에 임관했던 선배 기수를 무시하고 1979년부터 임관한 기수를 군중 1기로 하여 2003년 임관 기수를 군중 25기라고 하며 해군 공식문서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역사를 살펴보면 해병대가 모든 면에서 선봉이 되어 우수한 군중활동을 하였으며 해병대사령부에 군중감실과 군중감이 있어서 오히려 해군보다 병력 수도 많고 지역도 방대하기에 군 신앙전력화에 헌신해 왔다.

해병대는 다시 1987년 부활이 됐건만 군중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해군본부 군중감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군중은 해군 소속이 되어 해병대에 가서는 해병대 복장만 입은 채 업무를 하고 있다. 해병대 군중장교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해군이라는 마음으로 군중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병대 복음화에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다. 명찰만 빨간 명찰을 달았다고 해병대 병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교방법대로 그들속에 들어가 인카네이션

9) 군중장교 초군반 학습지침서, 2001. 해군교육사령부 행정학교 p. 2-12.

(성육신)했던 체휼의 방법으로 다가가려면 머리도 해병대와 같이 깎아야 하고 모자도 팔각모를 쓰고 다녀야 한다.

해병대 군중감실이 없기에 해병대 군중업무는 해군에 비해 극히 위축되고 약해져만 가고 있으며 해병대 초도보급품은 하나도 없이 해군 것만 모두 초도보급을 하기에 해병대에 부임한 군중장교는 많은 개인 돈을 들여 해병대 복장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해병대 사령부의 군중감실을 반드시 부활시켜 해군과 많은 면에서 성격이 다른 해병대만의 군중장교들이 있어서 해병대 군중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해군본부 군중감실의 방만한 인원과 예산을 해병대 사령부 군중감실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단급 이상이거나 군중장교 3명 이상이면 군중통합 사무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¹⁰⁾ 없는 곳이 많이 있다. 정훈실에 정훈참모가 있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군중실을 설치하여 인사에 소속된 군중장교, 군중과장, 군중실장이 아니라 모름지기 지휘관의 특별참모인 군중참모의 위상을 반드시 찾아야 하겠다. 또한 군중은 인사와도 가깝지만 오히려 정훈과 더 가깝기에 정훈 쪽과 긴밀한 협조공조 속에 반복되거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중장교는 정체성이 없으며 국

군장교단의 일원으로서 해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으로 해병대 군중장교는 해병대 사령부 군중감실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며 교육하고 보고받는 해병대 군중장교와 군목의 정체성 회복과 해군보다 빨랐던 군중감과 제도를 과감히 부활하여 예수정신과 해병대 정신으로 낙후되어 가는 해병대 복음화에 박차를 가하여 해군복음화, 전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

III. 결론

우리 기독교는 개혁주의적이다. 군대교회와 군인신자와 군종장교의 개혁 없이는 복음화는 더욱 후퇴할 것이다. 집안싸움에서 벗어나 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통한 군복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해병대 사령부 군중감실 부활을 통하여 이 땅과 전세계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겠다.

10) 해군규정 12권 군중규정(전 평시용) 제2장 군중업무 제9조 군중장교회의 및 통합사무실 운영 4항 “각 부대장은 중단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참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함대급 사단급 이상 부대와 군중장교 3명 이상 보직된 부대에 군중통합사무실을 설치 운영한다.” 1978.3.16(제1호) 제정, 1999.7.22(제545호) 개정, p.12-17.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



임성빈 목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문화적 역량이 확장될수록 전통에 젖어 있거나 기존의 문화와 형식에 익숙한 어른들이 느끼는 문화적 소외감이나 거리감은 커져 간다. 이러한 문화적 거리를 좁혀서 사회의 유기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가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문화의 흐름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 약력 : •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문화선교연구원장

급변하는 문화변동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지 사회적 통합의 과제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한국 교회로서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정황 속에서도 복음의 정체성을 적절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목회적, 선교적 사명의 달성이란 측면에서 사회문화변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변동에 대한 무감각과 부적절한 대응은 결국 교회의 정체성 위기와 함께 선교적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새로운 문화적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N세대'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N세대는 이전의 세대들과는 여러 의미에서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N세대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선교의 전제가 된다. 본 소고의 목적 중 하나는 이른바 N세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문화에 대한 분석과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21세기적 정황 아래에서의 적절하면서도 통합적인 복음 소통(communication)의 사역 일부분을 담당함을 모색함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N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는 병영문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N세대 문화와 병영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은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 분석과 함께 해결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대간의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 선교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 N세대 문화의 정체성

1. N세대란 누구인가?

‘N세대(Net Generation)’라는 명칭은 새로운 소비층과 트렌드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소비산업영역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따라서 당연히 미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와 다른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1) 미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N세대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학적인 세대 구분은 이른바 ‘베이비 붐(Baby boom)’ 시기를 기준으로 시도되었다.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경제호황과 함께 TV 등 방송매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통칭한다. 1946년에서 1964년까지의 20여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대에 속한다. 또한 1965년 이후 갑자기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세대를 ‘베이비 버스트(bust)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77년부터 최근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어른이 되어 출산을 하는 때를 베이비 부머의 메아리가 전해졌다는 의미로 ‘메아리 세대’로 지칭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N세대는 바로 이 메아리 세대를 의미한다.¹⁾

한편 X세대, N세대라는 구분은 미국의 소비산업의 마케팅

과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전통적인 학계에서는 X세대, Y세대, N세대라는 구분에 내재한 상업주의적 발상과 기획 의도를 비판한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어 소비와 이윤 창출에 힘을 기울이는 각종 매스컴과 기업들에 의해서 관용어로 굳어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이러한 구분들이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조작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문화가 시기적으로 고유하고 독특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업주의적 산물이 라고만 말할 수도 없다.

보통 베이비 부머에 연이은 베이비 버스트 세대가 ‘X세대’에 해당한다고 본다. X세대는 기성세대(베이비 부머)와 이질적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살며, 자기중심을 지향하면서 소비에 아주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어 ‘Y세대’는 메아리세대와 대응하며,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출생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 마케팅 관점에서 이 Y세대를 잘 공략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지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며, 전략적으로 X세대와 Y세대를 구분했다.

‘X세대’ 곧 버스트 세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세대이다. 그러나 막상 이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1980년대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배운 지식과 성취욕구는 높았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큰 좌절을 맛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동요나 불안정에 이들은 나름의 대응방식으로 저항문화를 보여주었고, 이들의 문화적 특성이 기존의 문화적

1) 돈 탭스콧, 허운나, 유영만 옮김,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폴푸레, 1999), 52-58.

특성에 견주어 볼 때 마땅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X세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진 메아리 세대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세대라는 의미에서 'Y세대'로 불렸다. 그러나 이 이름은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하였고 곧 'N세대'로 흡수되었다. 미래학자인 돈 탭스콧이 지은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Growing Up Digital: Net Generation*)>이라는 책은 본격적으로 N세대를 다루면서 그 세대의 특성과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확장됨에 따라 N세대는 인터넷 시대의 주역이라고 평가되었다.

최근 마케팅 영역에서는 N세대라고 하기에는 어리지만 8세에서 14세 사이인 'Z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사이(between)에서 유래한 트윈(tween)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는 맞벌이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독립심이 강하다. 이들은 앞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쇼핑 등에 있어 의사결정권을 갖고 구매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의 대상이 된다.

(2) 한국적 상황과 N세대

한국에서 N세대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이는 386세대가 X세대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다른 이는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는 베이비 붐 세대는 우리의 386세대 또는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5·16사건이 있던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뉜다. 미국사회에서 20년 간격으로 사회적 특징을 베이비 부머, 베이

비 버스트, 메아리 세대로 나눠 구분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근대와 후기 근대를 거의 동시에 경험하고 있듯이 세대적 특징도 혼합적으로 당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통시적으로 구분되는 시기적 특징이 포착되지 않으므로 사실 한국에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세대를 구분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X세대가 보이는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렸고, 부모 세대에 비하여 훨씬 풍족하게 자란 세대가 X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문민정부로 상징되는 민주화가 가시적으로 진전될 무렵 20대를 시작한 행운의 세대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취업에 곤란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령적으로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속한 이들은 이전 세대들, 그 중에서도 바로 위 세대인 386세대와도 문화인식과 양상에 있어서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386세대'는 현재 30대(혹은 40대 초반)로서 1980년대 대학을 다녔고, 19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 대학 생활에서 나름대로 민주화도 경험했지만 유신은 경험하지 않아 유신을 경험한 세대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낡은 세대라고도 불리는 지금의 40대, 즉 457세대는 1950년대에 출생하여, 197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내면서 유신시대 속에서 급격한 시국변동과 많은 시위를 하며 지낸 세대지만 그들의 당대에는 시대 변혁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한 뿌리 깊은 좌절감을 가진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386세대는

6.29선언 이후 실질적인 민주화를 성취함으로써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 구별된다.

결국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세대 구분, 예컨대 베이비 부머·베이비 버스터·메아리 세대로 이어지는 연계적 세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도리어 구세대와 신세대로 크게 나눈이 사회문화변동의 추이를 차별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X세대 이후를 신세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세대의 차별적 특징은 자기주장이 매우 강하고 자신감이 깊어 구세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세대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반면, 신세대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분명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떳떳하다. 구세대는 죄책감과 혼동될 정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긴장된 삶을 사는 데 비해서, 신세대는 비교적 개인주의적 토대에서 자기가 느낀 대로 행동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대조적으로 구세대는 사회가 정해 놓은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경계가 명확해서 나이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문화양식도 분명하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세대 구분은 크게 보아 전통적인 가치관과 형식에 익숙한 구세대와 새로운 가치관과 풍요로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사는 신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바 N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신, 구세대 구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지는 문화를 동반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N세대 문화의 차별성은 디지털 매체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소통(communication) 방법의 변화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2. N세대와 디지털 매체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환경이 사회적 망(social network)으로 정착되고 보편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신세대를 일반적으로 N세대라 한다. 베이비 붐 세대나 베이비 버스터 세대가 TV세대라면 메아리세대와 연결되는 N세대는 그 접촉 매체를 기준으로 할 때 컴퓨터 세대라고 할 수 있다. TV는 방송사나 공급자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시청하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 컴퓨터는 채팅이나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쌍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멀티미디어적 디지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N세대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컴퓨터로 상징하는 디지털 매체와 그에 따른 문화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²⁾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디지털이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날로그 시스템은 정보를 전송하면서 음성이나 화면이 원본과 질적으로 달라지지만, 디지털 시스템은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정보의 이동을 보장한다. 이것은 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 또한 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높다.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존해서 사회를 유지한 과거 사회에서는 거리나 시간이 정보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으로 작용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획기적으로 극복될

2) Ibid., 59-62.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무한대로 원래 원본에 가깝게 복사되어 전파될 수 있다. 공간적 거리는 무력해지고 나와 세계가 컴퓨터라는 디지털 공간 속에서 연결된다.³⁾

디지털 매체는 삶의 양상을 통합된 형태로 만든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워드프로세서, TV, 영화, 커뮤니케이션 등이 모두 가능하다. 따로따로 하던 것들이 한 매체 안에서 종합하여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요즘 대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강의듣기를 참 싫어한다. 학기말에 수업평가를 받아 보면, 선생님 말씀 좀 그만 하고 우리 이야기 할 시간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기성세대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만, N세대는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복합체제는 소위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욱 발전한다. 네트워킹을 이용하면 디지털 사회가 마치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 같으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그물망의 사회가 된다. 또한 정보나 문화의 대중화가 보급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탈 대중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매니아니 엽기니 하는 것들이 모두 이러한 현상이다. 컴퓨터를 통해 이제는 내가 보고

3) 참조 김영석,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정보사회와 우리』, 59-60.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방식과의 대조를 통하여 그 특성을 간결하게 설명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방식은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하지만 전기적인 강약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변환된 신호가 전파나 유선망과 같은 전송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정보의 왜곡이나 변형이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디지털 신호는 “원정보의 재생 능력”과 “다양한 정보간의 상호호환성”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장점을 가진다.

싶은 것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점점 자기가 탈 대중화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특별한 개성을 발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케이블 네트워킹이 백여 개 늘어나고 앞으로 수백 개씩 늘어나는 것은 다 탈 대중화 현상이다. 자신의 취미에 따라서 스포츠 채널 속의 축구, 골프전문채널 등을 보면서 더욱 개인화되고 점차 전문화를 추구한다. 이런 선택은 직업의 전문성으로 더욱 이어져 간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N세대 문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며 세계의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N세대 문화의 성격, 가치관의 특징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자란 N세대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나름대로 공통성을 가지는데, 돈 탭스콧은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⁴⁾

첫째, 독립심이 매우 강하다. 때로 개인적이고 분자화된다는 지적을 받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지적인 개방성이 뚜렷하다. 컴퓨터로 연결된 넓은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전 세대가 가지는 문화적 폐쇄성을 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위험할 정도로 개방성이 강해 세대간에 갈등을 빚지만, N세대는 개방성이 기본이다.

셋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포용성이 강하다. 자유로

4) 돈 탭스콧 op. cit., 140-141.

운 표현과 강한 주장이 함께 나타나고 변화와 개혁을 잘 수용한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가상공간에서는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어서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이런 사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더욱이 그 자아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릴 수 있다.

넷째, 아주 새로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혁신에 익숙하다.

다섯째, 자기 선호도에 따라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게임도 하나의 열정을 쏟을 만한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무엇이든 최고가 되거나 능력을 인정받으면 큰 자부심을 갖게 된다.

여섯째,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도 강하다.

일곱째, 새로운 것이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성급하다. 사이버 공간이나 인터넷 네트워킹의 세계는 속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구한다.

여덟째, 매우 빠른 속도감을 즐긴다. 그렇다고 이들의 속도감을 대책 없는 성급함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사실 그들은 항상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통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면서 신뢰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네트워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인데 여기에는 항상 계속 확인하는 중간 과정이 요구되곤 한다.

위에서의 문화 현상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N세대의 성격

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기성세대에 비해 뛰어나다. 둘째 호기심이 많다. 셋째 자기주장이 확실하다. 자기의존(self-reliance)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기성세대는 집단적이면서도 의타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⁵⁾

이와 함께 N세대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적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과한다. N세대는 사교육이나 자기 자신의 비공식교육을 포함해서 자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받는 것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둘째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높다.⁶⁾ 예컨대 N세대의 아주 특별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스스로 자신들을 천재 아니면 왕자, 공주라고 생각한다. 셋째 예쁘고 멋있고 당당한 것을 찾아 신체를 기꾸는 일에도 열심이다. 더욱이 신체적인 조건에 높은 가치관을 부여한다.

4. 예상되는 세대간 갈등

돈 탭스콧은 무조건 1977년부터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N세대를 나눈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기성세대는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해도 N세대처럼 컴퓨터를 주어진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접한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사용, 활용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5) Ibid., 153-155.

6) Ibid., 160-161.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기도 하지만 글 교정을 할 때는 프린터를 해서 종이로 봐야지 그때부터 잘 보이곤 한다. 그러나 컴퓨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서 교정을 보고 모니터로 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처럼 N세대 문화는 점차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점점 N세대 문화가 널리 퍼져 가면서 세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N세대들에게 점차로 기독교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높은 자기의존심과 능력, 독립심은 모든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기성세대에게 강력한 도전세력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새로운 매체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공중파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관리자와 설비와 규칙은 기성세대에게서 이뤄지는 데 반해 활용의 주체는 N세대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소유와 통제와 수익을 누리는데 비해 N세대는 너무나 익숙하다.

셋째, 기성세대는 흑백논리에 익숙한 데 비해서 N세대는 아무런 무리 없이 문화적인, 또는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문제도 인권이나 개인적인 성에 대한 취향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는 교회나 기성인들과 확실히 차별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다 자연스럽고 간접 또는 직접경험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다.

II.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N세대 조명

이른바 신세대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주류층으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매우 큰 위기감에 젖어 들었다. 특별히 이들이 누리는 문화가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선교적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는 종교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첨단과학의 혜택을 받으며 자란 이들도 신비의 세계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N세대 문화에서 종교로 관심이 이어질지 예상해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그 관심이 지속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기성 종교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담은 이른바 ‘안티 기독교’의 움직임이 활발하여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성 제도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부정적 비판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관심이 없다면 아예 비판적 관심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이트들이 흥미를 끌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N세대 문화에서는 여전히 신비한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정통 기독교나 교회의 가치관과는 다르지만, 뉴에이지나 요가, 도 등 인간의 구원과 수양, 영혼의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욱 급증하고 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의 전생의 문제라든지 영

혼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을 보면 여전히 N세대는 종교 경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1. N세대 문화의 종교적 특징

N세대가 활동하는 문화적 환경은 종교적 신비나 영혼의 문제가 왜곡된 상태 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종교성이 존재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왜곡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수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분석적 시도가 요청된다.

첫째, N세대는 기성·제도적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며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다. 예컨대 인터넷에서는 기존 종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기성 종교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성직자에 대한 비판이 성행한다. 이것은 N세대 문화에서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⁷⁾

둘째, 종교적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집단적 경험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개성들을 보면 ‘튀고 싶다’라든지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 같다. 이 역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N세대들이 갖는 문화적 다양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N세대들이 즐겨하는 패션 중 ‘배꼽티’라는 것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읍기 40장 16절과 잠언 3장 8절에서와

같이 허리와 배꼽은 자아 중심과 생산의 상징을 의미한다.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 배와 배꼽이 갖는 생산적 의미가 드러나면서 사회에서 은폐되었던 성을 노출하겠다는 욕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귀걸이처럼 배꼽걸이는 육체 경험을 강조하며, 인간의 가장 중심적 부분이자 가장 은밀한 부분에 분명한 지취를 남김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겠다는 강렬한 자기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⁸⁾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N세대는 스피드를 추구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스피드는 리얼리티(reality) 즉 진짜를 만나겠다는 욕망이 되고 초월 체험을 원하는 욕구가 된다. 종교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N세대들이 즐기는 춤동작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따라서 N세대 문화는 기계적인 듯하지만 사실 분석해 들어가 보면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안에는 초월적 경험을 맛보려는 욕구가 스며 있다. 그것은 N세대 문화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림으로써 초래된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몸에 새기는 문신도 바로 이러한 욕구, 즉 영원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⁹⁾

셋째, N세대는 인류의 병, 죽음, 고통의 문제를 통해 종교를 인식한다. 매체를 통해 아프리카의 어려운 환경이 자주 전해지면서 고통의 존재에 대한 종교적 탐색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N세대는 특정 종교에 대한 진리나 교리를 통해서 중

7) Tom Beaudoin, *Virtual Faith: The Irreverent Spiritual Quest of Generation X*(Jossey-Bass Pub., 1988), 51-72.

8) Ibid., 73-79.

9) Ibid., 86-87.

교를 경험하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나 진리의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¹⁰⁾

넷째, N세대의 주요한 종교적 특징은 모호함이다. 예전에는 정통성이 중요했던 반면, N세대 환경 속에서의 신앙은 다원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검색하면 하이퍼텍스트로 바벨론 신화나 여러 경향의 신학자들의 견해나 비판적 정보가 동시에 제공된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특정한 교리적 차원의 가르침만을 고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며, 이를 위해 교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바른 해석과 신학적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의 정보력은 앞으로 기독교가 선점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N세대들에게 용이한 접근을 통해서 반기독교적 오해들을 확장시킬 것이다. 더욱이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N세대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기성 교인들처럼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질문과 도전을 할 것이다.¹¹⁾

또한 N세대 문화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불안정하다. 근대 이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만큼 시간도 걸리고 각 지역은 나름대로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근대 기술의 발달은 점점 거리와 공간을 좁혔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개념은 세대마다의 옷차림을 통하여서도 반영되고 있다. 예컨대 X세대는 꼭 끼는 옷을 통

해 그 옷에 갇혀 있는 존재의 속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반면, N세대는 자기 몸보다 큰 옷과 신발을 애용하고 있다. 이것은 큰 옷을 통해 성인으로 대우받기 원하면서, 성숙을 지향하는 그들의 욕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는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N세대의 마음깊이 자리하고 있는 불안을 패션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자아 정체성의 모호함이다. 예컨대 복수의 아이디는 서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든지 실제로 사이버 상의 자아를 쉽게 죽인다든지 하는 현상들은 N세대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체성의 모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또 다른 자아를 탄생시키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실제와 가상이 헷갈리고 나중에는 실제 자살과 가상 자살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성적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들에게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이 되어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가진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들에게 성은 Sex(생리적 성)가 아니고 Gender(사회적 성)로 결정하며, 자신이 가진 49%의 여성성을 개발하여 나중에는 자기 안에 두 성(性)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모호성은 자아와 성 정체성과 인격과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보딜리야르의 시뮬라크룸(Simulacrum) 즉 시물레

10) Ibid., 96-110.

11) Ibid., 121-142.

이전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개척시대 모습을 디즈니 만화를 통해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시뮬레이션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낼 뿐이다.¹²⁾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다 가져다가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레미 스트로스의 브리콜라쥬(Bricolage) 개념으로 살펴보면, 종교적 의미로 십자가를 쓰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장식의 대상으로도 종교적 상징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필요하면 필요한 상징물로 전용할 수 있는 문화에 익숙한 N세대는¹³⁾, 브리콜라쥬 특성의 한 예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이질감도 상관없이 전용된다. 모든 음악적 양식과 춤 형식이 찬양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N세대 문화는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세계화라는 현상과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전에는 직장과 노동시장이 종신고용의 개념으로 존재했었는데, 세계화된 상황 특별히 WTO체제가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직장과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요구되었으며, 언제든지 이직과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바로 이러한 경제사회적 환경이 N세대의 다양성 또는 상대화 기조를 강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했던 몇몇 가치관들, 예를 들어 장유유서와 같은 가치관은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 준거가 바뀌어 능력과 실력을 우선하는 다른 도덕적 규칙이 생겨났다. 이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N세대 문화가 담고 있는 가치

12) Ibid., 148.

13) Ibid., 149.

의 기준과 다양성은 훨씬 더 상대화의 폭이 넓고 크다. 기성세대와 같이 정통성을 추구하는 영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 아닐 수 없다.

2. N세대가 추구하는 영성과 교회의 역할

N세대들은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확장된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삶은 그들에게 오히려 끝을 알 수 없는 위기감(crisis of limit)을 느끼게 한다.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가 종교적이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N세대의 인생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가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섭리 속에서 세상을 주도하시며 심판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분명한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해 주면 N세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N세대가 추구하는 영성은 매우 보편성을 띠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여러 종교적 가치와 기준들을 전용하여 혼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위치와 질문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한 N세대 영성의 혼란함은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소비문화로 나타난다. 즉 소비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늠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날이 농후하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교회는 소비적 영성에서 생산적 영성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N세대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서 사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소비문화의 폐해를 자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이들을 소비적 영성에서 구출하여 일차적으로는 소비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바른 소비를 통해서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III. N세대문화와 병영문화의 상관관계

21세기의 병영문화는 병영에 거주하는 이들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른바 N세대에 속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병영문화는 곧 N세대 문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병영문화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별히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이나 40대 이후에 속한 직업군인들과 N세대 병사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병영문화에서 지속적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른바 장유유서가 바탕이 된 전근대 문화적 요소가 주축을 이루는 전통적 병영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N세대 문화에 속한 이들과의 만남과 그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N세대 문화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여 건설적 병영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예상되는 병영문화에서의 갈등

무엇보다도 N세대 문화의 영향권에서 자란 세대는 독립심이 강하며, 자기주장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군대의 병영문화는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수직적 문화였다. 이러한 기존의 수직적 병영문화와 자기중심적이면서 자기주장이 확실한 새로운 세대의 문화가 만나게 되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수직적인 문화는 일반적으로 확일성과 경직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독립심과 지적인 개방성이 뚜렷한 세대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난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수직적 문화와 수평적 문화와의 만남은 전에 볼 수 없던 심각한 갈등양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N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새로운 것들에 대한 지적이며 정서적인 개방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열심이다. 이러한 세대에게 병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너무 정태적일 수 있고, 자신의 개발이 정지 내지는 후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병영문화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도력의 문제일 것이다. 디지털 세대의 문화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과연 얼마나 N세대들에게 지적인 우월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큰 의문이다. 사실 지도력이란 전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2. 21세기 병영문화의 변혁을 위한 방향제시

무엇보다도 병영문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 지휘관들은 새로운 문화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디지털 세대인 N세대에 대한 특성과 그들의 문화적 내용들에 대한 이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N세대들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 판단과 군 특유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병영문화는 N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인 자기 개발에 개방적인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N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제된 삶과 훈련을 통한 자기 몸 가꾸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체계적인 자율적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휘관들의 탁월한 지도역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탁월한 지도역량의 전제조건은 도덕적 탁월성과 전문성이다. 병영문화의 맥락에서 본다면 도덕적 탁월성이란 술선수법의 실천과 이웃 돌봄의 삶을 체질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문성이란 병사들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 판단, 즉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군이 요구하는 전체적 목표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지식과 지혜를 의미한다. 이 때 지도자가 병사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사이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병영문화는 소비문화에 침몰되어 가는 우리 N세대 젊은이들에게 소비를 넘어서 존재하는 가치의 세계를 맛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병영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절제와 나눔을 통한 진정한 삶의 의

미를 맛볼 수 있다면 병영문화는 우리 사회와 나라의 앞날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병영문화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그것도 땀을 흘리며 부딪히는 만남이 주는 삶의 새로운 의미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만남들을 통하여 파편화해가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맛볼 수 있다면 병영문화는 공동체 상실이라는 큰 위기에 처해가는 한국 사회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데에도 결정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21세기 새로운 세대의 문화와 병영문화 변혁을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는 N세대를 ‘문제아’ 내지는 ‘타락한 탕자’로 여기는 배타적이고도 공격적인 자세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N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자, 교회의 입장에서선 선교 2세기의 주역이다. 교회는 오히려 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선언해야 한다. 여전히 종교적 욕구를 가진 N세대들에게 그들의 방식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자면 근본적으로 그들을 우선적인 교회의 섬김과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N세대를 섬기기 위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과감한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더욱 더 섬기며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세대가 기성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의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기존의 교회가 수용해야 할 점들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전통적이며, 장유유서적인 관점에서 권위만을 내세우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N세대에게 접근할 때는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영역을 선교의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선교지이다. 먼저 선점하는 세력이 이 공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유로움과 새로움과 다양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교회들이 쉽게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이버 영역은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마지막 ‘땅 끝’인 셈이다. 그 영역은 권위와 전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독교가 가진 우수한 가치관과 문화로 채워야 할 것이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적극적인 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전적 영성, 즉 몸과 영혼, 세상과 교회와 같은 이원론적 도식을 극복하는 온전한 성경적 영성을 보급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영성훈련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며, 전 교회가 이를 중심으로(문화적) 삶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육과 영혼이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풍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 통전적이고 성경적인 영성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

넷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지표에 현대교회는 더욱 민감하게 대

처해야 한다. N세대는 변화를 원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갱신을 추구할 때 젊은 세대 특별히 N세대가 갖는 갱신의 방향과 접착점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N세대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도 바르지 않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보수하되, 새롭게 해석하고 현실에 맞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아직도 민족복음화를 위한 ‘황금어장’으로서 존재하는 병영에까지 미쳐야 한다. 한국 교회가 병영문화의 기독교문화로의 변혁에 노력하는 만큼 한국 사회와 문화의 복음화는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간의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갈등으로 공동체적 문화 붕괴의 위기에 처하여 있는 대한민국의 변혁은 젊은이들이 한 번은 거쳐 가게 되는 병영문화의 변혁을 통하여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중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중의 미래는?



전호진 목사

최근 불교 종파의 한 지류종교가 군승을 파송하겠다고 하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긴장과 갈등을 조성한다. 군중 제도를 지나치게 자기 종교집단의 포교의 장이나 확장의 기회로만 이용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평화적 공존을 파괴할 수 있다. 현대 탈이데올로기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우리 사회는 군대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우리는 모순된 현실에 처하여 있다. 세계는 갈수록 종교가 번성하고 종교가 국제정치를 움직이는데도 한국 군대

- 약력 : • 미국 풀러신학대학교 선교학 박사
• 영국 웨일즈대학교 철학박사
• 전 고신대학교 학장
• 현 고신교단 총무

는 비종교화의 조짐을 보인다. 전후 이라크에서 지금 시아파 지도자들은 이라크를 이란 식의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워싱턴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¹⁾ 그런데 우리 군대는 군중 병과를 폐지하고 과거 식대로 측탁제도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그야말로 기독교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현대 국제사회는 갈수록 종교간의 갈등이 심하여 문명충돌론 논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교갈등이 심화되는 오늘의 세계적 현상을 우려한 한스 쾅은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구라파 사회의 종교 평화적 공존을 모델로 제시한다.²⁾ 그 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종교간의 갈등이 비교적 적은 종교다원화의 사회였는데 군중 병과의 종교경쟁으로 인하여 다원화가 깨어질 판이다. 이 시대는 문화와 종교의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도 독점사상을 배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평등이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듯 종교집단도 사회를 파괴하거나 해악을 끼치지 않는 공동선을 추구할 때 생존권과 스스로 확장의 권리를 지닌다. 특히 종교가 정치의 힘을 빌려서 자기세력을 확장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종교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종교는 정치나 물질과 결탁할 때는 대체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영적 힘을 상실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모든 종교들은, 특히 군중을 파송한 종교단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화란의 종교학자 van der Leeuw는 종교는 상호 만남과

1) Douglas Jehl, "Pro-Iranian Iraqi Muslim Group Lobbies for Washington's Favor," *The New York Times*, May 7, 2003: 2.

2) Hans Küng, *Global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 (London: SCM Press, 1990), 74-75.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교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종교가 선교, 포교 혹은 전도를 중단할 때는 그 종교는 자기확신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³⁾ 군대에서 군종을 파견한 종교들이 선교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군종 병과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군종 병과가 자기 종교의 선교의 장이 되고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면 군복을 벗고 포교나 선교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세계적이면서 보편적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전통종교의 지류 종교가 군종 장교를 파송하려고 정치적 힘을 발휘한다면 종교다원화 사회에서 종교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의 군종 제도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군종 제도의 기원

한국에서 군종 병과는 먼저 기독교 군목에서 시작하는데, 군목이라는 영어 단어 chaplain은 한 존경받는 목사의 옷에서 유래되었다는 학설과 라틴어 차펠(chapel), 즉 장소를 뜻하는 의미와 관련되었다는 설이 있다. 전자의 학설에 대한 내용은, 중세 프랑스의 메로빙가와 카롤링가 왕조(5-8세기)에 마틴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가 거지에게 준 보잘 것 없는 겹옷이 군대에서는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짧은 겹옷이라는 단어 cappa 혹은 capella에서 군목이라는 단

3) G. Van der Leeuw, *Phenomenologie der Religion*(Tubingen: J. C. B. Mohr), 50.

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군목이란 영어 chaplain은 원래 서구 국가들이 식민지에 자기들의 기지를 설치하고 이 안에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를 chaplain이라고 하였다. 중세기에는 귀족들이 자기의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의미한다. 즉 집단이나 기관의 목사를 의미한다.

군종 병과의 시작은 전쟁과 종교의 관계에서 시작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격언이 나왔는데, 전쟁 앞에서는 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며 신에게 기도한다. 금번 이라크전에서 미군병사들은 진지하게 기도하였다고 한다. 군목들이 대단히 바빴다. 다른 종교들도 출전할 때는 대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였다. 구약에서 모세나 사사들은 예언자, 제사장, 지휘관 노릇을 하였다.

전쟁역사에서 최초의 군종 제도는 B.C. 7세기 시리아 군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군목제도의 근거를 구약 성경에 둔다.⁵⁾ 구약에서는 전쟁은 철저히 신에 속한 것이다. 즉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여 전쟁하러 나갈 때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호와와의 싸움이라고 하였으며 민수기 21장 14절에 여호와와의 전쟁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구약시대에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민족 간의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들 신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었으며, 이는 군사의 수나

4) 하계우, “한국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 및 당면과제 연구”(1987년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12.

5) 강태광, “세계 군종 제도의 기원과 역사,” 『군복음화보』, 2000년 5월 31일자, 4면.

무기의 질에 의해서가 아닌 영적 능력에 의해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었다.”⁶⁾

최근 국제정치학자들은 종교로 인하여 전쟁이 발생하는 현상을 두고서 종교가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비난한다. 이 점에서 기독교도 전쟁의 종교로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정치학자 윌겐마이러는 “히브리 성경 전체는 위대한 왕들의 수많은 군사적 침략을 말하고 있다. 신약에는 전쟁의 외침이 없지만 그 후의 기독교회 역사는 사실상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하였다.⁷⁾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쟁을 통하여 나타났다. 즉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이시다. 사사기 7장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군목제도는 구라파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초대교부들은 대체로 전쟁을 부인하였으나 기독교가 사회 전체에 수용되어 세속권력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개인적인 폭력과 정의의 전쟁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거스틴은 군주가 질서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기독교 성직자들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9세기 말 프랑크 왕국의 분열 항쟁 과정에서 무려 10명 이상의 사제가 전사하였다고 한다.⁸⁾

그러나 군목제도는 서구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칭기스칸은 일찍이 기독교와 접촉을 하였고 그가

6) 노병천, 「성경의 전쟁사」(서울: 도서출판 좁은문, 1997), 35.

7) Mark Jurgensmeyer, *The New Cold War?: Religious Nationalism Confronts the Secular State*(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157.

8) 대영백과사전, “전쟁” 편을 참조할 것.

정복한 소수 부족들 중에는 상당수가 기독교를 집단으로 영접하였다. 이 영향으로 칭기스칸의 군대 안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병영에는 기독교의 예배처소까지 있었다. 이 예배처소는 작고 그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거대한 병영 안에는 이동식 예배처소가 800개가 되었다고 한다. 칭기스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장군들 가운데도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⁹⁾ 임진왜란 때 한국에 온 일본 군대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서 세스페데스가 종군목사로 한국에 온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서구 기독교의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들도 군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5%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슬람 군목과 기독교 군목을 두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같이 이슬람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된 나라는 군대가 아예 이슬람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2. 미국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

한국 군종병과는 미국 군종 제도의 모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북부 양군은 독립전쟁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북부군의 전쟁성(War Department)을 보면 개전 초기에 한 연대는 한 군목을 임명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자격은 안수 받은 목사로 제한하였다. 곧 이어서 링컨 대통령에게는 병원에도 군목이

9) 허대전, 「초대교회와 동방선교」, 홍치모 역(서울: 바른신앙, 1991), 118.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였다. 1862년 5월 의회는 상설병원에
는 반드시 한 명의 군목을 두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격 없는 군목으로 인하여 불평이 제기되었
다. 그래서 군목은 반드시 교단으로부터 적어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미
국의 모든 교단들이 육군과 해군에 군목을 다 파송하였는데,
감리교는 무려 5백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연대 교회가 세워
지고 군목이 한 부대에서 장기 근무를 할 경우는 정기 예배
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군목은 부흥회까
지도 가질 정도였다. 뉴욕의 한 연대교회에서는 연대장이 천
막을 제공, 30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하여 100명의 결신자를 얻
었다. 군목들의 활동은 예배인도 외에 개인상담과 성경과 기
독교 문서를 배포하였다. 남부군은 북부군보다 종교활동이
더 열정적이었다. 리와 잭슨 장군은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으
로 군목들의 활동을 잘 지원하였다. 남부군은 야간에도 부대
에서 찬송소리와 복음송이 들리는 것이 예사였고 술 취한 장
병도 아주 드물었다는 것이다.¹⁰⁾ 1863년에서 64년에 남부 조
지아주 지역의 부대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한 군목의
일지는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한다.

1863년 5월 17일 오전 10시 한 장로교회에서 설교하였는데,
강당은 장교와 사병들로 가득 찼고 매우 진지하였다. 오후 3시
에는 게이트 대대에서 설교하였는데 아주 좋았다. 그 대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5월 19일에는 존슨 대대에서 설교를 하

10) William Warren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New York:
Harper & Row, 1950). 317

었는데 30-40명의 병사들이 올었다...5월 22일 리들 제너럴
대대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100명 이상의 병사들이 회심하였
다.¹¹⁾

3. 도전 받는 기독교 국가 미국

미국 군목제도는 초기에는 기독교가 독점하였으나 남북전
쟁 때 이미 소수의 천주교가 군목을 파송하였고 심지어 유대
군목까지도 있었다. 그 숫자가 적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
만 정교 분리의 미국은 종교 다원화 사회로 다양한 종교들이
군목을 파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단은 물론 이슬람까
지도 군목을 파송하였다. 9.11 테러는 문제의 발단이 된다.
9.11 테러 때 미국 군대에 근무하는 25명의 이슬람 군목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었다. 이유는 빈 라덴은 미국을 알라 신
의 대적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중동에 있
는 이슬람 학자들에게, 이슬람 군목으로 알라신에 대한 충성
과 미국에 대한 충성이 대립하느냐고 질의를 하였다. 물론 이
슬람 학자들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지금 미
국의 무슬림들은 이슬람 신앙과 미국에 대한 충성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 이라크 전쟁 때 한
미군 병사가 동료병사를 살해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시켰
다. 무슬림인 이 병사는 자기 군인들이 동료 이슬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갈등을 느낀 나머
지 동료병사를 살해하고 말았다.

11) Sweet, 318.

미국 사회는 기독교가 아직도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적 가치관이며 윤리관이 지배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동양 이민 흡수로 종교다원화 사회로 발전한다. 미국은 인종 전시장이면서도 종교 전시장이다. 이것이 미국 군복 제도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주어 위에서 언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철저히 국교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박해를 무서운 죄악으로 증오하였고, 기독교의 절대성을 믿으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특히 존 로크의 종교 자유론은 미국헌법에도 강한 영향을 주었다. 즉 모든 종교는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로교가 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종교의 지나친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통적 기독교 가치관과 윤리관 및 세계관이 도전 받고 있다. 그 동안 기독교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적인 가치관이 되었다. 금번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는 신보수파는 바로 원리주의 기독교 사상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반전 사상과 전세계를 휩쓰는 반미, 반기독교 정서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사상가들도 미래의 미국은 종교다양성이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쇠퇴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데, 이유는 미국은 너무 많은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 같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질화 현상을 초래, 혼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도 미국 국기에 대한 선서 거부에서 나타난다. 국기 선서에는 ‘하나님 아래서(Under God)’라는 단

어가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한 의사 겸 변호사가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데 왜 하나님 이름으로 선서를 하느냐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그는 승소하였다. 그러나 미국 상하원은 만장일치로 이 헌법 결정을 거부하였다.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4. 서구 군복제도의 신학적 근거

고대사회도 전쟁과 종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전쟁 때는 대체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군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보편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대한 훈련을 눈앞에 두고 비기독교 신자 지휘관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많이 있었다.

고대 다른 종교의 군대도 성직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군중병과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서구 기독교였다. 중세 시대 서구 기독교가 군복 제도를 발전시킨 주요한 신학적 원리는 중세 서구는 한 국가, 한 종교의 원리에 의하여 기독교 국가(Christendom)로서 독점적 권리를 누렸고, 종교 개혁 이후에는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데 있다고 본다. 전자에 대하여 설명하면, 중세 천주교회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배타적 구원론 사상은 천주교의 절대라는 신앙으로 선교를 하였고 타종교에 대하여는 정복적 자세를 취하였다. 어거스틴은 이방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서 서구 기독교가 식민주의를 실천한 신학적 근거가 된다. 하나님 신앙이 전쟁에 성직자를 대동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전쟁 때 전투에 서는 십자기와 장병들의 휘장이나 십자 문장은 승리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 공격을 시도한 몽골 군대의 복장에서도 이미 십자 문장이 있었다고 한다.

기독교가 군목제도를 먼저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구약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신앙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universal religion)이면서도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종교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 민족주의를 진작시켰다. 종교개혁의 성경번역은 민족 언어 혹은 인종 언어를 부활하게 하였으며,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였다.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서구에서도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신앙과 애국은 조화관계이지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서구 역사에서 용감하게 싸운 이들 가운데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서구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데서도 잘 나타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근대적 민족주의는 서구 기독교가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다.¹²⁾

비서구가 서구에 뒤떨어진 부분은 바로 민족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데에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서구를 모방하여 민족주의를 제일 먼저 발전시켰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회들은 민족주의보다는 혈연이나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일차적 공동

12) 이 주제에 대해서는 Max Weber의 *Hinduism and Buddhism* 결론 부분에서 그는 동양종교는 민족주의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체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통합하여 국가를 이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종과 종교 갈등이 심각한 상태이다. 아프리카는 인종청소가 일어나고 있을 정도이다. 수단은 13부족이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 정상적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후 이라크 역시 미국은 물러가라고 시아파들은 데모를 하지만 막상 인종과 종교의 원만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제각기 소리를 내며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인다. 19세기 이전만 하여도 일본 역시 봉건영주 사회로 서로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다가 서구로부터 근대적 민족주의를 도입하였다. 종교개혁은 근대적 민족주의의 이념적 바탕이 되어졌다. 실제로 루터의 두 칼의 교리는 이것을 잘 입증한다. 하나의 칼은 국가라는 칼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에 속하는 말씀의 칼이다. 이 점에서는 루터주의는 칼빈주의보다 민족주의 정신이 더 강하였고 칼빈 역시 정부, 교회, 가정은 신이 세운 제도(divine institute)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폐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본질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양립하는 경우는 공산주의, 독재체제 혹은 반민주국가이다. 일본의 경우 노일 전쟁과 청일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앞장섰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예수에 대한 충성을 함께 강조한 대표적 인물은 우치무라 간조이다. 그는 “나는 두 J를 사랑한다. Jesus와 Japan 어느 것이 먼저냐고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5. 존폐의 위기에 처한 한국 군대 군중제도

한국의 군중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군중병과의 시작은 1948년 “조선경비대” 시절에 신자 병사들이 민간교회와 협조하여 부대에서 종교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군 지도자들 중 선진국의 제도를 알고 군대 내에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하여 군중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자들이 있었다. 강문봉 씨는 미국 군사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는 “교회와 댄스 홀”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군의 손원일 제독이 정달빈 목사를 초청, 종교활동을 하게 한 것이 군선교의 효시라고 본다. 그리고 장병들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종교 활동 지원을 호소하였다.

군중병과의 본격적 시작은 동란 때 한 카투사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올린 것이 주효하여 군중 제도를 실시하였다. 군중 병과의 직접적 목적은 정신무장 강화와 신앙심 함양, 사기진작이었다. 당시는 군복을 입지 못한 무보수 촉탁이었다. 당시 군중 제도의 목적은 기독교는 철저히 애국하는 종교라는 확신에서 시작한 것이다. 촉탁시대에서 다음은 문관 신분으로 일하는 때가 있었다(1952년 6월에서 1954년 12월).

그러나 1968년 불교가 군승을 파송하기 시작함으로 한국의 군중병과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군복제도에서 군중제도로의 용어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독주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위주의 인격지도 교육이나 상담 등 군중활동이 도리어 서서히 위축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불교는 군중병과에서 기독교의 선교정보나 원리를 배워서 불교를 상황화, 근대화하며 포교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는 군대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반공이념과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 정부로 인하여 독점적 위치에 있었다. 처음부터 천주교 신부들도 촉탁으로 참여하였지만 기독교가 사실상 독주하였다. 1960년대 후반 월남전으로 불교가 군승을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세 종교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보이지 않는 종교갈등도 일어났다. 군사정권 때는 일부 진보적 기독교의 반정부 운동으로 인하여 군목들이 반정부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래서 진보적 교단은 군선교가 활발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진보적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비교적 관용적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군에 적합하지 않는 종교였는지 모른다. 여하튼 반공이 중요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된 당시로서는 기독교 군목들은 할 일이 많았었다. 제도적으로 중대 단위의 인격지도를 통하여 신앙을 주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무신론을 거부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독교만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었음을 부각시켰고,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여졌다. 한신 장군의 “정신전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이러한 배경에서 호소력이 있었다. 그는 군중 병과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한 군 지도자였다.

하지만 반공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퇴장당하고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이데올로기 진공의 정치적 상황은 군중 병과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의 일부 군 지도자들은 군중 병과를 폐지하고 대신 각 종교가 촉탁으로 성직자를 군에 파송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였다는 미확

인 정보가 있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종교의 과열 경쟁도 군종 무용론을 부추기는지 모른다. 지금 군목들은 병사들의 군대적응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정도이며 인격지도 교육은 사라진 것 같다. 과거에 있었던 6.25 정신교육이나 강좌도 사라지고 있다. 물론 외부의 저명인사 종교강연도 사라지고 있다. 금년 6월에 군의 변화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과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젊은이들의 인터넷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탈이데올로기적, 탈윤리적인 우리 시대는 군대에서 도덕교육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의 한 하부 종교가 정치력을 동원하여 자기 종교의 성직자를 파송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50년대 기독교가 군목을 파송할 때 국가로부터는 “정신 전력적 요청과 기독교의 선교적 요청이 상호 작용을 하였다. 단순히 기독교가 정부에 군목제도를 구걸한 것이 아니다. 종교가 정치를 동원할 때는 벌써 그 종교는 순수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회나 국가가 자기 종교를 필요로 하도록 앉아서 요청을 받을 때 신중하게 응답하는 것이 종교인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이 점에 관하여 한국의 한 정치학 교수는 한국의 종교는 초자연적 가치관을 정치와 사회에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종교의 이권이나 이익을 사회와 정치에 요구함으로써 종교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1) 한국 군종 제도의 시대적 발전과정

하재우는 한국 군종제도의 시대적 발전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한다. (1) 무보수 촉탁시대 (2) 문관시대 (3) 독립활동시대 (1955-1965) (4) 특수 군선교시대 (1965-1968) (5) 신앙전력화시대(1968-)이다.¹³⁾

(3)은 군목제도가 정식 군인으로 신분을 가지고 정식 병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며, (4)는 군목도 월남전에 참여하며 올진 공비 사건으로 군목이 국가안보와 정신무장 강화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에 불교도 월남전으로 군승을 파송하게 된다. 군승 파견은 당시 기독교가 군선교에 열심이 식어진 데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불교는 집요하게 군승 파송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신앙전력화는 한신 장군의 공을 무시할 수 없으며, 우리 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자부한다. 여기서 전군 신자화 운동으로 내무반 신자화 운동과 합동세례식이 한국 군대를 휩쓸었다. 이것은 외국에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러나 전군 신자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제기되었다. 첫째는 군에서 3종교간의 과열경쟁을 유발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세례 받은 이방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다. 합동세례는 원래 중세 천주교회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시행한 것이다. 왕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가 되는 기독교 독점 시대에 왕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집단개종을 거부하고 개신교 선교는 철저히 개인전도 위주와 세례였다. 그러나 백가브란과 피켓이 인도에서 부족 단위의 집단 개종을 실천하였다. 1930년대 초기 박형용 박사는 『신학난제선평』에서 집단개종을 비판한다. 하지만

13) 하재우, 상계서, 32면 이하 참고할 것.

소규모로, 제자화 교육이 가능하다면 집단개종을 반드시 거부할 필요는 없다. 개인 단위의 세례라도 증생한 신자를 보장하지 못한다.

2) 군중병과의 미래 방향

우리는 군대 내 종교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군중병과가 유지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대처가 중요하다. 대안으로 먼저 우리는 군대를 공격적 선교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종교도 공격적이 되게 한다. 종교간의 공존을 잘 유지하는 선에서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군대는 보수교단 군목들도 종교대화 신학과 종교신학을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군진신학은 본문과 상황의 접목으로 혹은 현존 신학(presence theology)으로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⁴⁾ 군중병과의 효과적 존속에 기여하도록 불가피하게 보수적 기독교도 종교신학의 수립이 시급하다.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 주장은 종교갈등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타적 기독교가 지배하는 서구, 특히 미국에서 보듯이 종교다원화 사회를 발전시켰고 복지와 민주화를 발전시켰음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전군 신자화 운동과 군선교연합회의 비전2020 실천운동의 전개에 있어, 종교경쟁의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기독교의 전군신자화 운동은 불가피하게

종교경쟁을 유발하였다. 한마디로 한국 불교는 기독교로부터 많은 것을 도입, 상황화를 하였다.¹⁵⁾ 원불교가 이 점에서는 선배인지는 모른다. 원불교의 의식과 복장 등은 과거 기독교 문화의 차용이다. 조계종이 1980년대에 와서 공격적 불교로 변신한 것은 아시아 불교와 연합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 비교종교학 이론에 의하면 종교가 상호 만나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에서 기독교가 항상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종교혼합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중국의 경교나 통일교는 대표적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힌두교 불교 등은 서구 문명과 기독교의 선교로 말미암아 근대화하였고 선교를 강화하여 도리어 기독교를 공격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힌두교나 스리랑카 불교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스리랑카 불교의 YMBA는 좋은 실례이다. 조계종은 총무원과 더불어 포교원을 신설하고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조계종도 『불교포교론』에서 “종교의 생명은 포교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강조한다.¹⁶⁾ 기독교의 합동 세례, 특히 논산훈련소 신병 세례를 두고 타종교는 솔직히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제 기독교는 지혜로운 경쟁은 불가피하면서도 외형적 선전이나 전시보다는 신앙의 내면화를 추구하는 신자화 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정기스칸 이후에 몽고는 부족단위의 집단개종이 있었다. 그러나

14) 박상철,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목회학박사학위논문: 1992), 69.

15) 이 문제에 대하여는 James Huntley Grayson, “Cultural Encounter: Korean Protestantism and Other Religious Traditions,” International Bulletins of Missionary Research, April 2001: 66-68 참조할 것.

16) 한장섭, 『불교포교론』(서울: 불교대학교계편찬위원회, 1996), 25.

19세기 개신교 선교 이전에 몽고에는 한 명의 신자도 없었다. 헌신적인 지도자와 교회 및 성경의 부재는 기독교회의 건물 흔적이나 유물은 있어도 신자는 없었다.¹⁷⁾ 특히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렵지만 기존 신자를 제자화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선교적 상황이다. 제자화도 전도이다. 특히 종교갈등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헌팅톤의 ‘문명충돌’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정규군복을 입은 목사에 의존하는 군선교 활동보다는 비정규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통한 선교를 시도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노골적으로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독교 교단 혹은 목사들의 경쟁을 조정해야 한다. 목사실업자 사태에서 이것은 혼란의 소지를 내재한다.

마지막으로 군대는 제도 못지않게 어떠한 목사들이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현재 일부 민간목사들은 대대급에서 활동하는데 부작용도 많다. 군대는 사회보다 선포활동 못지않게 현존(presence)이 중요하다. 종교 다원주의 신학은 종교의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종교도 절대진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군대는 교리로 종교의 진리와 거짓, 우와 열을 논할 수 없다. 다만 열매로 우리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서 반틸의 변증원리, “진리는 강하게 그러나 방법은 부드럽게”(fortiter in res, suaviter in modo)가 절대 요구된다.

17) 이 주제에 대하여는 필자의 “몽골기독교 역사와 선교전략” 「개혁신학과 교회」(고신대 신학대학원 논문집): 2002년 13호를 참조할 것.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간의 윤리적 제안



박기영 군종목사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지난 10여 년간 불교의 군종장교(법사) 수는 꾸준히 늘어
난 반면, 군목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군목이 배치되지
못하는 군인교회는 날로 많아져만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자가 없는 군인 교회의 사역을 위한

- 약력 : •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D.C.C.)
• 육군 특전사 사자교회 담임목사

민간인 성직자의 숫자는 군목의 수를 앞지를 정도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부족한 군목의 자리를 채우고, 예배활동의 지원을 위해 민간인 성직자가 군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윤리 도덕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의 특수성이나 군목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선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군목들과 잦은 마찰을 빚게 되었고, 그 갈등의 폭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만약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간의 갈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효율적인 군선교 사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조사한 설문 자료를 근거로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의 현황과 문제가 되는 점과, 군선교 사역자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가 효율적인 군선교를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최근에 제정된 “국방부 훈령 제691호(’01.11.12 제정)”와 “육군규정 178(’01.1.1 제정, ’03.5.1 부분개정)”을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군목

국방부 군종실에 의해 선발되어 소속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소정의 군사 및 실무 교육을 마치고 임관한 군종장교로서 각 부대 지휘관의 군종참모와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및 대민활동의 임무를 띠고 사역하는 기독교 목사이다.

나. 민간인 성직자

육군규정에는 군종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인 성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성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의미한다.

다. 군선교 일반 교역자

군선교를 위한 자치회로서 민간인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에는 군선교를 위한 민간 성직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원래 설립된 취지에서 일부 변질된 모습이 있다.

라. 군선교 사역자

이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며, 군선교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군선교 사역자는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만을 의미한다.

4. 민간인 성직자의 현 실태

가. 민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

1) 군목들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사역하고 있는 민간교회가 있기 때문에 군인교회에 대해서 협동목사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군목들과 매우 협조적이다. 예를 들어, 주보에도 담임목사를 군목으로 하며, 본인은 협동목사로 기록한다.

2)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하다. 각종 부대 행사나 군인교회 행사시에 민간인 성직자가 본래 담임하고 있는 민간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군인교회에 도움을 주며 부대와의 관계에서도 상호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군인교회에서 사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인교회의 열악한 재정적인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인교회에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군인교회 재정 장부의 기록 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필요시 군목에게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보고하거나 공개한다.

나. 군인교회만을 전담하는 민간인 성직자

1) 군인교회에 대한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일부 민간인 성직자는 군인교회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군인교회의 담임목사임을 주장한다. 이들 가운데는 군목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되었다는 개념이 없어서, 군목의 지도나 감독을 거부하며, 심지어 어떤 사단군목은 “통제 불가능”이라고 하소연하며, 상급부대에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한다.

2)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 부대 행사나 위문 시에 대대급 군인교회 재정으로는 지원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3) 사례비 지급문제로 빈번한 갈등이 있다. 대대급 군인교회의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함에도 일부 민간인 성직자는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장병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교회재정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사례비로 지출할 뿐 아니라, 현금사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군인교회 신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다. 부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민간인 성직자

한 사람의 민간 성직자가 군인교회를 전담하거나, 매주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여러 민간 성직자들이 한 군인교회를 순차적으로 예배지원을 하는 민간인 성직자들로 업무적인 차원에서 군목과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적다.

라. 민간인 성직자로 인해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

1)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모 부대에서는 군목(군중참모)과 사전 협조 없이 장관급 지휘관을 먼저 독대한 사례가 발생하여 다른 일반참모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인 성직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2) 민간교회의 지원으로 군인교회가 건축되었어도 기부 채납에 의해 군부대에 헌납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시설물에 대해 자기 영향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인 성직자는 교회 건축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군인교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며, 소속 부대 군목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등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대대교회는 교회 이름에 자신이 속한 교단을 명시하여 그 군인교회가 자신이 소속한 교단의 교회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군인교회는 한국군종목사단 소속교회이므로 어느 특정한 교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보나 교패 혹은 명패에 특정교단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잘못된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3) 군목에게 집단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군목이 육군규정에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민간인 성직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으나, 일부는 오히려 군목이나 소속 부대장에게 노골적인 협박성 반응-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진급에 영향이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방부에 진정서를 올리겠다는 등-을 보이는 등 군선교 사역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는 군목들을 비방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민간인 성직자들도 있다.

4) 민간인 지원성직자가 연대교회를 담당할 경우 매우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인다. 대대 군인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연대군목과 협조하거나 지도 받기를 거부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연대교회 목사로 위촉되었을 때는 자신을 연대 군종장교로 착각하고 대대 교회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성직자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간인 성직자가 연대교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연대교회의 종교활동만 책임을 질 뿐이지, 예하 부대인 대대교회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그는 분명히 민간인 성직자일 뿐이지 지휘계통상 예하 부대 민간인 성직자를 지도하는 군종장교와 같은 권한은 없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자 육군에서는 “민간인 성직자

군종활동 지원규정”(육군규정 178, 2001.1.1)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육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인 성직자는 그것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육군규정에 명시된 소집교육에 응하지도 않는 등 비협조적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때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민간인 성직자를 육군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하고자 해도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목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설문조사 배경

본 연구자는 군선교연합회 주관으로 ‘군선교 사역자간의 윤리적 제안’이라는 논제를 발제하기 위해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을 대상으로 각각 두 가지 종류의 설문을 작성하여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응한 군목은 82명으로서 부대별 각종 회의시에 설문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설문을 작성하게 했으며, 해군과 공군 군목은 제외되었다. 민간인 성직자들에게는 소속 부대 군목을 통해 200여 장의 설문지를 전달했으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문지를 보낸 사람은 37명에 불과했다.

6. 연구의 제한점

가. 민간인 성직자의 설문 응답자가 군목에 비해 적었다.

군목이 응답한 설문지가 82매인 반면, 민간인 성직자가 응

답하여 우편 접수된 설문지는 37매에 불과하므로, 각종 사역 현황이나 의식구조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인 성직자에 관한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나. 민간인 성직자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본 연구자는 설문을 조사 분석한 것 외에 여러 군목들을 통하여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의견을 접하고, 그러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다. 반면 민간인 성직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민간인 성직자가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그들이 군목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갈등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 각 부대 지휘관의 직접적인 의견이 없다.

본 연구에는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들에 의해 작성된 설문을 근거로 분석되었다. 민간인 성직자나 군목들에 대한 지휘관의 소견은 설문을 통해 일부 제시되었을 뿐, 민간인 성직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부대의 지휘관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이나 설문조사 내용이 없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의 사역 현황

현재 군종 목사의 감원으로 인해 민간인 성직자의 군 사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군사령부 예하 부대의 경우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 인원수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3군 예하 부대 군목, 민간인 성직자, 교회숫자 현황
(3군사령부 군종실 제공)

구 분	군 목	증감	민간인성직자	증감	교회숫자	증감
'97년도	100명	17명 감소	197명(추정치)	85명 증가	384동	10동 증가
'03년도	83명		272명		394동	

<표 1>에 의하면 3군사령 부에 소속된 군목은 '97년에 비해 17명이 감소된 반면, 민간인 성직자는 85명이 증가되었다. 군선교연합회에서는 현재 전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의 숫자를 450-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의 숫자는 1:4 정도가 될 것이다. 교회 숫자는 6년 동안 10개 동이 증가되는 데 그쳤는데, 이는 군인교회의 숫자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1인당 담당 교회 숫자

구 분	계	1등	2등	3등	4등 이상
군 목	82명	27명(33%)	23명(28%)	14명(17%)	18명(22%)
민간인 성직자	37명	26명(70%)	9명(25%)	2명(5%)	.

<표 2>에 의하면 군목은 1인당 평균 2.3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민간인 성직자는 1인당 평균 1.4개의 대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대별 사역규모

구 분	계	연대급	여단급	사단급	군단급
군 목	82명	42명(52%)	10명(12%)	27명(33%)	3명(3%)
구 분	계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여단급
민간인성직자	37명	3명(8%)	29명(79%)	4명(10%)	1명(3%)

<표 3>에 의하면 군목은 최소한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민간인 성직자의 대부분은 대대급(29명, 79%)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목 10명이 여단급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통계치는 상대적으로 군목 숫자가 매우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령대 분포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현역군목	82명	8명(9%)	53명(65%)	19명(24%)	2명(2%)
민간인성직자	37명	.	1명(2%)	12명(33%)	24명(65%)

<표 4>에 의하면 군목의 응답자는 30대가 53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인 성직자 50세 이상이 24명(65%)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역자들의 노령화는 20대 초반 장병들에 비해 한 세대(3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많은 대부분의 민간인 성직자들이 신세대 장병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70세가 넘는 민간인 성직자들도 일부 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65세라고 규정해 놓은 연령 제한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육군규정 178>대로 시행되지 못하

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인 성직자의 연령제한 문제이다.

〈표 5〉 예배 참석 장병 인원(간부 가족 포함)

구 분	계	100명 이하	101-150명	151-200명	200명 이상
현역군목	82명	25명(31%)	22명(27%)	9명(10%)	26명(32%)
민간인성직자	37명	23명(63%)	9명(24%)	3명(8%)	2명(5%)

<표 5>에 의하면 군목의 경우 예배 참석 인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인 성직자의 경우 63%(23명)가 100명 이하의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간인 성직자의 대부분은 주 2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군인교회의 전임목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민간인 성직자들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 참석 숫자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 대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대 내에서 선교활동의 제한으로 병사들을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군목의 경우 200명 이상(26명 응답, 32%)의 신자들이 참석하는 부대에서는 주 3회 정기 예배와 구역예배 및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등 다양한 신앙지도 외에도 장병들을 위한 인격지도나 위문활동, 각종회의 참석 등 지휘관의 참모로서의 감당해야 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교회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의 업무 만족도

민간인 성직자가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서 지휘관이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표 6〉 민간인 성직자의 군종활동 만족도

구분	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아니다
인원(백분율)	37명	24명(65%)	12명(32%)	1명(3%)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인 성직자의 65%(24명)가 자신의 군선교 사역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군선교 사역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영혼구원에 대한 보람(14명)이 가장 많았다. 군선교 사역의 애로사항으로는 관심과 지원 부족(7명), 소속부대 간부와의 관계상의 어려움(3명), 잦은 부대 이동(2명)순으로 응답하여, 민간인 성직자들이 느끼는 군선교의 제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간인 성직자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잦은 부대이동으로 인한 군선교의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군목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은 잦은 만남을 통해서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민간인 성직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군목은 대대교회는 연대교회의 지체이며, 예하 부대이기 때문에 일부 대대교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인 성직자들이 부대 간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역시 군목의 중

재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때로 군목들은 민간인 성직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소집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 성직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군목의 애로사항이 있다. 다음 표는 민간인 성직자와 소속부대 군목과의 만남에 대한 설문분석 내용이다.

〈표 7〉 민간인 성직자가 소속 부대 군목과 만나는 빈도

구분	계	필요시	분기 1회	연 1-2회	만난 일 없다
인원(백분율)	37명	22명(59%)	3명(8%)	7명(18%)	5명(15%)

<표 7>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민간인 성직자는 군목들과 수시로 만나거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설문 응답자의 15%에 해당하는 5명은 1년 내내 한 번도 소속부대 군목과 만난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군선교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간에 1년 동안 단 한 번의 만남이 없는 것만을 보아도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한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인 성직자가 군목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만날 수도 있겠지만 군목의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의 민간인 성직자가 있을 경우 대부분 소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만날 수 있다.

〈표 8〉 군목에 의한 민간인 성직자 소집교육 실시 여부

구분	계	연 1-2회	분기 1회	미 실시	무응답
인원(백분율)	82명	35명(43%)	7명(9%)	27명(32%)	13명(16%)

<표 8>에 의하면 군목은 42명(52%)이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 실시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명(32%)이나 되는데, 주된 사유로는 서로간의 시간 제약으로 협조가 어렵거나, 상급부대(사단)에서 통합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연대에서 별도로 실시하지 못했거나,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들이 종종 만나서 구두로 업무협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들이 소집교육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목 주관의 소집교육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을 군목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군목들은 주장한다.

〈표 9〉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군목의 만족도

구분	계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인원(백분율)	82명	15명(18%)	49명(59%)	18명(21%)

<표 9>에 의하면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의 군선교 사역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18%)하기보다는 불만족하다고 응답(21%)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다고 응답한 의견은 민간인 성직자들이 우호적이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며, 군목의 경험에 있기에 매우 협조적

이다. 또한, 물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등 장병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긴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군목이 불만족하게 여기는 사유는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하며, 군 계통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군목 비난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교회를 개인 교회인 것으로 생각하여 민간 목회자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며, 지휘부담을 주어서 갈등과 마찰이 있고, 자질이 부족하여 신세대 장병에게 맞지 않는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군목이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민간 목회자가 없이 단지 군인교회에만 전념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이다.

이런 경우는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목을 배제하고 지휘관과 직접적으로 자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업무협조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민간인 성직자들은 지휘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표 10〉 민간인 성직자가 느끼는 지휘관의 업무 지원 정도

구분	계	적극 지원	보통	무관심	힘들게 한다
인원(백분율)	37명	18명(49%)	9명(24%)	7명(19%)	3명(8%)

<표 10>에 의하면 지휘관들이 종교행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응답한 민간인 성직자들은 18명(49%)인 반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힘들게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0명(27%)이나 되었다. 특히 민간인 성직자가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8%(3명)에 이른 것은 지휘관의 종교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민간인 성직자와 지휘관과

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군목들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사안으로 군선교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가 지휘관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에 군목과 함께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어간다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

〈표 11〉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지휘관이 군목에게 요구하는 사항

구분	계	받아본 적 있다	없다	무응답
인원(백분율)	82명	23명(28%)	39명(48%)	20명(24%)

<표 11>에 의하면 군목들은 지휘관으로부터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군목이 중재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거나 건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2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지휘관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지휘관이 직접 나서기를 꺼리고 군중 참모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형식으로 군목이 중간 역할을 해주기 원한다.

지휘관이 군목에게 요청하는 주된 내용은 <육군규정 178>에 명시되어 있듯이 군목이 직접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감독해 주기를 바라며,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목을 통해서 지휘관에게 건의(지휘계통의 확립)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도덕적인 자질 미달로 인한 간부와의 갈등으로 민간인 성직자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군목이 직접 활동해 주기를 요청할 때도 있다.

이러한 지휘관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군목들은 민간인 성직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교육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는 민간인 성직자가 자원해서 사임하도록 하거나 상급부대에 해촉 건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군목들은 마음이 약하거나 부대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과 민간인 성직자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해촉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군규정 178> <제8조 해촉사유>에 보면 군중활동 지원 성직자에게서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 해지를 통보하고 해촉하도록 되어 있다.¹⁾

군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경우도 군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은 군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충분한 해촉 사유가 된에도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난감할 때가 있다. 다음 표는 설문 응답한 군목들이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한 사례에 대한 설문분석 내용이다.

1)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3.5.1 부분개정, 육군본부)

제8조 해촉사유

1. 정신전력 증상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
2. 군 조직에 피해가 되는 행위
3. 보안성 위배 행위
4. 신앙적 교리적 위배 행위
5. 도덕적 윤리적 지탄 행위
6. 군중활동 저해 행위
7. 기타 해촉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

〈표 12〉 군목에 의한 민간인 성직자 해촉 건의

구 분	계	해촉건의	해촉사유 없음	무 응 답
인원(백분율)	82명	13명(16%)	49명(60%)	20명(24%)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군목들 가운데 16%(13명)나 지휘관에게 민간인 성직자 해촉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

군목들이 민간인 성직자 해촉 건의를 하게 된 주된 내용은 민간인 성직자들이 교회재정을 불투명하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 군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는 교회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목회자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담임목사인 본인에게 월 사례비(교통비 포함)를 100만 원 넘게 지출할 것을 요구해서 해촉 건의를 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 중에는 목회 이외에 본인의 다른 직업(예: 보험 설계사)을 홍보하는 일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었거나, 목회나 설교 준비에는 관심이 없고 군인가족들과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성직자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절제한 행동으로 지휘관과 갈등 초래, 부대를 수시로 무단 출입하는 등의 사유로 해촉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내용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군의 특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군목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군선교를 할 수 있는 민간인 성직자의 보충이 절실하게 필요할 뿐 아니라, 민간인 성직자는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해 군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소집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IV.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의 갈등 쟁점

군목이 군선교 사역을 하는 데에도 갈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임관시 실무교육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또한 군 생활을 해 가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군복을 입지 않고 군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들에게도 역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비롯한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표 13>은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간에 서로가 갈등이라고 느끼는 내용들을 설문을 통해 정리 분석한 것들이다.

〈표 13〉 갈등의 원인에 대한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의 견해

구 분	군목의 견해	민간인 성직자의 견해
군중활동 주 체	• 군목은 지휘관의 참모로서 예하부대 군인 교회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군중활동의 주체자이다.	• 군목보다 숫자적으로 많고 장기적인 사역을 하는 민간인 성직자의 역할이 크므로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를 예우해야 한다.
활동영역	• 민간인 성직자는 군목의 활동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되었으므로, 민간인 성직자 활동영역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 소속 부대 예배활동뿐 아니라, 기타 활동(위문, 상담, 교육) 등에 대해서도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

구 분	군목의 견해	민간인 성직자의 견해
지 회 계 통	• 민간인 성직자가 종교활동이나 기타 활동 중에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을 때에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군목의 협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애로 및 건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 군이 군목과 협조할 필요가 없고 평소에 협조관계가 원활한 지휘관과 직접 업무협조를 하면 된다.
담임목사 호 칭	• 군목이 소속한 부대의 모든 군인교회의 담임목사는 군목이다.	• 민간인 성직자는 대대교회 단독목회를 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는 민간인 성직자이다.
교회재정 운 영	• 교회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 대대급 교회의 담임목사는 민간인 성직자이므로 군목의 통제를 받을 필요 없다.

V. <육군규정 178>에 근거한 갈등 해결의 방안

가. 군중활동의 주체²⁾

군대 안에서 군중활동의 주체는 군중장교인 군목이다. 특

2)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1.1. 제정, 육군본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중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 범위 등 업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되게 하기 위한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지원 성직자 활동

4. 지원 성직자는 지원 활동시 군중장교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유사시 군중장교 우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히 연대급 부대의 경우 연대장(지휘관)이 모든 예하부대의 중·소대에 이르기까지 지휘권을 행사하듯이, 연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목은 그 부대에 소속된 모든 종교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군목은 종교활동뿐 아니라, 장병들을 위한 기타 활동(교육 활동, 선도 및 상담활동)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군목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대의 종교활동을 민간인 성직자에게 위임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목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인 성직자가 지원해 주고 있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민간인 성직자는 자신을 위촉해 준 부대장의 지침과 군중 참모인 군목의 업무지도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을 군목에게 보고하거나, 애로 사항 발생시 군목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 범위³⁾

민간인 성직자들로부터 종교활동만 지원 받기 원하는 군목이 있는가 하면, 가능하다면 위문이나 인격지도와 같은 추가적인 활동도 지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군목들도 있다. 이외는 반대로 예배지원만을 원하는 민간인 성직자와 그 이상 장병들을 위한 활동까지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3)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1.1 제정, 육군본부)

제10조 지원 성직자 활동

1. 지원 성직자는 종교행사(각종 예배, 미사, 법회 등)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부대 군중장교나 지휘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위문 상담 등을 할 수 있으며, 가정방문도 할 수 있다.

활동범위는 <육군규정 178>에서 자세하게 명시해 주고 있다.

즉, 민간인 성직자가 예배지원 이외의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승인이나 해당 부대 군목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민간인 성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군목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인 성직자에게 위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지휘 계통

군 조직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지휘계통의 확립이다. 민간인 성직자는 군목의 추천을 받아 장관급 부대장의 결정에 의해서 위촉된다.

이러한 위촉과정도 일종의 지휘계통이다. 이처럼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과 애로사항 건의 등도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밟아서 지휘관에게 보고하되 사전에 군목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연대 군목이 사단에 분기말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대대 군중 활동 현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신자 현황과 출석현황, 세례현황, 그리고 인격지도나 위문활동의 횟수와 더불어 선도활동을 포함한 특이 사항들을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보고 내용은 대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두 혹은 문서상으로 연대 목사에게 보고되지 않으면 분기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휘관들은 그러한 책임을 민간인 성직

자에게 묻기보다는 군목에게 묻기 때문에 당연히 군목은 이하 부대의 모든 군중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한 알아야 하며 때로 지도해야 한다.⁴⁾

라. 담임목사의 호칭⁵⁾

군인교회를 전담하는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은 담임목사의 호칭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육군규정 178>에 명시되어 있다. 즉, 담임목사라는 호칭은 해당부대의 군중 참모인 군목이나 지휘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부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군목이 민간인 성직자의 담임목사 호칭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 성직자가 군목의 승인하에 후보에 담임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되, <연대

4)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3.5.1 부분개정, 육군본부)

제12조 지원성직자 군중활동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

지원 성직자는 대주 1회 모든 군중활동을 상급부대 군중장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1.1 제정, 육군본부)

제10조 지원 성직자 활동

2. 전담 지원 성직자는 소속부대의 해당종교 군중장교(참모)가 동의하면(해당종교 군중장교 미보직시 차상급부대) 해당 종교시설의 담임목사, 주임신부 주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행사에 관해서는 군중장교에 준하여 활동할 수 있고 기타 활동은 지휘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시 지원 성직자는 해당 종교시설의 담임목사, 주임신부 주지가 될 수 없다. 단 소속부대 해당종교 군중장교(참모)가 동의하는(해당종교 군중장교 미보직시 차상급부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목 혹은 군중참모 : 홍길동>이라는 명칭도 함께 기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군목이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서 담임목사의 호칭을 승인할 수 없다면 차선택으로 협력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교회 재정⁶⁾

종교 기금관리에 관한 내용은 <육군규정 179>에 명시되어 있으며, <군중 목사단 내규>에도 나와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의하면 군인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군중감 또는 지역 군중목사단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군인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교회의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간인 성직자가 사역하고 있는 대대군인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민간인 성직자는 교회 재정은 담임목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발생시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⁷⁾

6) <육군규정 179> 군중 업무 규정(2001.1.1 부분개정, 육군본부)

제24조 기금관리

2. 교회, 성당, 법당에서 사용되는 종교기금은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및 집행하되 문제가 있을 때 군중감은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3.5.1 부분개정, 육군본부)

제12조(추가) 지원 성직자 군중활동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

지원 성직자의 종교시설 현금(시주금)을 연 1회 사단 군중참모(보좌관)가 감사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금번에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들간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에 형성되어 있는 세 가지 역할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독립적인 모델이다. 이는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이 서로의 활동영역을 간섭하지 않고, 만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역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델이다. 둘째는, 상호 대결적인 모델이다. 민간인 성직자는 군목을 자신의 군선교를 방해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군목 역시 민간인 성직자를 군선교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델이다. 셋째는, 상호 협력적인 모델이다. 즉, 민간인 성직자들은 군목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와 상호협력하면서 군선교 사역을 극대화해 가고 있는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주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위치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협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민간인 성직자의 위촉이나 활동영역 그리고 해촉을 하는 원칙들이 국방부 훈련이나 육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대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민간인 성직자들의 윤리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군선교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군목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 그리고 이 두 집단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제언함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가. 군목

첫째, 민간인 성직자 위촉시에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군목이나 지역군목단은 군선교연합회에서 추천한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서 심의하고 면접을 실시할 때에 몇 가지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종활동 지원규정에 명시된 것 중에서,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와의 관계, 소집(보안)교육 참석의 의무,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 연 1회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및 해촉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며 필요시 서약서를 받아 놓음으로써 갈등의 여지를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군목들도 육군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⁸⁾

예를 들면, 정기적인 소집교육이다. 육군규정에 소집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목 주관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민간인 성직자에게 위촉 당시 교육했던 것들은 의미가 없다. <표 8>에 의하면 설문 응답한 군목 중에 48%인 40명이 민간

인 성직자 소집교육을 미 실시했거나 무응답했다. 미 실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군목은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인 성직자가 군선교에 협조적인 동역자가 되도록 주도적인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는 매우 협조적인데, 군목이 매우 비협조적이거나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군목이 책임져야 한다.

셋째, 민간인 성직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에 나타난 1인당 담당교회 숫자, <표 3>의 부대별 사역규모 또한 <표 5>의 군인교회에 참석하는 신자 숫자, 그리고 육군규정에 명시된 여러 가지 사항만을 보더라도 군선교는 군목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가 인원수는 다수이지만 그들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군목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약자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를 야박하게 대하기보다는 민간인 성직자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지도해 준다는 차원에서 좀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를 대할 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개인적인 정실에 얽매어 민간인 성직자에게 육군규정을 차별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군선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성을 사게 되며, 나아가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의 갈

8)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종활동 지원규정(2001.1.1 제정, 육군본부)

제11조 지원 성직자 교육참석 의무

지원 성직자는 군 정신전력 증강에 필요한 교육에 연 2회(해당부대 1회, 중단 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등의 폭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육군규정에는 민간인 성직자 위촉 연령이 65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보다 연령이 많은 목사님을 추천하여서 위촉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선배 목사님들에게 종종 받게 된다. 군선교가 더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육군규정과 같은 법 적용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의식 있는 군목이 되어야 한다.

나. 민간인 성직자

첫째, 육군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규정을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민간인 성직자가 군이나 군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민간인 성직자는 우선적으로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 활동 지원 규정’(2001. 1 제정)에 따라 활동하되,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대의 군목이나 군중목사단, 혹은 군선교연합회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군목과 협조를 통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위촉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 갈등의 주된 원인은 민간인 성직자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군목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생각은 위촉을 받을 당시부터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목은 1-2년 주기로 바뀌는 반면 민간인 성직자는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셋째, 교회제정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무리한 사례비 요구를 삼가야 한다. 군인교회가 민간인 성직자의 생활비를 책임

지겠다고 결정한 후에 초빙한 것이 아니다. 군인교회 성도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위촉의 과정을 거쳐 사역하게 된 것이다. 최초에는 무보수로 혹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군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사명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민간인 성직자가 민간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듯이 군인교회에서 대접받으려 한다면 이는 자원 봉사하겠다고 한 민간인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넷째, 민간인 성직자는 압력단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은 무모한 발상이다.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가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군목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외에 무리하게 군인아파트 입주를 요구한다거나, 군목들과 동등한 처우를 해 달라고 한다거나, 최소한의 사례비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군에서 민간인 성직자를 위촉할 때 일정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어떠한 타당성도 없다.

그러므로 민간인 성직자 자치회가 군선교 전략을 위한 모임 내지는 회원간의 친선 목적 차원을 넘어서 메스컴을 통해 군에 해를 끼치는 집단 성명서를 내거나, 군목을 비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불순한 생각은 오히려 민간인 성직자 스스로 울무를 매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일에 가담하게 된 자는 분명히 해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다. 군중 목사단

첫째, 군선교 사역자간의 문제 발생시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 그 방안 중의 하나는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간에 갈등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규정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 훈령 제691호」(‘01.11.12 제정)와 「육군규정 178」(‘01.1.1 제정)에 민감한 사안이 제정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천주교나 불교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독교 민간인 성직자만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는 ‘군종목사단 운영내규’를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종목사단은 법령 제정시 군목단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 일부 정책 부서에 근무하는 몇몇 군목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령이 제정되었을 경우, 만약에 그러한 법령이 대다수 군목들의 의견과 배치될 경우 군종목사단 집행부가 불신임을 받을 수 있으며, 일관성이 있어야 할 군선교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육군규정 178>에 의하면 군선교연합회가 민간인 성직자를 추천하고, 지역 군목단의 심의를 거쳐 장관급 지휘관의 결재로 위촉이 된다.

그러므로 군종목사단은 지역 군목단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를 감독하며, 필요시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군종목사단의 의결사항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군목단과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존안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금번 발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

꼈던 것은 군선교연합회를 포함하여 군종목사단에서조차도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전 군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성직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인원수, 소속교단 연령, 위촉받은 시기 및 지원동기, 전임 사역자 인지 아니면 민간교회를 담임하면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촉자 명단 및 해촉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군종목사단은 이러한 자료들이 수집 보존되고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위원이나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부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라. 군선교연합회

첫째, 군선교연합회는 상호 공존의 자세로 군종목사단과 긴밀한 협조 및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재 군선교연합회에서는 군종목사단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공조관계가 지금보다 더욱더 견고한 관계가 되어서 모든 군목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군선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성직자들을 군목들이 안심하고 지휘관에게 위촉건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선교연합회는 민간인 성직자 추천시 신분이 확실하고 검증된 민간인 성직자를 초교파적으로 군종목사단에 추천해야 한다. 만일 군선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성직자가 소속부대 군목과의 갈등을 일으켜서 해촉이 된다면 그 민간인 성직자를 추천한 군선교연합회의 신뢰성이 추락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선교연합회에 의해 추천받아 위촉된 민간인



비전 2020

21세기 군선교 목표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
약속의 말씀	•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속 13:9) •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비전2020운동이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0년 3,700만 명(전 국민의 75%) 성도의 나라를 만들어 군·민족·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하므로 ◆국가적으로는 모범 국민 육성과 건강함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 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교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망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 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하자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입니다.

목표

1996년	25년후	2020년
1,200만 기독교신자 (25%)		3,700만 기독교신자 (75%)

전략

3천7백만 성도의 나라	군인교회	▶ 목표 - 신앙전력화: 사교예방, 사기진작, 명망한 병영생활 조성 - 불신전우전도, 결연, 수세 - 매년군인신자 25만 명 연결(군세례인원 22만 명+입대세례교인 3만 명) ▶ 핵심 실천사항 - 한생명살리기 5대 실천사항 적용
	군선교연합회	▶ 목표 - 21세기 기독교운동 실천(군·민족복음화) - 교단, 교회 연합사역 실천 ▶ 핵심 실천사항 - 미래출석교인 양육 종합관리(정책, 행정, 전략) - 군선교 회원교회 육성 - 전국지역중심의 실천(지회육성) - VIP(귀빈) 가족전도 프로그램 보급 - 업무 전산 시스템 구축(네트워크)
	군선교회원교회	▶ 목표 - 교회부흥: 미래출석교인 등록(매년군인신자 25만 명 결연) - 지역복음화: 625만 명 믿음의 가정(매년 25만 명×25년) - 민족복음화: 3,700만 성도의 나라(625만 명×4인가족+1,200만 명) ▶ 핵심 실천사항 -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적용 - VIP(귀빈) 가족전도 실천사항 적용

전술

군인교회-한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1. 불신 전우 전도	· 불신장병대상 적극적인 전도
2. 결신 전우 세례	· 신교대, 일반부대 등 수세 인도
3. 초신 전우 양육	· 1:1 사랑의 청지기 신인 결연(전입병 면담) · 예배참석, 성경공부, 교회, 봉사활동 등
4. 양육 전우 결연	· 군인신자카드 작성 제출
5. 결연 전우 관리	· 일반교회 결연 후 양육상황 점검

군선교회원교회-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1. 사랑의 청지기	· 1:1 집중관리자 선정, 전담부서 조직
2. 사랑의 등록	· 연결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3. 사랑의 기도	· 1·1·1 기도실천, 공식행사시 기도 ·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1)를 위해서 1분(1)이상 기도
4. 사랑의 편지	· 사신, 주보, 도서 등 우송
5. 사랑의 선물	· 마음을 담은 기호품 선물 우송
6. 사랑의 심방	· 직접 부대 방문 심방
7. 사랑의 초청	· 휴가·외박시 교회로 초청
8. 사랑의 영접	· 전역시 영접, 환영 예배
9. 사랑의 전도	· 가족전도의 기회(명소)
10. 사랑의 헌금	· 전도, 세례 등 선교비 후원

나와 우리의 사명은?

1. 기도하기: 매일 순간마다 비전2020운동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참여하기: 섬기는 교회가 비전2020운동에 참여토록 함과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사역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참여합니다.
3. 헌신하기: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주변에 홍보하고 섬기는 교회나 단체에서 군선교연합회 후원 회원 가입 등 헌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 재능을 온전히 바쳐 실천합니다.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

MEAK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02)744-2661~3, 3675-2020 FAX:(02)742-7954
 E-mail: meak@v2020.or.kr http://www.v2020.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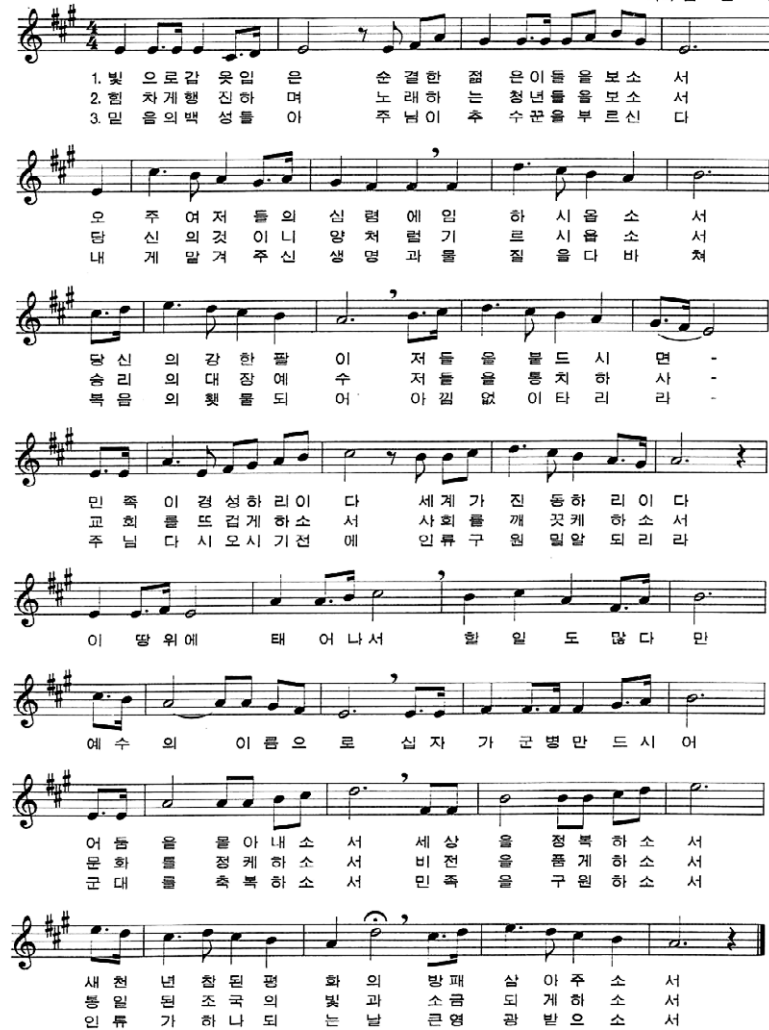
중부지회: (042)551-2021	부산지회: (051)627-4740
대구지회: (053)422-4826	광주지회: (062)652-5020
동부지회: (033)745-0416	제주지회: (064)744-2661
전북지회: (063)533-7727	충북지회: (043)836-3572
울산지회: (052)266-1904	경남지회: (055)262-7311
강원지회: (033)241-4361	전남동지회: (061)745-9912
영동지회: (033)681-5871	충남지회: (041)561-2020
경북지회: (054)276-9130	필라델피아: 215-497-5016
L.A 지회: 310-782-7773	지 회
시카고지회: 773-545-8348	시애틀지회: 206-367-5858
뉴욕지회: 718-229-9191	워싱턴지회: 703-323-7221

군 선교의 노래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행진곡풍으로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민식



1. 빛으로 감 옷 입은 순결한 젊은이들을 보소서
 2. 흰 차개 행진하며 노래하는 청년들을 보소서
 3.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 수권을 부르신다

오 주여 저들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담신의 것이니 망쳐 렵기 르시옵소서
 내게 맡겨 주신 생명의 과실을 다 바쳐

당신의 감한 팔이 저들을 붙드시면
 승리의 대장에 수치를 치하사
 복음의 햇빛이 어 아낌없이 타리라

민족이 경성하리이다 세계가 진동하리이다
 교회를 드겁게 하소서 사회를 깨갓게 하소서
 주님다시오시기전에 인류구원 밀알되리라

이 땅 위에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만드시어

어둠을 몰아내소서 세상을 정복하소서
 문화를 정케 하소서 비전을 품게 하소서
 군대들 축복하소서 민족을 구원하소서

새 천년 창된 평화의 방패 삼아 주소서
 동원된 조국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인류가 하나 되는 큰 영광 받으소서



군선교신학 1

•
2004년 5월 25일 인쇄

2004년 5월 30일 발행

발행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02-744-2661~3,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 : //www.v2020.or.kr](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쿼란출판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1005호

TEL/745-1007, 편집부/745-1301 ~2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0505-745-1007

홈페이지 ; [http : //www.qumran.co.kr](http://www.qumran.co.kr)

E-mail ; qumran@hitel.net

qumran1@hosanna.net

등록/제1-670호(1988. 2. 27)

•
값 12,000원

책임교열 : 임영주·김향숙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한국교회 군선교와 21세기 비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은 6·25 환란중에 군종목사제도가 창설되어 지난 50여 년 동안 외적으로는 군교회당 건축, 내적으로는 진중세례운동 전개로 바른 신앙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신앙전력화와 민족복음화를 향한 밑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 군선교는 군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교회로 결연시켜 미래축적교인으로 양육한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인 비전2020운동의 실천으로 군·민족·인류복음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독교내적으로 건강한 국가와 밝은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군선교 주요역사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특징	군종목사제도창설	전군선교자운동	신앙전력화운동	군복음화운동	자녀전중세례운동	비전2020살인운동
기록사항	• 해군 : 1950.11.10 • 육군 : 1951.2.7 (국가공약체) • 공군 : 1952.2.10 • OOO월일 : 1956.12.8	• 1인1종교장기운동 • 육군(육군) 군사령관 헌신장군 (1972.4.25) • 338명 수배 • 전군선교자후원회 • 신앙전력화위원회 • 신안련회 (1976.6.26) • 백령도대동	• 제1차전중세례운동 • 육군200만 (1972.4.25) • 338명 수배 • 전군선교자후원회 • 신앙전력화위원회 • 신안련회 (1976.6.26) • 백령도대동	• 전중세례당 건축 • 육군200만 (1972.4.25) • 338명 수배 • 전군선교자후원회 • 신앙전력화위원회 • 신안련회 (1976.6.26) • 백령도대동	• 제2차전중세례운동 • 육군200만 (1972.4.25) • 338명 수배 • 전군선교자후원회 • 신앙전력화위원회 • 신안련회 (1976.6.26) • 백령도대동	• 민족복음화 • 한국군교회 • 육군200만 (1972.4.25) • 338명 수배 • 전군선교자후원회 • 신앙전력화위원회 • 신안련회 (1976.6.26) • 백령도대동
특기사항	• 6.25전쟁 • 미군33사단 • 103명대대 • 무명의 카부사 • 사가 이승만대통령 • 개헌안서 • 성신	• 청와대부사 • 사건 (1968) • 석벽, 윤선 등 • 무장간첩 • 정부 • 민족복음화운동 • 1965 • 김활란 박사	• 새마을운동 • 제2차전중세례운동 • 연소종로 74 • 도로회(1974) • 민족복음화 • 성회 (1977) • 기독교 • 300만(1974)	• 한국교회 100주년 (1984) • 교회개혁운동 • 연소종로 74 • 도로회(1974) • 민족복음화 • 성회 (1977) • 기독교 • 300만(1974)	• 한국교회 100주년 (1984) • 교회개혁운동 • 연소종로 74 • 도로회(1974) • 민족복음화 • 성회 (1977) • 기독교 • 300만(1974)	• 기독교인수 • 1,500만 명 (2000년) • 한국교회 • 군교회 • 신교인 • 1,200만 명 (1996/25%)

군선교의 한국교회 공헌도

구분	공헌도	세부사항
1970년대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	1969년 전군선교자운동, 제1차 전중세례운동 전개, 초교와 범교회적으로 전군선교자후원회 (현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설립함으로 197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한국교회의 민족복음화를 위한 근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990년대	한국교회 지도자의 활약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후 한국교회의 성장이 경제, 감소되고 있음에, 1990년 육군훈련소에서 접회된 제2차 전중세례운동으로 청년 지도를 주도하면서 구체적인 민족복음화의 청사진을 한국교회에 제시하면서 한국교회 계도의 활력소가 되었음.
	한국교회와 사회연대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전군에서 실시되는 제2차 전중세례운동 후 2년 전 군선교센터 인 육·해·공군본부교회당 건축 등 초교와 범교회적인 사역의 실천으로 한국교회 연합사역에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2000년대	21세기 비전 운동	비전2020 실천운동(2020년 전체 국민의 75%인 3,700만명 기독교인 지파)으로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복음화, 나아가 인류복음화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선교전략과 함께 21세기 한국교회의 성장 및 영혼구원은 물론 완전하게 주도해 나가고 있음.

군선교 5대 비전

비전목표	비전결실	세부사항
신앙전력화	필승의 강군육성	장병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여 사기전작, 사고 예방, 명량한 병영생활에 기여.
민족복음화	기독교선교사건	비전2020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전 국민의 75% 이상을 복음화하여 한국교회부흥에 기여.
기독교인양성	비전인양성기	기독교청년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교적 비전 교육.
국가경영	건강한 국가건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가경영의 전 분야에서 리더십 지도자를 육성.
기독교인양성	발신사회 건설	바른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들에게 의하여 사회, 국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므로 밝고, 건강, 건강한 국가를 건설.
기독교인양성	발신사회 건설	세속화반사회문화의 기독교문화로 전환하여 생명력 있는 밝은 사회를 건설.

군선교 10대 특징

구분	내용
1.다성적인면	신체와 지성 등 모든 면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우수한 젊은이들,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의 주역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2.기능적인면	순한 조직사회라는 점. 매년 37만 명씩 입대하고 전역하는 젊은 형상 복음을 위한 대상들이 새로운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3.동원적인면	지휘관이 명령하면 일시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곳이다.
4.섬리적인면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 본성을 갖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등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그들은 섬리적으로 불안, 위축, 긴장된 상태이므로 순한 어떤 아이와 같은 속도로 되어 있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5.안보적인면	장병들이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 생각하지 않는 사정권이 확립되어 있을 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군대의 6일전 전쟁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6.교회화적인면	연간 22만 명씩 세례를 준다. 1회,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100년, 101년, 102년, 103년, 104년, 105년, 106년, 107년, 108년, 109년, 110년, 111년, 112년, 113년, 114년, 115년, 116년, 117년, 118년, 119년, 120년, 121년, 122년, 123년, 124년, 125년, 126년, 127년, 128년, 129년, 130년, 131년, 132년, 133년, 134년, 135년, 136년, 137년, 138년, 139년, 140년, 141년, 142년, 143년, 144년, 145년, 146년, 147년, 148년, 149년, 150년, 151년, 152년, 153년, 154년, 155년, 156년, 157년, 158년, 159년, 160년, 161년, 162년, 163년, 164년, 165년, 166년, 167년, 168년, 169년, 170년, 171년, 172년, 173년, 174년, 175년, 176년, 177년, 178년, 179년, 180년, 181년, 182년, 183년, 184년, 185년, 186년, 187년, 188년, 189년, 190년, 191년, 192년, 193년, 194년, 195년, 196년, 197년, 198년, 199년, 200년, 201년, 202년, 203년, 204년, 205년, 206년, 207년, 208년, 209년, 210년, 211년, 212년, 213년, 214년, 215년, 216년, 217년, 218년, 219년, 220년, 221년, 222년, 223년, 224년, 225년, 226년, 227년, 228년, 229년, 230년, 231년, 232년, 233년, 234년, 235년, 236년, 237년, 238년, 239년, 240년, 241년, 242년, 243년, 244년, 245년, 246년, 247년, 248년, 249년, 250년, 251년, 252년, 253년, 254년, 255년, 256년, 257년, 258년, 259년, 260년, 261년, 262년, 263년, 264년, 265년, 266년, 267년, 268년, 269년, 270년, 271년, 272년, 273년, 274년, 275년, 276년, 277년, 278년, 279년, 280년, 281년, 282년, 283년, 284년, 285년, 286년, 287년, 288년, 289년, 290년, 291년, 292년, 293년, 294년, 295년, 296년, 297년, 298년, 299년, 300년, 301년, 302년, 303년, 304년, 305년, 306년, 307년, 308년, 309년, 310년, 311년, 312년, 313년, 314년, 315년, 316년, 317년, 318년, 319년, 320년, 321년, 322년, 323년, 324년, 325년, 326년, 327년, 328년, 329년, 330년, 331년, 332년, 333년, 334년, 335년, 336년, 337년, 338년, 339년, 340년, 341년, 342년, 343년, 344년, 345년, 346년, 347년, 348년, 349년, 350년, 351년, 352년, 353년, 354년, 355년, 356년, 357년, 358년, 359년, 360년, 361년, 362년, 363년, 364년, 365년, 366년, 367년, 368년, 369년, 370년, 371년, 372년, 373년, 374년, 375년, 376년, 377년, 378년, 379년, 380년, 381년, 382년, 383년, 384년, 385년, 386년, 387년, 388년, 389년, 390년, 391년, 392년, 393년, 394년, 395년, 396년, 397년, 398년, 399년, 400년, 401년, 402년, 403년, 404년, 405년, 406년, 407년, 408년, 409년, 410년, 411년, 412년, 413년, 414년, 415년, 416년, 417년, 418년, 419년, 420년, 421년, 422년, 423년, 424년, 425년, 426년, 427년, 428년, 429년, 430년, 431년, 432년, 433년, 434년, 435년, 436년, 437년, 438년, 439년, 440년, 441년, 442년, 443년, 444년, 445년, 446년, 447년, 448년, 449년, 450년, 451년, 452년, 453년, 454년, 455년, 456년, 457년, 458년, 459년, 460년, 461년, 462년, 463년, 464년, 465년, 466년, 467년, 468년, 469년, 470년, 471년, 472년, 473년, 474년, 475년, 476년, 477년, 478년, 479년, 480년, 481년, 482년, 483년, 484년, 485년, 486년, 487년, 488년, 489년, 490년, 491년, 492년, 493년, 494년, 495년, 496년, 497년, 498년, 499년, 500년, 501년, 502년, 503년, 504년, 505년, 506년, 507년, 508년, 509년, 510년, 511년, 512년, 513년, 514년, 515년, 516년, 517년, 518년, 519년, 520년, 521년, 522년, 523년, 524년, 525년, 526년, 527년, 528년, 529년, 530년, 531년, 532년, 533년, 534년, 535년, 536년, 537년, 538년, 539년, 540년, 541년, 542년, 543년, 544년, 545년, 546년, 547년, 548년, 549년, 550년, 551년, 552년, 553년, 554년, 555년, 556년, 557년, 558년, 559년, 560년, 561년, 562년, 563년, 564년, 565년, 566년, 567년, 568년, 569년, 570년, 571년, 572년, 573년, 574년, 575년, 576년, 577년, 578년, 579년, 580년, 581년, 582년, 583년, 584년, 585년, 586년, 587년, 588년, 589년, 590년, 591년, 592년, 593년, 594년, 595년, 596년, 597년, 598년, 599년, 600년, 601년, 602년, 603년, 604년, 605년, 606년, 607년, 608년, 609년, 610년, 611년, 612년, 613년, 614년, 615년, 616년, 617년, 618년, 619년, 620년, 621년, 622년, 623년, 624년, 625년, 626년, 627년, 628년, 629년, 630년, 631년, 632년, 633년, 634년, 635년, 636년, 637년, 638년, 639년, 640년, 641년, 642년, 643년, 644년, 645년, 646년, 647년, 648년, 649년, 650년, 651년, 652년, 653년, 654년, 655년, 656년, 657년, 658년, 659년, 660년, 661년, 662년, 663년, 664년, 665년, 666년, 667년, 668년, 669년, 670년, 671년, 672년, 673년, 674년, 675년, 676년, 677년, 678년, 679년, 680년, 681년, 682년, 683년, 684년, 685년, 686년, 687년, 688년, 689년, 690년, 691년, 692년, 693년, 694년, 695년, 696년, 697년, 698년, 699년, 700년, 701년, 702년, 703년, 704년, 705년, 706년, 707년, 708년, 709년, 710년, 711년, 712년, 713년, 714년, 715년, 716년, 717년, 718년, 719년, 720년, 721년, 722년, 723년, 724년, 725년, 726년, 727년, 728년, 729년, 730년, 731년, 732년, 733년, 734년, 735년, 736년, 737년, 738년, 739년, 740년, 741년, 742년, 743년, 744년, 745년, 746년, 747년, 748년, 749년, 750년, 751년, 752년, 753년, 754년, 755년, 756년, 757년, 758년, 759년, 760년, 761년, 762년, 763년, 764년, 765년, 766년, 767년, 768년, 769년, 770년, 771년, 772년, 773년, 774년, 775년, 776년, 777년, 778년, 779년, 780년, 781년, 782년, 783년, 784년, 785년, 786년, 787년, 788년, 789년, 790년, 791년, 792년, 793년, 794년, 795년, 796년, 797년, 798년, 799년, 800년, 801년, 802년, 803년, 804년, 805년, 806년, 807년, 808년, 809년, 810년, 811년, 812년, 813년, 814년, 815년, 816년, 817년, 818년, 819년, 820년, 821년, 822년, 823년, 824년, 825년, 826년, 827년, 828년, 829년, 830년, 831년, 832년, 833년, 834년, 835년, 836년, 837년, 838년, 839년, 840년, 841년, 842년, 843년, 844년, 845년, 846년, 847년, 848년, 849년, 850년, 851년, 852년, 853년, 854년, 855년, 856년, 857년, 858년, 859년, 860년, 861년, 862년, 863년, 864년, 865년, 866년, 867년, 868년, 869년, 870년, 871년, 872년, 873년, 874년, 875년, 876년, 877년, 878년, 879년, 880년, 881년, 882년, 883년, 884년, 885년, 886년, 887년, 888년, 889년, 890년, 891년, 892년, 893년, 894년, 895년, 896년, 897년, 898년, 899년, 900년, 901년, 902년, 903년, 904년, 905년, 906년, 907년, 908년, 909년, 910년, 911년, 912년, 913년, 914년, 915년, 916년, 917년, 918년, 919년, 920년, 921년, 922년, 923년, 924년, 925년, 926년, 927년, 928년, 929년, 930년, 931년, 932년, 933년, 934년, 935년, 936년, 937년, 938년, 939년, 940년, 941년, 942년, 943년, 944년, 945년, 946년, 947년, 948년, 949년, 950년, 951년, 952년, 953년, 954년, 955년, 956년, 957년, 958년, 959년, 960년, 961년, 962년, 963년, 964년, 965년, 966년, 967년, 968년, 969년, 970년, 971년, 972년, 973년, 974년, 975년, 976년, 977년, 978년, 979년, 980년, 981년, 982년, 983년, 984년, 985년, 986년, 987년, 988년, 989년, 990년, 991년, 992년, 993년, 994년, 995년, 996년, 997년, 998년, 999년, 1000년, 1001년, 1002년, 1003년, 1004년, 1005년, 1006년, 1007년, 1008년, 1009년, 1010년, 1011년, 1012년, 1013년, 1014년, 1015년, 1016년, 1017년, 1018년, 1019년, 1020년, 1021년, 1022년, 1023년, 1024년, 1025년, 1026년, 1027년, 1028년, 1029년, 1030년, 1031년, 1032년, 1033년, 1034년, 1035년, 1036년, 1037년, 1038년, 1039년, 1040년, 1041년, 1042년, 1043년, 1044년, 1045년, 1046년, 1047년, 1048년, 1049년, 1050년, 1051년, 1052년, 1053년, 1054년, 1055년, 1056년, 1057년, 1058년, 1059년, 1060년, 1061년, 1062년, 1063년, 1064년, 1065년, 1066년, 1067년, 1068년, 1069년, 1070년, 1071년, 1072년, 1073년, 1074년, 1075년, 1076년, 1077년, 1078년, 1079년, 1080년, 1081년, 1082년, 1083년, 1084년, 1085년, 1086년, 1087년, 1088년, 1089년, 1090년, 1091년, 1092년, 1093년, 1094년, 1095년, 1096년, 1097년, 1098년, 1099년, 1100년, 1101년, 1102년, 1103년, 1104년, 1105년, 1106년, 1107년, 1108년, 1109년, 1110년, 1111년, 1112년, 1113년, 1114년, 1115년, 1116년, 1117년, 1118년, 1119년, 1120년, 1121년, 1122년, 1123년, 1124년, 1125년, 1126년, 1127년, 1128년, 1129년, 1130년, 1131년, 1132년, 1133년, 1134년, 1135년, 1136년, 1137년, 1138년, 1139년, 1140년, 1141년, 1142년, 1143년, 1144년, 1145년, 1146년, 1147년, 1148년, 1149년, 1150년, 1151년, 1152년, 1153년, 1154년, 1155년, 1156년, 1157년, 1158년, 1159년, 1160년, 1161년, 1162년, 1163년, 1164년, 1165년, 1166년, 1167년, 1168년, 1169년, 1170년, 1171년, 1172년, 1173년, 1174년, 1175년, 1176년, 1177년, 1178년, 1179년, 1180년, 1181년, 1182년, 1183년, 1184년, 1185년, 1186년, 1187년, 1188년, 1189년, 1190년, 1191년, 1192년, 1193년, 1194년, 1195년, 1196년, 1197년, 1198년, 1199년, 1200년, 1201년, 1202년, 1203년, 1204년, 1205년, 1206년, 1207년, 1208년, 1209년, 1210년, 1211년, 1212년, 1213년, 1214년, 1215년, 1216년, 1217년, 1218년, 1219년, 1220년, 1221년, 1222년, 1223년, 1224년, 1225년, 1226년, 1227년, 1228년, 1229년, 1230년, 1231년, 1232년, 1233년, 1234년, 1235년, 1236년, 1237년, 1238년, 1239년, 1240년, 1241년, 1242년, 1243년, 1244년, 1245년, 1246년, 1247년, 1248년, 1249년, 1250년, 1251년, 1252년, 1253년, 1254년, 1255년, 1256년, 1257년, 1258년, 1259년, 1260년, 1261년, 1262년, 1263년, 1264년, 1265년, 1266년, 1267년, 1268년, 1269년, 1270년, 1271년, 1272년, 1273년, 1274년, 1275년, 1276년, 1277년, 1278년, 1279년, 1280년, 1281년, 1282년, 1283년, 1284년, 1285년, 1286년, 1287년, 1288년, 1289년, 1290년, 1291년, 1292년, 1293년, 1294년, 1295년, 1296년, 1297년, 1298년, 1299년, 1300년, 1301년, 1302년, 1303년, 1304년, 1305년, 1306년, 1307년, 1308년, 1309년, 1310년, 1311년, 1312년, 1313년, 1314년, 1315년, 1316년, 1317년, 1318년, 1319년, 1320년, 1321년, 1322년, 1323년, 1324년, 1325년, 1326년, 1327년, 1328년, 1329년, 1330년, 1331년, 1332년, 1333년, 1334년, 1335년, 1336년, 1337년, 1338년, 1339년, 1340년, 1341년, 1342년, 1343년, 1344년, 1345년, 1346년, 1347년, 1348년, 1349년, 1350년, 1351년, 1352년, 1353년, 1354년, 1355년, 1356년, 1357년, 1358년, 1359년, 1360년, 1361년, 1362년, 1363년, 1364년, 1365년, 1366년, 1367년, 1368년, 1369년, 1370년, 1371년, 1372년, 1373년, 1374년, 1375년, 1376년, 1377년, 1378년, 1379년, 1380년, 1381년, 1382년, 1383년, 1384년, 1385년, 1386년, 1387년, 1388년, 1389년, 1390년, 1391년, 1392년, 1393년, 1394년, 1395년, 1396년, 1397년, 1398년, 1399년, 1400년, 1401년, 1402년, 1403년, 1404년, 1405년, 1406년, 1407년, 1408년, 1409년, 1410년, 1411년, 1412년, 1413년, 1414년, 1415년, 1416년, 1417년, 1418년, 1419년, 1420년, 1421년, 1422년, 1423년, 1424년, 1425년, 1426년, 1427년, 1428년, 1429년, 1430년, 1431년, 1432년, 1433년, 1434년, 1435년, 1436년, 1437년, 1438년, 1439년, 1440년, 1441년, 1442년, 1443년, 1444년, 1445년, 1446년, 1447년, 1448년, 1449년, 1450년,



비전 2020

21세기 군선교 목표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

약속의 말씀

- 나는 말하되 나는 너희를 살리라 하였거늘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나 하나뿐이라 하였거늘 13:8
- 나는 저와 하나님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 6:16)

비전2020운동이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 회인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0년 3,700만 명(전 국민 75%) 성도의 나라를 만들어 군·민족·인류·복음화에 이바지하므로 ◆국가적으로는 보편 국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 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과 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하자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입니다.

목 표

1996년	25년후	2020년
1,200만 기독교신자 (25%)	→	3,700만 기독교신자 (75%)

전 략

3천7백만 성도의 나라

군인교회

군인교회연합회

군인교회원교회

▶목표

- 신앙전력화 : 사고예방, 사기진작, 명량한 병영생활 조성
- 불신전우전도, 결연, 수제
- 매년군인신자 25만 명 연결 (군세례인원 22만 명 + 입대세례교인 3만 명)

▶핵심 실천사항

- 한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적용

▶목표

- 21세기 기독교운동 실천 (군·민족복음화)
- 교단, 교회 연합사역 실천

▶핵심 실천사항

- 미래출세교인 양육 종합관리 (정책, 행정, 전략)
- 군선교 회원교회 육성
- 전국지역중심의 실천(지회육성)
- VIP(귀빈) 가족전도 프로그램 보급
- 업무 전산 시스템 구축(네트워크)

▶목표

- 교회부흥 : 미래출세교인 등록 (매년군인신자 25만 명 결연)
- 지역복음화 : 625만 명 민음의 가정 (매년 25만 명 × 25년)
- 민족복음화 : 3,700만 성도의 나라 (625만 명 × 4인가족 + 1,200만 명)

▶핵심 실천사항

-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적용
- VIP(귀빈) 가족전도 실천사항 적용

전 술

군인교회 - 한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 | | |
|------------|---|
| 1. 불신전우 전도 | • 불신장병대상 적극적인 전도 |
| 2. 결신전우 세례 | • 신교대, 일반부대 등 수제 인도 |
| 3. 초신전우 양육 | • 1:1 사랑의 청지기 선임 결연(전입병 면담)
• 예배참석, 성경공부, 교회, 봉사활동 등 |
| 4. 양육전우 결연 | • 군인신자카드 작성 제출 |
| 5. 결연전우 관리 | • 일반교회 결연 후 양육상황 점검 |

군선교회원교회 -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 | | |
|-----------|---|
| 1. 사랑의청지기 | • 1:1 집중관리자 선정, 전담부서 조직 |
| 2. 사랑의등록 | • 연결 군인신자를 미래출세교인으로 등록 |
| 3. 사랑의기도 | • 1·1·1 기도실천, 공식행사시 기도
•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1)를 위해서 1분(1)이상 기도 |
| 4. 사랑의면지 | • 서신, 주보, 도서 등 우송 |
| 5. 사랑의선물 | • 마음을 담은 기호품 선물을 우송 |
| 6. 사랑의심방 | • 직접 부대 방문 심방 |
| 7. 사랑의초청 | • 휴가·외박시 교회로 초청 |
| 8. 사랑의영접 | • 전역시 영접, 환영 예배 |
| 9. 사랑의전도 | • 가족전도의 기회(영소) |
| 10. 사랑의헌금 | • 전도, 세례 등 선교비 후원 |

나와 우리의 사명은?

1. [기도하] : 매일 순간마다 비전2020운동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참여하] : 섬기는 교회가 비전2020운동에 참여토록 함과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사역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참여합니다.
3. [헌신하] :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대로 주변에 홍보하고 섬기는 교회나 단체에서 군선교연합회 후원 회원 가입 등 헌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 재능을 온전히 바쳐 실천합니다.

비전2020운동을 실현하는
MEAK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서울시 종로구 호계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02) 744-2661~3 3675-2020 FAX:(02) 742-7954
 E-mail : meak@v2020.or.kr http://www.v2020.or.kr

- | | |
|----------------------|-----------------------|
| 충부지회: (042) 551-2021 | 부산지회: (051) 627-4740 |
| 대구지회: (053) 422-4826 | 광주지회: (062) 652-5020 |
| 동부지회: (033) 745-0416 | 제주지회: (064) 744-2661 |
| 전북지회: (063) 533-7727 | 충북지회: (043) 836-3572 |
| 울산지회: (052) 266-1904 | 경남지회: (055) 262-7311 |
| 강원지회: (033) 241-4361 | 전남동지회: (061) 745-9912 |
| 영동지회: (033) 681-5871 | 충남지회: (041) 561-2020 |
| 경북지회: (054) 276-9130 | 필라델피아지회: 215-497-5016 |
| LA지회: 310-782-7773 | 시애틀지회: 206-367-5858 |
| 사카고지회: 773-545-8348 | 워싱턴지회: 703-323-7221 |
| 뉴욕지회: 718-229-9191 | |